

扶餘 扶蘇山 寺址

THE BUSOSAN BUDDHIST TEMPLE SITE IN BUYEO

24

日帝強占期 資料調査 報告 24輯

扶餘 扶蘇山 寺址

THE BUSOSAN BUDDHIST TEMPLE SITE IN BUYEO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24輯

扶餘 扶蘇山 寺址

THE BUSOSAN BUDDHIST TEMPLE SITE IN BUYEO



국립부여박물관
Buyeo National Museum

자료 제공

후지사 와 후미히코 藤澤典彦

홍재선 洪再善

국립중앙박물관

일러두기

1. 본 보고서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부여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당시 조사 과정이 기록된 후지사와 가즈오 藤澤一夫의 일기를 참조하여 엮었다.
2. 각주, 도, 표는 각각 일련번호로 표기하였고, 각 논고는 같은 방식이되 별도로 부여하였다.
3. 보고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고, 원문이 한자인 경우는 한자 표기만을 하였다.
4. 수록된 조사 유물은 총번호를 부여하였고, 국립부여박물관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였다.
5. 조사 유물에 대한 설명과 사진, 도면, 탑본은 각 유형별로 대표 유물을 한 면에 배치하였으며, 동일 유형으로 분류된 유물들은 속성표를 기준으로 사진 및 도면을 실었다.
6. 도면의 축소 비율은 유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1/3을 기본으로 하되, 마루끝장식기와는 1/4, 소조상 일부와 벽화편 일부는 1/2로 하였다. 일부 수막새[도 66]는 참고로 수록하였다.
7. 속성표 내의 크기 단위는 cm이며, 조사 유물의 잔존 및 추정 수치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8. 유물의 색조는 日本 農林水産省農林水産技術會議事務局 監修·財團法人日本色彩研究所 色票監修『新版標準土色帖』(2006)을 참고하였다.

목 차

발간사	7
머리말	10
I. 조사 경과	16
1. 일제강점기(1942년) 발굴조사	
2. 1980년 발굴조사	
3. 2008년 학술조사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54
1. 와전	
1) 수막새	
2) 평기와	
3) 인장와	
4) 치미	
5) 마루끝장식기와	
6) 전	
2. 소조상	
3. 벽화 편 및 벽체 편	
4. 토기	
5. 금속제품	
논고	158
1. 일제강점기 부여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 출토 기와 고찰	
윤용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2. 부소산 사지 출토품 채색안료 성분 분석	
김연미, 이민희 국립부여박물관	

『扶餘 扶蘇山 寺址』 발굴조사보고서를 펴내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실시된 고적조사 사업은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우리나라 전역의 유적과 문화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의 고도인 부여 지역도 사찰과 고분에 대한 간략한 조사와 부분적인 보고가 진행되었고, 특히 부여신궁扶餘神宮의 건립이 추진되어 고적조사 사업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처럼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에서 접근한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은 유적과 유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간행된 보고서도 약보고 수준으로, 학술적인 조사 성과를 전달하는 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부여 지역 고적조사 사업의 실상과 한계로 인해 제대로 보고되지 못한 자료와 출토품을 분류·정리하여, 이를 정식 보고서로 간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扶餘 軍守里 寺址』를 시작으로 2014년 『扶餘 東南里 寺址』, 2015년 『扶餘 定林寺址』, 2016년 『扶餘 舊衙里 寺址』를 출간하였고, 올해에는 부여읍 부소산 서남쪽 기슭에 자리한 부소산 사지를 대상으로, 미진했던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扶餘 扶蘇山 寺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소산 사지는 1942년에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내용이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이후 1980년에 국립부여박물관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하여 사비시기 후반에 조성된 백제 왕실의 사찰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진행 경과와 출토 유물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부여박물관은 공개되지 못한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집적하여, 사비 백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하고 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 형 원

국립부여박물관장

Director's Prefa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esigned and carried out Ancient Relic Survey Project to explore and collect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and utilized them as a means of justifica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exploitation. As a part of this project, surveys on the Buyeo region, ancient capital of Baekje Kingdom, especially on Buddhist temple sites and ancient burials were carried out, and brief reports were published. Especially a plan for constructing Buyeo(Shinto) Shrine encouraged more intensive surveys on ancient relics. There was serious lack of detailed review and systematic analysis on artifacts and ancient relics in the surveys based on political purpose rather than academic one. In addition a few, if any, survey reports in the forms of brief brochures were quite insufficient to include scholarly information.

The Buyeo National Museum has performed a project to publish a full version of report on ancient relics discovered or investigated in Buyeo region as a part of Ancient Relic Survey Project in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through comprehensive and meticulous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data and unearthed objects. Since *The Gunsu-ri Buddhist Temple Site in Buyeo*(2012), The Buyeo National Museum has published *The Dongnam-ri Buddhist Temple Site in Buyeo*(2014), *The Jeongnimsa Buddhist Temple Site in Buyeo*(2015), and *The Gwa-ri Buddhist Temple Site in Buyeo*(2016). In this year, The Buyeo National Museum publishes a full version of report on the Busosan Temple Site at southwestern foot of Busosan Mountain in Buyeo.

The Busosan Temple Site was excavated in 1942; however, the report was not officially published. In 1980, three institutes, including the Buyeo National Museum re-excavated the site and uncovered additional materials and information. Additional research comes to generate a hypothesis that the temple would be the original royal temple of Baekje Kingdom. This report contains comprehensive descriptions on the excavation procedure and unearthed objects based on investigations conducted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The Buyeo National Museum plans to investigate and research unpublished data provided by the Ancient Relic Survey Proje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o illuminate and establish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cultural heritage of Sabi phase of Baekje Kingdom through publishing comprehensive and scholarly outcomes.

Yun Hyeung-won
Director of the Buyeo National Museum

머리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고적조사 사업은 우리나라와 만주 등지의 문화재, 민속자료 등을 조사, 수집하여 식민 통치의 정당성 확보와 침탈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백제의 고도인 부여 지역도 포함되어 사찰 및 고분에 대한 간략한 조사와 이에 따른 보고가 일부 이루어졌다. 1915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어, 1916년 조선총독부 산하 고적조사위원회가 마련된 이후 실시된 1917년 및 1922년 조사, 그리고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가 설립된 이후 1935년부터 1942년 사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1939년 부여신궁의 건립 계획에 따라 고적조사가 집중되면서 사찰 유적에 대한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처럼 정략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고적조사 사업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박물관 체제하에서 보관된 조사품과 자료는 해방 이후에도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와 정리,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도 그간 제대로 보고되지 못한 고적조사품에 대해 유적별로 보고서를 출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여읍 부소산 서남쪽에 위치한 부소산 사지를 대상으로, 미공개된 발굴조사 경과와 조사품을 정리하였다.

부소산 사지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 분관 내 연구소에 부임한 후지사와 가즈오 藤澤一夫가 1942년 정립사지를 발굴하기 전 시험적으로 조사했던 유적이다. 이후 1980년에 국립부여박물관 등 3개 기관의 재발굴 과정에서 가람 및 추가 유물이 확인되어 백제 왕실의 기원사찰 新願寺刹로 추정되었고, 이후 부소산 사지의 입지와 성격 등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에 비해 1942년 부소산 사지의 발굴조사와 출토품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당시 발굴 경과나 유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토품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2015년 국립부여박물관이 개최한 『백제 정립사와 복위 영녕사』 특별전에 공개된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서 당시 조사 경과가 확인되어, 부소산 사지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된 1942년 발굴 조사품 가운데 당시 일자와 출토 위치를 묵서 墨書로 표기한 유물을 확인하여 부소산 사지 조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분류하였고, 일기 내용과 출토 유물을 비교하여 조사품의 양상에 대해 보다 근접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발굴조사 경과와 미정리된 조사품을 함께 수록하여 1942년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성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이 정 인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Curator's Foreword

Through the Historical Remains Research led by the Japanese General-Government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surveys of cultural heritage and materials on folk customs were collected and utilized as a means of justification of Japan's colonial rule and exploitation.

During this process, surveys on the Buyeo region, the ancient capital of Baekje Kingdom, were included, and brief surveys and reports on temple sites and ancient tombs were partially conducted. A full-scale survey began in 1915. After the Historical Remains Research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1916, surveys were conducted in 1917 and 1922. After the Joseon Historical Remains Research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31, surveys were conducted from 1935 to 1942.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imperial Shinto shrine in Buyeo was driven in 1939, surveys on historical remains, especially temple sites, intensified.

Since surveys on historical remains were politically motivated, with the academic approach remaining insufficient, related survey materials and information were stored under the then system of the Museum of the Japanese General-Government of Korea. After Korea's liberation, the stored materials and information were systematically reorganized under the national museum, but it was only now that the project l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ocused on re-investigation, summarization, and publication of reports. Similarly, the Buyeo National Museum published and released reports by historic site on remains, but they had not been properly reported. This year, the museum aims to investigate fully detailed survey procedures and unveiled research items mainly from the Busosan Temple Site located southwest of Busosan Mountain in Buyeo.

The Busosan Temple Site was a historic site that was experimentally surveyed before Fujisawa Kazuo (藤澤一夫), who was head of the research institute at the Buyeo Annex of the Museum of the Japanese General-Government of Korea, excavated Jeongnimsa Temple Site in 1942. Then, in 1980 when three institutions including the Buyeo National Museum excavated the site and discovered various relics including relics from the temple, researchers developed an assumption that the site was the original royal temple of Baekje Kingdom. Subsequently, reviews on the location and nature of the Busosan Temple Site were made, and research results on various angles were compiled.

On the other hand, the excavation survey of the Busosan Temple Site and the approach on the excavated relics in 1942 were limited. Excavation procedures or detailed contents on relics at the time were not confirmed, and excavated relics were only estimated but not organized. From the diary of Fujisawa Kazuo featured at "Buddhist Cultural Exchanges of Baekje: Jeongnimsa and Yongningsi," the 2015 special exhibition held by the Buyeo National Museum, survey procedures at the time were confirmed, and researchers were able to understand the rough survey procedure of the Busosan Temple Site inves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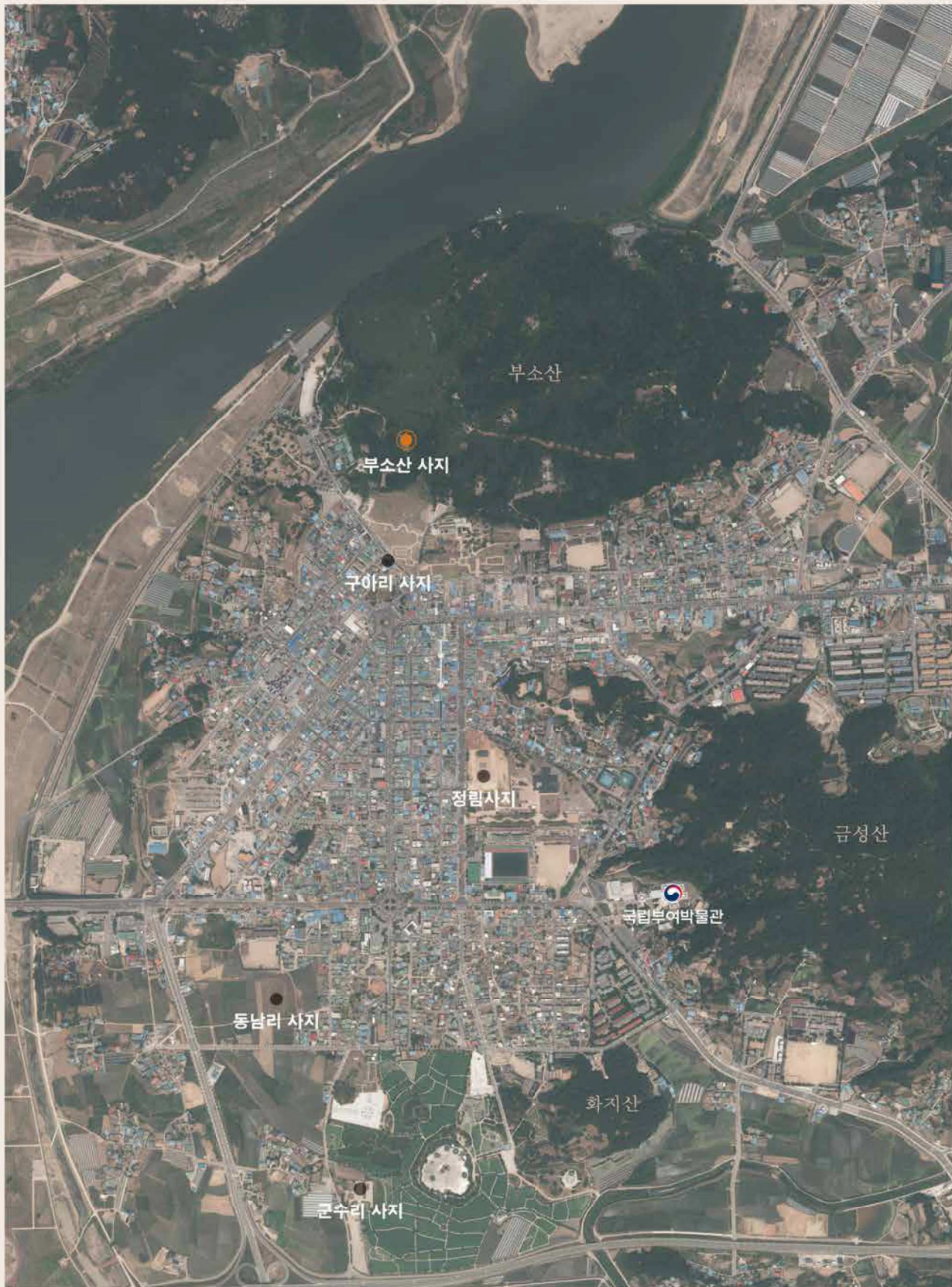
Based on this, researchers were able to confirm the relics bearing the date and location of excavation marked with Chinese ink and reconfirm that they were excavated from the Busosan Temple Site at the time. They were also able to approach the condition of the excavated relics at the time of discovery by comparing the content of the diary and the relics. This researcher lists the excavation survey procedures and un-organized relics and summarizes and reports the result of excavation surveys conducted in 1942 on the Busosan Temple Site.

Lee Jung-in

Curator of the Buyeo National Museum

원색도판 1

부여 부소산 사지 위치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2012년)



원색도판 2

부여 부소산 사지(2017년, 북서 ▶)



원색도판 3

부여 부소산 사지(2017년, 남동 ▶)



원색도판 4
마루끝장식기와



원색도판 5
연화문수막새



원색도판 6
인물 머리 소조상 편



원색도판 7
코끼리 머리 소조상 편







I

조사 경과

1. 일제강점기(1942년) 발굴조사
2. 1980년 발굴조사
3. 2008년 학술조사

1. 일제강점기(1942년) 발굴조사

1) 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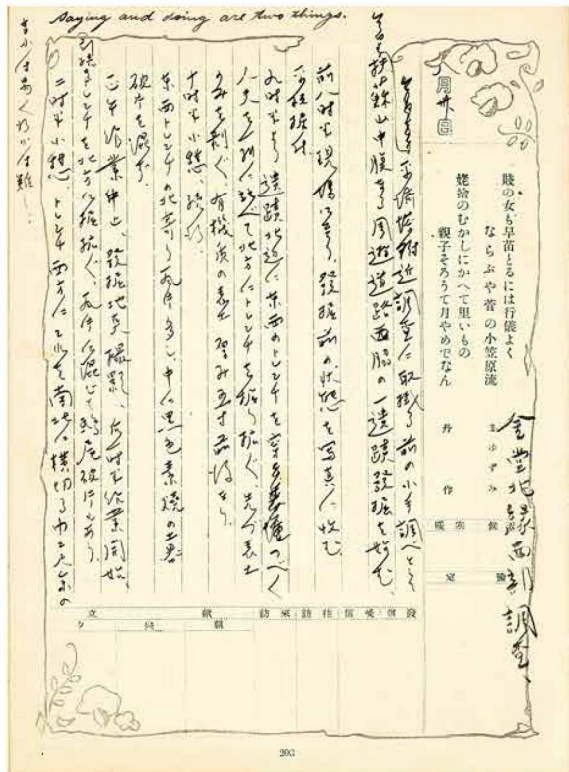
부소산 사지에 대한 최초 발굴 조사는 부여 지역에 대한 고적조사를 위해 1942년 7월 18일 조선총독부의 고적 조사 촉탁으로 임명된 후지사와 가즈오 藤澤一夫(1912~2003)에 의해 이루어졌다.¹ 이에 대한 발굴 경과는 정식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후지사와가 남긴 일기²에서 확인된다.^{[도 1~22] 2}

1942년 8월 7일 부여에 도착한 후지사와는 정림사지를 발굴하기 전 연습용으로 부소산 사지를 조사하였는데,³ 8월 30일부터 시작하여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⁴ 이후에는 9월 23일에서 9월 27일까지 진행한 구아리 금용조합창고지 앞의 사지 발굴조사, 9월 28일에서 12월 18일까지 실시한 정림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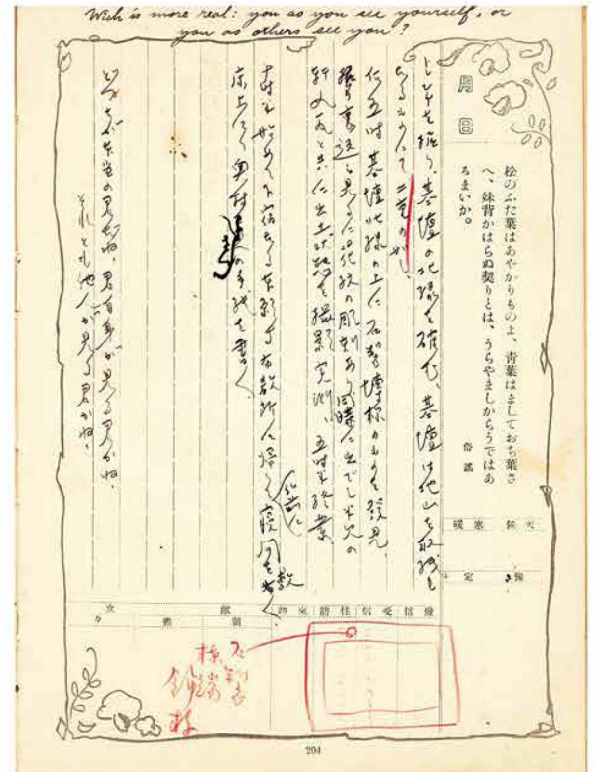
1942년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간행한 『박물관신문』에 따르면⁵ 후지사와 가즈오와 요네다 미요지 米田美代治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언급되었고,⁶ 이는 후지사와의 일기에도 요네다 미요지의 조사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부소산 사지 발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원문과 번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 1 후지사와 가즈오의 고적조사 촉탁 임명과 관련된 상황 및 그의 행적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이병호, 「고찰 1 藤澤一夫와 定林寺址의 調査」, 『扶餘 定林寺址』(국립부여박물관, 2015), pp. 284~288.
- 2 국립부여박물관은 2015년 후지사와 가즈오의 아들인 후지사와 후미히코 藤澤典彦 씨로부터 일기를 입수하여 『백제 정림사와 복원 영녕사』 특별전에 원본 및 일부 내용을 공개하였고, 일제강점기 자료 조사 보고서인 『扶餘 定林寺址』(2015) 및 『扶餘 舊衙里 寺址』(2016)에 발굴조사와 관련된 원문 및 번역을 소개하였다.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정림사와 복원 영녕사』(2015), pp. 13~14; 동지, 앞의 보고서(2015), pp. 20~58; 동지, 『扶餘 舊衙里 寺址』(2016), pp. 24~25; 일기에는 개인적인 일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발굴 과정을 서술한 작업일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발굴 기간 및 경과, 유구의 특징, 출토 유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 부소산 사지는 1942년 8월 부여군공 이참도로 襄參道路 개설을 위한 도로공사와 부여상수도 취수장 공사 중 발견되었다고 한다. 홍재선, 「백제의 가람-사비도성의 가람을 중심으로」, 『백제가람에 담긴 불교문화』(국립부여박물관, 2009), p. 249; 이와 관련하여 후지사와 가즈오가 우메하라 스에지 梅原末治에게 보낸 편지를 참고하면 기존에 유적이 발견된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 안의 궁궐 건축지로 추정하다가 발굴이 진행되면서 사찰지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4 1980년에 실시된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의 보고서에는 1942년 발굴조사의 기간이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는 9월 23일까지 조사 기록이 남아 있다. 申光燮, 『扶蘇山城-廢寺址 發掘調査報告(1980년)』, 『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pp. 15~16; 또한 후지사와 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기간은 25일 간이지만, 날씨나 개별 일정 등으로 3일(9월 7일, 9월 13일~14일) 가량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실제 조사 기간은 22일 간으로 여겨진다.
- 5 서성훈, 「부여지방의 백제유적」, 『박물관신문』 제92호(국립중앙박물관, 1979. 4.). 이 기사에서는 「扶蘇山 西腹寺址」로 명명하여 부소산 사지에 대한 소개를 하였는데, 부소산 사지는 사명寺名이 알려지지 않아 여러 명칭으로 알려졌고, 발굴자인 후지사와 가즈오는 「扶蘇山廢寺」라고 칭하였다. 藤澤一夫, 「百濟佛敎遺蹟의 研究」, 『人文』3卷 1號(人文科學委員會, 1949); 동지, 「古代寺院の遺構の見る韓日の關係」, 『아시아文化』vol. 8 No.2(1971); 한편 1980년 발굴조사 시에는 「扶餘扶蘇山廢寺址」로 명명하였다. 申光燮, 앞의 보고서(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이후 2004년 4월 10일 「부여부소산성서복사지扶餘扶蘇山城西腹寺址」의 명칭으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161호에 지정되었다.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2008년 국립부여박물관이 발간한 지표조사 보고서와 같은 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학술조사보고서의 경우 「扶蘇山寺址」로 통칭하여 조사하였다.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절터와 가마터 지표조사 보고서』(2008);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폐사지』(2008); 관련 연구자들은 「부소산 서복사지」, 「부여 부소산폐사지」, 「부여 부소산사지」, 「扶蘇山寺址」 등으로 언급하였고,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명칭들을 포괄하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부소산 사찰 유적 가운데 유구 및 출토 유물이 알려진 대표적인 사찰지임을 감안하여, 제명題名을 「扶餘 扶蘇山 寺址」로 정리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 6 부소산 사지의 조사자로 후지사와 가즈오와 요네다 미요지 외에 이종국 李鍾國이란 인물을 들 수 있다. 이병호, 앞의 보고서(국립부여박물관, 2015), p. 285 재인용; 杉三郎, 「百濟山懷精舍址」, 『古美術』13卷 5號(寶雲社, 1943); 藤澤一夫, 앞의 글(人文科學委員會, 1949); 이 밖에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는 발굴에 참여하거나 관련한 인물로 「마츠무라 松村 군」(8월 31일), 「최 군」(9월 4일), 「아마노 天野 군」(9월 11일), 「마츠바라 松原 군」(9월 23일)이 거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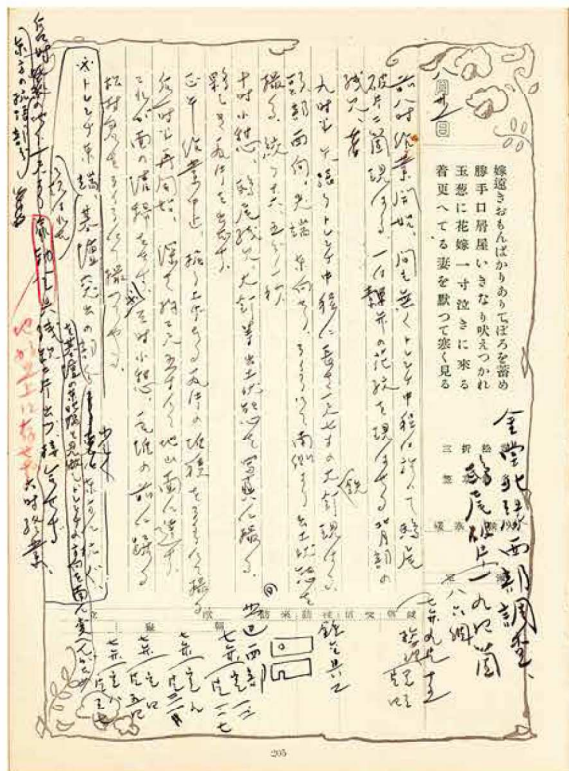
① 후지사와 가즈오 藤澤一夫 일기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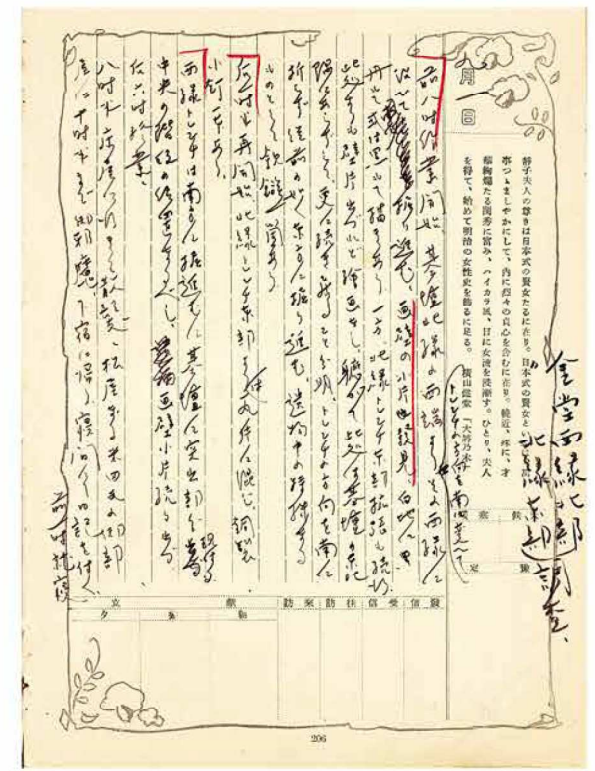
[도 1] 8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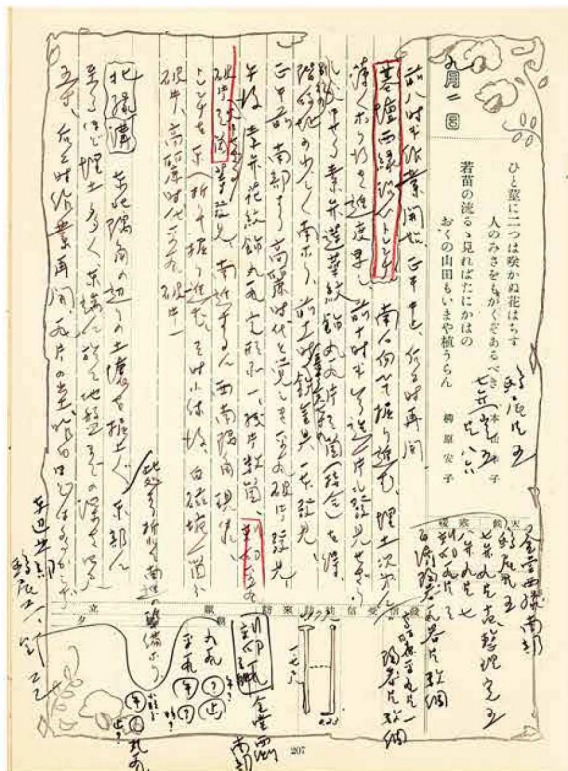
8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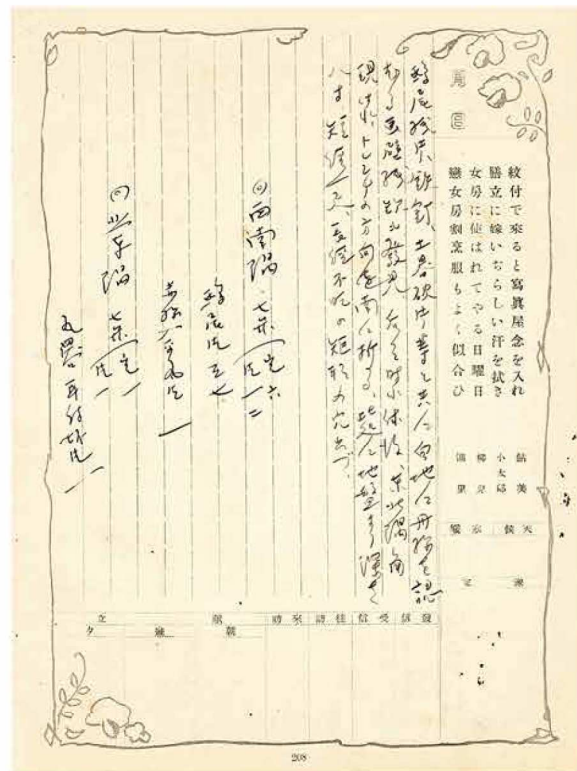
[도 2]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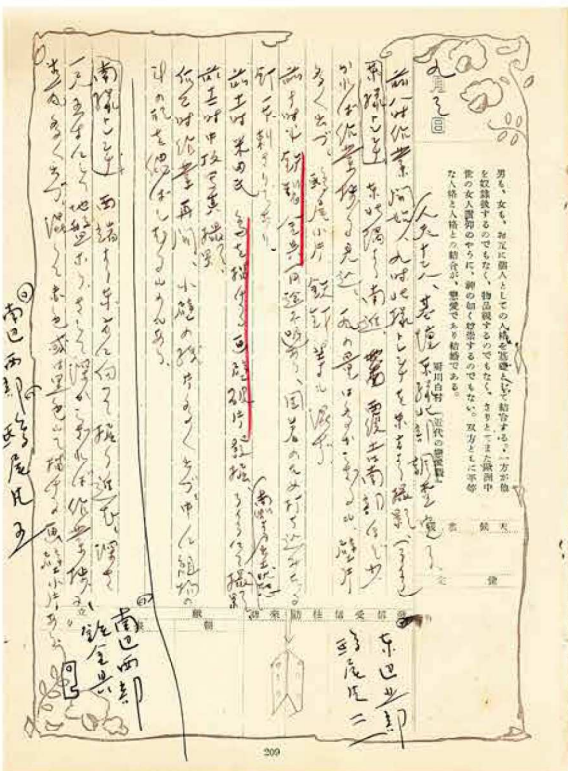
[도 3] 9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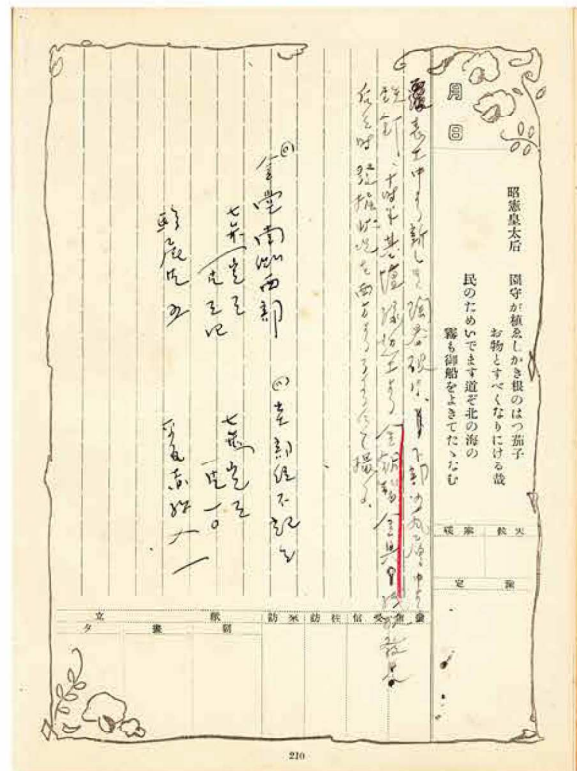
[도 4] 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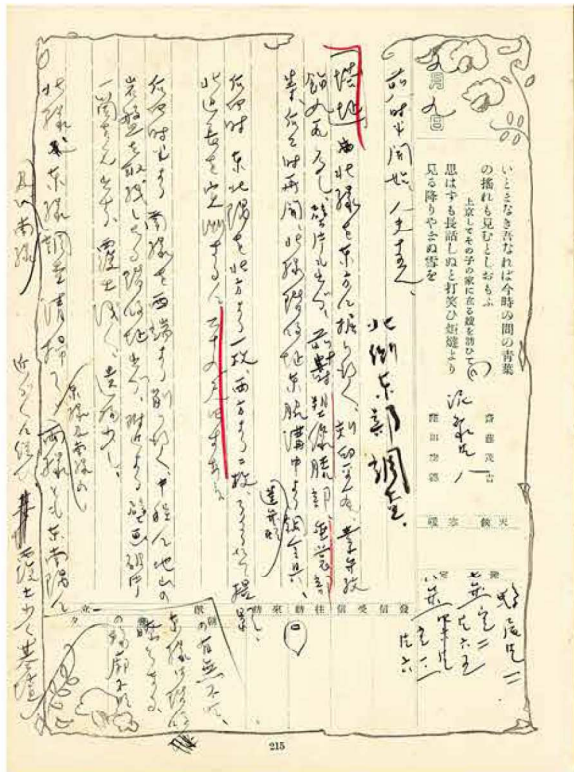
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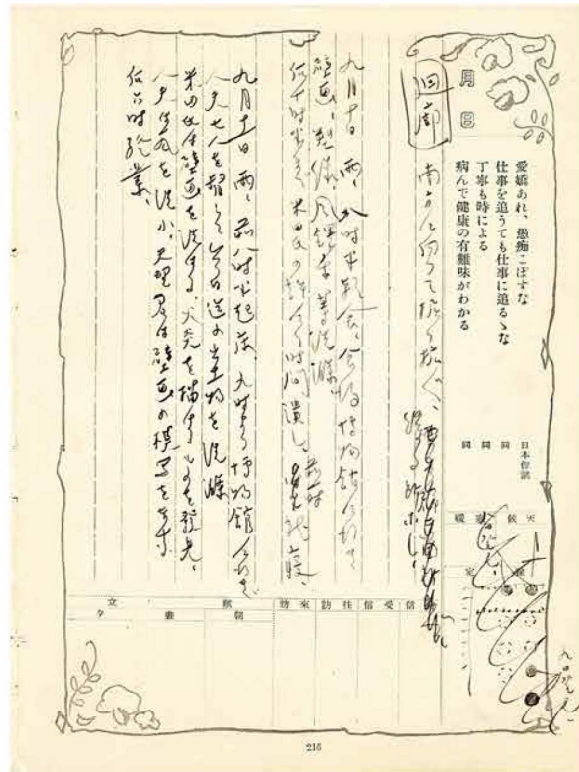
[도 5] 9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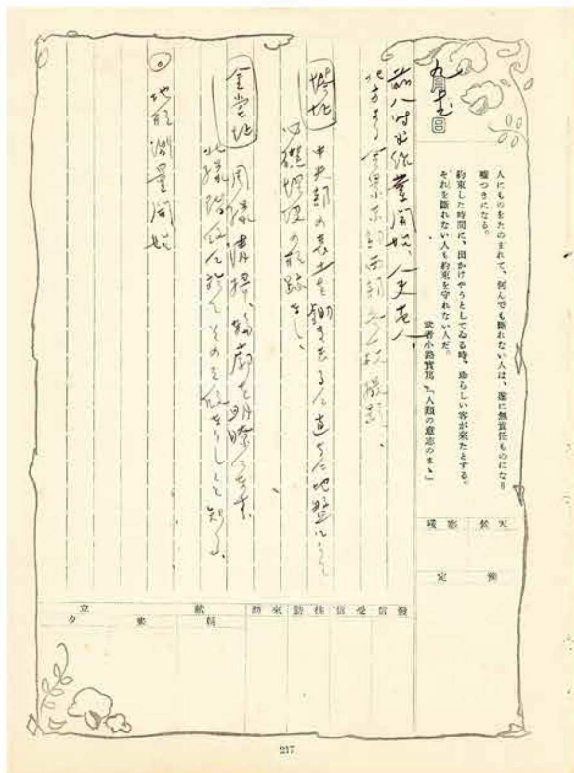
9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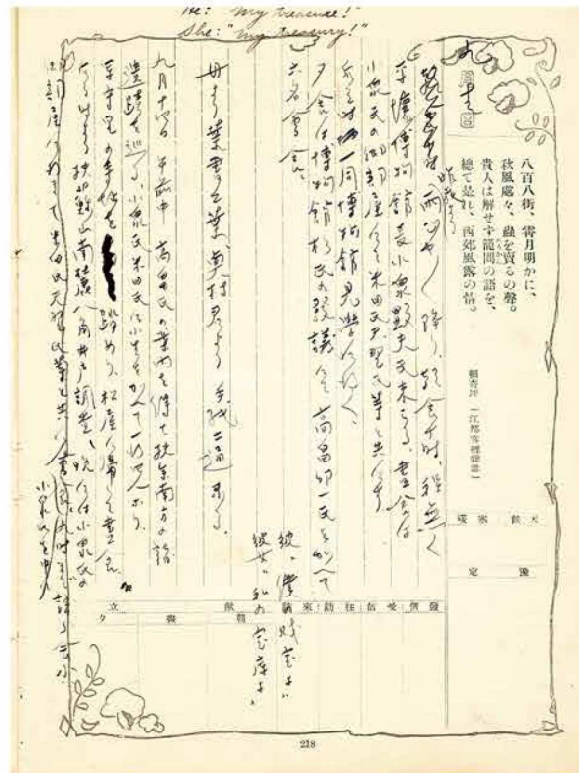
[도 10] 9월 9일



[도 11] 9월 9일~9월11일



[도 12] 9월 12일



[도 13] 9월 13일~9월 14일

衣はねて鐘つく肘や風光る
 簾戸の内に物籠うてる茶店哉
 夕風の跡に白し秋の海
 惜哉いたなき古ぶ頭巾かな

九月十五日
 扶蘇山 寺址

九月十五日
 扶蘇山 寺址

[도 14] 9월 15일

たをよめの極限の境こゝろさへ
 うつらばいかに慕しかるらむ
 語らひて取るも膝まじと背の
 やま田の早苗たのみありけり

九月十五日
 扶蘇山 寺址

九月十五日
 扶蘇山 寺址

9월 15일

横向きで別に撮らせる船模様
 新家庭の不出来も突ひこと
 窓ちかく縫ひあがる針持つて行き
 置炬燵仲よく蜜柑割つて食べ

九月十五日
 扶蘇山 寺址

九月十五日
 扶蘇山 寺址

9월 15일

"I have a picture of you in my mind all the time."
 "How small you make me feel!"

九月十五日
 扶蘇山 寺址

九月十五日
 扶蘇山 寺址

[도 15] 9월 16일

[illegible]

應をだするじとぞ思ふ咲しより
 妹とわが嫁ることなつのばな
 女郎花わかしめ結びしひともの
 はかにこころは移さざらん
 大助言長巻
 中川比南 妹とわが嫁 ことなつのばな
 立 横 庭 家 語 桂 枝 鏡

<p>山ざくら散るや小川の 水車 どう見ても何やらたらの清水かな 月見にも陰ほしがもや女子たち 芽ゆる夜のともし水 凄し眉の側</p>		<p>雪 月 秋色 女 蜀 女</p>	<p>雪 天 暖 意</p>
<p>立 敷 帳 家 訪 住 留 受 留 金</p>		<p>安 達</p>	

中門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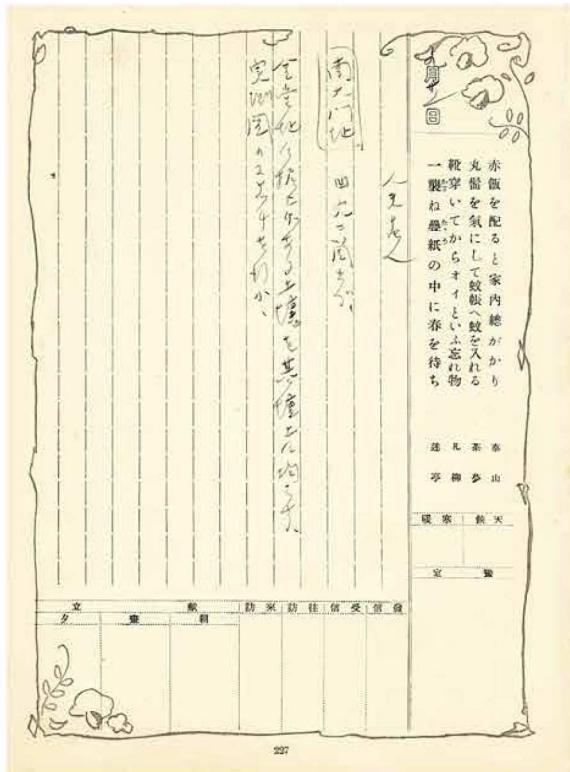
雪 月 天

雪 月 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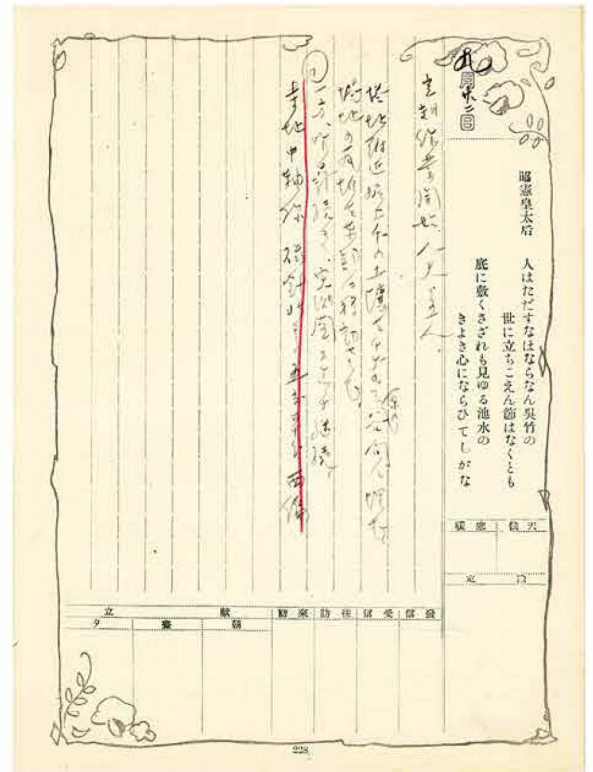
雪 月 天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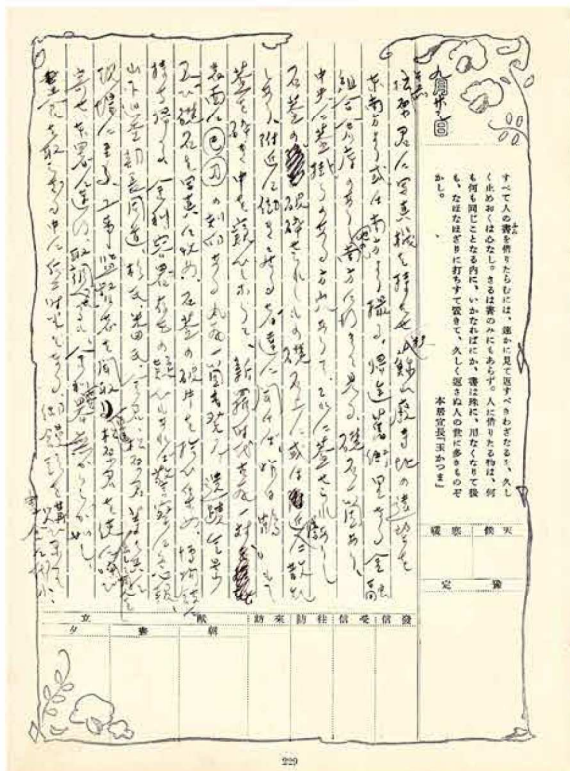
24



[도 20] 9월 21일



[도 21] 9월 22일



[도 22] 9월 23일

8월 30일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조사 평제탑 주변을 조사하기 전에 오늘부터 연습 삼아 부소산 중북에 있는 주유周遊 도로 서쪽에 있는 한 유적의 발굴을 시작했다.⁷ 오전 8시 반에 현장에 도착하여 발굴하기 전 상황의 사진을 찍었다.⁸ 평판을 설정하고 9시 반부터 유적 북쪽에 동서 방향의 트렌치를 파기 위해 인부들을 한 줄로 세워 북쪽으로 트렌치를 팠다. 우선 표토表土만 팠다. 유기질의 표토는 두께 5촌±(약 15cm) 전후였다. 10시 반에 잠시 휴식한 후 작업을 계속했다. 동서 트렌치의 북쪽에 기와 편이 많았다. 검은색 초벌구이 토기 편도 섞여 있었다.⁹ 12시에 작업을 중지하고 발굴 지점의 사진을 찍었다.

오후 1시 반에 작업을 시작했다. 계속해서 트렌치를 북쪽으로 확장했다. 기와와 함께 치미 편도 나왔다. 2시 반에 잠시 휴식했다. 트렌치 서쪽에 이 트렌치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너비 2촌(약 6cm) 전후의 트렌치를 파서 기단 북쪽 끝 부분을 찾았다. 기단은 생토를 깎아서 남긴 것이며 두 겹인 것 같다. 오후 5시 기단 북쪽 끝 부분에서 전돌 같은 석제품을 발견했다. 뒤집어 보니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원색도판 4] 10 같이 출토된 반으로 깨진 수막새와 함께 출토 상황을 사진으로 찍고 실측했다. 5시 반에 작업을 끝냈다. (하락)¹¹

8월 31일



[도 23] 철못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조사 오전 8시에 작업을 시작했다. 바로 트렌치 가운데에서 치미 편 2점이 나왔다. 하나는 소판 연화문을 표현한 등 부분의 일부였다.¹² 9시 반경 역시 트렌치 가운데에서 길이 1척 7촌(약 52cm)의 큰 철못鐵釘이 나왔다.^[도 23] 13 머리 부분은 서쪽을 향하고 끝부분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라이카 사진기로 남쪽에서 유물 출토 상황을 찍었다. 조리개 16, 셔터속도 5분의 1초. 10시에 잠시 휴식했다. 치미 편과 큰 못 등의 출토 상황을 찍었다. 많은 기와 편이 나왔다. 12시에 작업을 중지하고, 나온 기와 편의 퇴적 상황을 라이카 사진기로 찍었다.

오후 1시 반에 작업을 재개했다. 깊이 2척 5촌(약 76cm)에서 생토 면이 나타났다. 이 면을 정리했다. 3시에 잠시 휴식했다. 기와 퇴적 앞에 앉아 있는 마츠무라松村 군을 라이카 사진기로 찍었다. 트렌치 동쪽에서 나타난 기단의 돌출 부분을 기단의 동북쪽 모서

7 이후 후시사와 가즈오가 실시한 정림사지 발굴조사 기간은 이 일기에 따르면 1942년 9월 28일부터 12월 18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 조사품에 대한 정리 과정에서 昭和18年(1943)과 昭和19年(1944)의 목서가 있는 유물이 확인되어 이후에도 일부 조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5), p. 21.

8 후시사와 가즈오의 일기에는 이처럼 발굴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관련 사진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개최한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 도록에 1942년 금당지 발굴 조사 모습으로 소개된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백제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 백제』(2016), p. 127.

9 1942년 조사 가운데 현존하는 토기 편은 36점으로, 이 가운데 8월 30일에 출토된 토기 편은 목서로 표기하지 않아 추정하기 어렵고, 검은색 초벌구이 토기 편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10 재질뿐만 아니라 앞면에 입체적으로 방사상의 무늬가 연속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아, 이는 건물 지붕의 〈마루끝장식기와〉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출토 위치상 금당의 지붕을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면으로 기록된 8월 30일 일기의 마지막에는 붉은 색으로 금당지를 그리고, 출토 위치를 표시하였다.

11 본 보고서의 발굴 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정이나 사정은 일부 생략하였다.

12 이는 현재 복원된 치미(부여1085)의 뒷부분인 듯하다(본문 'II-1. 4) 치미' 참조).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연꽃무늬 수막새와는 다른 형식의 연꽃무늬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메하라 스에지의 고고자료 가운데 부소산 사지 연화문 탐본을 참조할 수 있다. 본문 p. 42 [도 41] 참조할 것.

13 철못에 목서명이 남아 있지 않으나 길이로 미루어 본문의 'II-5. 금속제품'에서 철정을 참고할 수 있다.

리라고 판단하고, 트렌치 방향을 남쪽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좀 더 동쪽으로 확장했다. 오후 4시경 동쪽 확장 부분의 지하 1척(약 30cm)에서 비축금구편(扉軸金具片)(생토 위에 서는 나오지 않았다.) 2점이 나왔는데, 서로 접합되지 않았다.¹⁴ 6시에 작업을 끝냈다.¹⁵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조사 치미 편: 194점, 86점 / 7엽수막새 편: 15점, 정리 완성 3점, 편 4점 / 철제 금구 2점¹⁶

북쪽 서부 7엽수막새: 완성 12점, 편 127점 / 완성 9점, 편 31점 / 완성 4점, 편 54점 / 완성 8점, 편 37점

9월1일

금당 서쪽 가장자리 북부 및 북쪽 가장자리 동부 조사 오전 8시에 작업을 시작했다. 기단 북쪽 가장자리 서단에서 트렌치 방향을 남쪽으로 해서 기단 서쪽을 따라 발굴했다. 벽화의 작은 편을 발견했다. 하얀 바탕에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한편 북쪽 가장자리 트렌치를 동쪽으로 확장할 작업도 계속했다. 여기서도 벽 편이 나왔는데, 그림은 없었다.¹⁷ 그 후 이 부분이 기단의 동북쪽 모서리가 아니라, (동쪽으로) 연속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트렌치 방향을 남쪽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확장했다. 유물 가운데 특수한 것으로 철촉 1점이 있었다.¹⁸ 오후 1시에 작업을 재개했다. 북쪽 가장자리 트렌치 동부에서는 기와 편과 함께 동제의 작은 못 1점이 나왔다.¹⁹ 서쪽 가장자리 트렌치를 남쪽으로 확장한 결과, 기단에서 돌출된 부분이 나타났다. 아마 중앙 계단이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벽화의 작은 편이 계속해서 출토되었다. 오후 6시에 작업을 끝냈다. (하략)

9월 2일

오전 8시에 작업을 시작했다. 12시에 작업을 중단하고, 오후 2시에 재개했다.



[도 24] 철제 금구

기단 서쪽 가장자리 트렌치 계속해서 남쪽으로 확장했다. 퇴적된 흙이 점차 얇아졌다. 오전 10시 반에 이전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다른 무늬이며 불을 맞은 흔적이 있는 소판(素板) 연화문수막새 3점(접합되었음)이 나왔다. 계단지의 바로 남쪽에서 나왔다. 오전 11시경 길이 1척 7촌(약 52cm)의 철제 금구 1점을 발견했다.^{[도 24] 20} 12시 직전에 남쪽에서 고려시대로 생각되는 암키와 편을 발견했다.²¹

14 해당 일자 내용에 간략한 약도가 남아 있지만, 현재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15 일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출토 유물에 대한 목서명을 기준으로 할 때 토기 편도 확인된다. 자료451의 점시[198]는 8월 31일 금당 북쪽에서 출토된 것으로 여겨진다.

16 일기 내용으로 볼 때 비축금구 편으로 여겨진다.

17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벽화 편 및 벽체 편은 현재 약 144개체가 남아 있는데, 벽화 편으로 여겨지는 예는 13개체이고, 벽체 편은 131개체이다. 본문 'II-3. 벽화 편 및 벽체 편'을 참조할 것: 금당지 주변에서 이와 같은 벽화 편 및 벽체 편이 확인되어 금당 내부를 벽화로 장식했을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18 현재 철촉은 확인되지 않는다.

19 철촉과 마찬가지로 동제 작은 못은 확인되지 않는다.

20 철제 금구에 대한 약도가 기록되어 있어 기형상 철정으로 보고된 [206]으로 여겨진다. 본문 'II-5. 금속제품'을 참조할 것.

21 현재 고려시대 암키와 편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 25] 「午?」-「止」인장과



[도 26] 붉은 선이 남아 있는 암키와



[도 27] 와기 이부배(등잔)

오후 불을 맞지 않은 소판 연화문수막새 완형품 1점, 편 몇 점, 인장암키와 편 3점 등을 발견했다. 남쪽으로 조사구를 확장한 결과, 서남쪽 모서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트렌치를 동쪽으로 확장했다. 3시에 잠시 휴식한 후, 백자와 편 1점, 고려시대 암키와 1점이 나왔다.²²

북쪽 가장자리 트렌치 동북쪽 모서리 부근의 흙을 뚫다. 여기서 남쪽으로 확장할 준비를 했다. 동쪽에 이르러 퇴적토가 많아지고, 동쪽 끝 부분에서는 생토까지의 깊이가 4척 5촌(약 136cm)이었다. 오후 2시에 작업을 재개했다. 기와의 출토량은 어제 보다 많지 않았다.

치미 편, 철못, 토기 편과 함께 하얀 바탕에 붉은색의 선이 남아 있는 벽화 편도 발견했다. 오후 3시에 잠시 휴식한 후, 동북쪽 모서리가 나타났고 트렌치 방향을 남쪽으로 변경했다. 여기 생토에서 깊이 8촌(약 24cm), 짧은 지름 1척(약 30cm), 긴 지름이 불분명한 구멍이 발견되었다.

동쪽 북부 치미 편 21점 /못 22점²³

금당 서쪽 가장자리 남부 치미 편 5점 /7엽수막새 편 14점 정리, 완형 5점 /8엽수막새 편 7점 /인장과²⁴편 3점 /백제 토기 및 와기 편 몇 점 /고려시대 암키와 편 1점, 토기 편 몇 점
/철제 금구 규모: 길이 1.8척(약 55cm), 머리 부분 너비 0.17척(약 5cm), 끝 부분 곡절부 0.23척(약 7cm) /인장과 3점

금당 서쪽 남부 인장과: 수키와 「午?」-「止」, [도 25] 암키와 「午」-「助」,²⁵ 수키와(소형) 「午」-「止」

서남쪽 모서리 7엽수막새 완형 6점, 편 12점 /치미 편 37점 /붉은 선이 남아 있는 암키와 1점^[도 26]

북동쪽 모서리 7엽수막새 완형 1점, 편 1점 /와기 이부배 편 1점^{[도 27] 26}

²² 여기서 백자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고화도 소성으로 이루어진 백자 편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려시대 암키와도 현재 파악되지 않는다.

²³ 북쪽 가장자리 트렌치에서 출토된 철못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다량의 철못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²⁴ 일기에는 ‘刻印瓦’로 표시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인장과’로 표기하고자 한다.

²⁵ 「助」는 주로 「午」와 조합을 이루는 문자로서, 후지사와 가즈오가 판독한 문자 외에 「助」도 들 수 있다.

²⁶ 부여1057로 등록된 토기 이부 배는 9월 2일의 묵서명이 표기되어 있어 이날 확인된 토기로 볼 수 있다. 반파된 상태에서 완형으로 복원하였는데, 손잡이가 달린 등잔[191]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손잡이가 달린 등잔으로 참조할 수 있는 예로서 관북리 왕궁 추정지(구 국립부여박물관 부지)에서 출토된 등잔(부여5096)이 있다.

9월 3일

오전 8시에 작업을 시작했다. 인부 12명. 기단 동쪽 가장자리 북부의 조사가 끝났다. 9시에 북쪽 가장자리 트렌치를 동쪽에서 라이카 사진기로 찍었다.



[도 28] 벽화 편

동쪽 가장자리 트렌치 동북쪽 모서리에서 남쪽으로 발굴을 진행했다. 퇴적토는 남쪽으로 갈수록 얇아지기 때문에 작업은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와 양은 많지 않았는데 벽 편이 많이 나왔다. 치미 작은 편, 철못도 함께 나왔다. 오전 10시 반 용도가 불명한 철제 금구가 나왔는데,²⁷ 고정하기 위해서 쓰인 못이 1개 남아 있었다. 오전 11시경에 요네다 씨가 새가 그려진 벽화 편을 발굴했다.^[도 28] 28 라이카 사진기로 남쪽에서 출토 상황을 찍었다. 오전 12시경 (유리건판)중판 사진을 찍었다. 오후 2시에 작업을 재개했다. 벽의 작은 편이 많이 나왔다. 이들 가운데 건물의 두칸과 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²⁹

동쪽 북부 치미 편 21점 /용도 불명 금구

남쪽 가장자리 트렌치 서단에서 동쪽으로 발굴을 진행했다. 깊이 1척 5촌(약 45cm) 정도에서 생토가 나왔다. 그다지 깊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잘 진행되었다. 옛 기와가 많이 나왔다. 거기에서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그려진 벽화의 작은 편이 나왔다. 표토 안에서 늦은 시기의 토기 편, 아래쪽 기와 층에서는 철못이 나왔다. 10시 반경 기단 가장자리의 흙에서 금동제 금구 편이 나왔다.³⁰ 오후 3시 발굴 상황을 서쪽에서 라이카 사진기로 찍었다.

남쪽 서부 금동제 금구 /치미 편 5점 /7엽수막새 완형 3점, 편 34점

출토위치 불명 7엽수막새 완형 3개, 편 10점 /붉은 선이 남아 있는 암키와 1점

9월 4일

동쪽 가장자리 트렌치 남쪽으로 이동했다. 상층의 제토는 끝났는데, 아래쪽 기와층의 조사가 남았다. 상층은 새로운 흑색 유기질토이다. 아래쪽 기와층 안에는 북쪽과 같이 벽 편을 포함하고 있다. 오전 11시, 최 군이 동북쪽 모서리에서 벽화의 큰 편을 발굴했다.

남쪽 가장자리 트렌치 오전 9시 반경, 중앙 계단지 서쪽에서 벽화 편이 나왔다. 내가 발굴했다. 오후 3시경 서쪽 끝에서 조선시대의 수막새, 같은 시대의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³¹ 모두 흑색의 새로운 유기질토 안에 들어 있었다.

27 이에 대하여 약도로 표시하였는데, 형태상 문과 문들을 연결하는 경첩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철제 금구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28 정확하게 새를 묘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 모양과 같이 묘사된 것으로 보여 이처럼 기록한 듯하다.

29 두칸은 건물의 기둥 위에 올리는 건축 부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후지사와 가즈오가 남긴 유물 사진 가운데 공포 사이의 벽체 편으로 추정하는 예가 있어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후지사와 가즈오가 기증한 사진첩에서 이 벽체를 확인할 수 있다. 본문 p. 36 [도 33] 참조할 것.

30 이에 대하여 약도로 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형태의 금동제 금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31 조선시대 수막새 및 토기로 언급한 예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서쪽 가장자리 트렌치 오후 5시경 남쪽의 구를 정리하면서 구멍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철못³²과 기와 편 등이 나왔다.

금당 남쪽 가장자리 동부 단판 7엽수막새 편 11 점 /암키와 /치미 편 32점 /7엽수막새 편 49점 /붉은 선이 남아 있는 암키와 편 2점 /철못

9월 5일 오전 8시, 박물관에 가서 벽화 편을 진열했다. 9시에 작업을 시작했다. 인부 12명.

(금당) 남쪽 가장자리 동쪽 상층인 흑색 유기질토를 정리했다.

(금당) 동쪽 가장자리 남쪽 기와 층을 조사했다. 벽 편도 나왔다. 오전 10시 반, 남쪽에서 기단 전경을 라이카 사진기로 찍었다.
인장과 1가지(소형): 수키와 「午」-「止」

남쪽 건물지 오전 10시 반부터 건물지 북쪽에 동서 방향의 트렌치를 설정했다. 표토에서 5촌(약 15cm) 정도에서 기단 서쪽을 발견했다. 이 유구에 따라 남북 방향의 트렌치를 팠다. 북쪽 건물지와 같은 단판 연화문수막새 및 소판 연화문수막새가 나왔다. 오전 11시 반, 인장수키와 편 (「申」-「市」,³³ 「?」-「止」) 2점, 오후 3시경 소조상 편이 나왔다.

금당지 7엽수막새 8점 /치미 편 4점

탐지 서쪽 인장과 4가지: 수키와 「午」-「止」, 수키와 「?」-「止」, 수키와 「申」-「市」, 불명 「午」-「止」

탐지 서쪽 북부 7엽수막새 편 31점 /8엽수막새 편 9점 /치미 편 2점

9월 6일 오전 8시 반에 시작했다. 인부 15명. 남쪽 나무 위에서 라이카 사진기로 현장을 찍었다.

북방 건물지 북쪽 가장자리에서 측량을 시작했다.³⁴ 오후 비가 와서 작업을 잘 진행하지 못했다.

³² 상세한 언급이 없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³³ 부소산 사지 출토품으로 볼 수 있으나 목서명이 표기되지 않은 인장과 14점은 일단 본 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 이 가운데 「申」-「布」(2점), 「巳」-「刀」와 같은 예가 확인되는데, 「申」-「布」의 경우 후지사와는 「申」-「市」로 간주하였고 1980년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부소산 사지 출토품으로 언급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1996), p. 43 참조; 이 밖에 「午」-「斯」, 「午」, 「巳」-「?」, 「巳」(2점), 「巳」(?), 「刀」, 「?」(3점), 「?」-「?」이 확인되며, 「巳」-「刀」와 「刀」는 후지사와 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문자이다; 부여 구아리 사지에서는 「申」-「布」의 조합식으로 추정되는 인장와가 출토되었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6), p. 190.

³⁴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를 살펴보면 이후에 발굴조사를 마무리하며 탐지·중문지·남대문지 등 일부 유구에 대한 실측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가 작성한 가람 복원도가 알려져 있다. 본문 p. 40 [도 38] 참조할 것.

남방 건물지 서쪽 북부 기와 층을 조사했다. 오전 11시 풍탁의 수하식과 같은 금동제 유물을 발견했다.³⁵ 오후 6시 작업이 끝나갈 시간에 이 건물 기반 서남쪽 모서리가 발견되었다. 탑과 같은 방형 건물임을 알게 되었다.

탑지 서쪽 7엽수막새 편 71점 /8엽수막새 완형 6점, 편 24점

탑지 서쪽 북부 인장과 2가지: 수키와 「午」-「止」, 암키와 「斯」(크게 한 글자가 찍혀 있음)

9월 7일 비가 와서 작업을 쉬었다. (하락)

9월 8일 오전 8시 반에 시작했다. 인부 14명.



[도 29] 소조상 무릎 부분

탑지 북쪽 서반부의 조사가 끝났다. 기와에 심하게 불을 맞은 흔적이 남아 있다. 벽화 편은 녹았고, 동제 알갱이[銅粒]도 많이 나왔다.³⁶ 서북쪽 모서리에서 동쪽으로 기와 층을 조사했다. 표토는 이미 제거되어 있었다. 오전 11시 북쪽 가장자리 서부에서 완형의 소상불 머리[塑像佛頭]가 나왔다.[원색도판 6 참고] 37 오후 3시경에 동판 편이 나왔다.³⁸ 북쪽 가장자리 트렌치의 남북 단면을 중판 사진기³⁹ 및 라이카 사진기로 찍었다.

회랑 회랑을 찾기 위해서 금당지 중간 서쪽에서 서북쪽을 향해서 동서 방향으로 트렌치를 팠다. 얇게 팠는데 성과가 없었다. 사지 남북 중축선은 자침 북에서 5도 20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탑지 북쪽 서부 7엽수막새 편 21점 /8엽수막새 편 42점, 완형 7점 /6가지 인장과: 암키와 「午」, 암키와 「斯」, 암키와 「戊」-「斯」, 수키와 「午」-「止」, 수키와 「」-「」, 암키와 「午」-「助」

9월 9일 오전 8시 반에 작업을 시작했다. 인부 15명.

탑지 북쪽 동부 조사 탑지 북쪽을 동쪽으로 팠다. 인장암키와와 수막새가 많고, 벽편도 나왔다. 오전 10시경에는 소조상의 무릎 부분 및 옷 부분이 나왔다.[도 29~30] 오후 2시에 작업을 재개했다. 북쪽 가장자리 계단지 동쪽 구 안에서 연판형 동제 금구가 나왔다.⁴⁰ 오후 4시에 동북 모서리를 북쪽에서 1장, 서쪽에서 2장 라이카 사진기로 찍

35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 금동제 풍탁 수하식이 출토된 상황이 언급되었지만, 이에 대한 약도는 표시하지 않았다.

36 동제 알갱이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37 여기에서 기록한 소상불 머리[塑像佛頭]는 인물상 머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기에는 코끼리 머리 소조상 편과 함께 출토 위치를 약도로 표시하였다.

38 동판 편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39 중판 크기의 유리건판 촬영용 사진기인 듯하다.

40 이에 대한 약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연판 형태로 위쪽에 고리를 걸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모습이다.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동제 금구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도 30] 소조상 옷부분

었다. 북쪽 길이를 실측해 보니, 29척 4촌(약 8.9m)이었다. 오후 4시 반부터 남쪽 가장자리를 서쪽부터 왔다. 중간에서 생토 암반을 깎아서 남겨진 계단지가 나왔다. 그 근처에서 벽화 편 1점이 나왔다. 토층이 얇아서 유물은 적었다.

북쪽, 동쪽 및 남쪽의 조사 및 정리가 끝났다. 동쪽 및 남쪽은 모두 동남 모서리로 갈 수록 덮인 흙이 얇아서 기단 윤곽이 불분명했다. 동쪽에 계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분명했다. 남쪽으로 발굴했다. 성과가 없었다.

니상泥像 편 8점 /치미 편 2점 /7엽수막새 완형 2점, 편 6점

9월 10일 비가 왔다. 8시 반에 아침을 먹었다. 박물관으로 가서 벽화, 소조상, 풍탁의 수하식⁴¹ 등을 씻었다. (하락)

9월 11일 비가 왔다. 8시 반에 일어났다. 9시에 박물관으로 가서 인부 7명을 시켜서 오늘까지 출토된 유물을 씻었다. 요네다 씨는 벽화를 씻었다. 불꽃을 그린 벽화가 발견되었다.⁴² 인부는 기와를 씻었다. 아마노天野 군은 벽화를 본떠서 그렸다. 오후 6시에 작업을 끝냈다.

9월 12일 오전 8시 반에 작업을 시작했다. 인부 14명. 북쪽에서 전경 사진을 찍었고, 유구 동쪽 및 서쪽의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탐지 중앙부의 표토를 파보니, 바로 생토가 나와서 심초 시설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금당지 주변을 정리해서 윤곽을 분명히 했다. 북쪽 계단은 3단이 남아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형 측량을 시작했다.

9월 13일 어제 밤부터 비가 많이 왔다. 아침 식사를 10시에 먹었다. 잠시 후 평양박물관의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씨⁴³가 오셨다. (하락)

9월 14일 오전 중 타카바타케高畠 씨⁴⁴의 안내로 부여 남쪽의 여러 유적을 답사했다. 고이즈미 씨, 요네다 씨와 나까지 포함해서 일행은 4명이었다. 군수리 사지를 답사했다. (중략) 오후 3시부터 부소산성 남쪽에 있는 팔각형 우물을 조사했다. (하락)

⁴¹ 9월 6일에 수습한 유물로, 1980년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습에 고리가 달린 <금동제풍탁수하식>(부여20)을 소개하였다. 申光燮, 앞의 보고서(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p. 52, p. 54.

⁴² 벽화에 표현한 것 가운데 구체적인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예들이 많지 않은데, 필선의 형태에 따라 불꽃으로 간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⁴³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1897~1993)는 1922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고, 1934년에 평양부립박물관 관장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일본 나라국립박물관奈良國立博物館에서 근무했다.

⁴⁴ 타카바타케 우이치高畠卯一은 당시 부여사적현창회扶餘史蹟顯彰會의 축탁이었다.

9월 15일 비가 그쳐서 쾌청해졌다. (중략) 오후 1시 반에 요네다 씨와 함께 현장을 보러 갔다.



[도 31] 파문수막새

강당 위치에 남북 방향의 트렌치를 설정해서 생토를 확인했다. 금당과 같은 기와 및 치미 편이 나왔는데, 생토는 남쪽으로 경사져 있어서 건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겠다.

금당지 북쪽 가장자리 서부 벽 편이 많이 나왔는데, 그림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1개 밖에 없었다. 금당 북쪽 가장자리의 서쪽 연장선상에 동서 방향의 트렌치를 설정한 결과, 회랑이라고 여겨지는 생토의 끝부분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기와 층이 있었다. 상층 유기질토 안에는 4줄 파문^{巴文}의 수막새 편이 1개 나왔는데, [도 31] 45 후대에 섞인 것 같다. 기와 층에서 금당과 같은 수막새, 치미의 큰 편 등이 나왔다. 치미 편에는 소판 연화문이 표현된 예가 있다(진열함).

중문지 남쪽 경사면에서 계단지를 발견했다. 여기서 분청사기^{三島手} 감^紺의 완형이 나왔다.⁴⁶ 이 중앙계단 제3단은 생토를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을 쌓은 것이다.

서회랑 치미 편 12점, 25점 / 7엽수막새 편 1점

9월 16일 **중문지 남쪽** 치미 편 1점 / 8엽수막새 편 2점(접합해서 1점이 되었음) / 7엽수막새 편 12점, 완형 3점, 편 1점

탑지 인장암키와 「午」-「助」 1점 / 소판 8엽수막새 편 2점 / 7엽수막새 편 4점 / 소조상 편 3점 / 철기 편⁴⁷ 3점

9월 17일 예정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인부 15명.

서회랑 북단에서 동쪽 가장자리 부분을 남쪽으로 발굴했다. 북쪽 가장자리에서 치미의 큰 편이 나왔다. 금당지에서 출토된 수막새와 같은 무늬인 것도 나왔다.⁴⁸

중문지 남쪽 가장자리 중앙 돌출부 서쪽 가장자리의 석재를 찾기 위해 발굴해 보니, 여기에서 조선시대 완형의 사발 완이 나왔다.⁴⁹

중문지 7엽수막새 완형 3점, 편 8점

⁴⁵ 본문 II-1. 와전 1) 수막새 III형 p. 80 참고할 것.

⁴⁶ 일본에서는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미시마테^{三島手}’로 칭하였는데, 이 출토품이 정확하게 어떤 기법의 분청사기인지는 불분명하나, 단지[埴] 형태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⁴⁷ 철기 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⁴⁸ 문맥상 치미에 관련된 언급으로 여겨지는데, 치미 뒤편의 연꽃무늬가 7엽형 혹은 8엽형 수막새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⁴⁹ 현재 이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회랑 7엽수막새 편 2점 /8엽수막새 편 1점 /치미 편 14점
9월 18일	예정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인부 13명. 중문지 남쪽 가장자리 돌출부 동쪽 초석과 같은 형식인 것이 서쪽에서도 발견되었다.
9월 19일	예정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인부 15명. 중문지 서쪽 가장자리에서 와적 기단이 발견되었다. 탐지 중문지 50분의 1 축척으로 측량했다.
9월 20일	예정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남회랑 중문지 서쪽에 남회랑 북쪽 와적 기단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발견했다. 남쪽 서부에서 소판 수막새가 나왔다. 남대문지 축척 100분의 1 배치도를 만들었다. 유적 중앙 남북단면을 측량했다. 이전에 만든 지형도에 그렸다.
	중문 남쪽 8엽수막새 완형 1점, 편 1점 /8엽수막새 편 3점 /7엽수막새 편 2점 /7엽수막새 편 5점 /치미 편 1점
9월 21일	인부 14명. 남대문지 구멍이 2개 발견되었다. 금당지 위에 쌓았던 흙을 기단 위에 균일하게 쌓았다. 실측도를 그렸다.
9월 22일	예정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인부 15명. 탐지 부근에 쌓았던 흙을 지게로 옮겨서 동쪽 계곡에 묻었다. 탐지의 기와 퇴적을 동쪽으로 옮겼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실측도를 그렸다. 사지 중축선은 자침 북쪽보다 5도 20분 서쪽으로 기울었다.
9월 23일	오전 중 마츠바라松原 군에게 사진기 운반을 부탁해서 부소산 폐사지 원경 사진을 동남쪽 및 남쪽에서 찍었다. (하락) ⁵⁰

⁵⁰ 하락의 내용은 구아리 사지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후지사와 가즈오가 구아리 금용조합창고가 있었던 자리 남쪽에 심초석을 발견한 상황을 기록하였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6), pp. 23~24.

② 후지사와 가즈오 藤澤一夫 사진첩 寫真帖⁵¹

후지사와가 정리한 사진첩에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사진이 남아 있다. 이 사진첩은 치미 뒷면 연화문 편 및 치미 편, 벽화 편 및 벽체 편, 인물 머리·옷자락·코끼리 머리 등의 소조상 편을 촬영한 것으로 후지사와가 관리하고 있을 당시의 유물 상태와 그가 표기한 유물 명칭⁵² 등을 살필 수 있다. [도 32~36]



[도 32] 치미 뒷면 연화문 편 및 치미 편

51 국립부여박물관 초대 관장인 홍사준 관장이 1971년 후지사와 가즈오로부터 받은 사진첩으로, 자제인 홍재선 님(연재사업기념회)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다. 부소산 사지 관련 유물뿐만 아니라 구아리 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사진이 남아 있어 공개된 바 있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6), pp. 26~27.

52 후지사와 가즈오가 사진첩에 표기한 유물 명칭은 다음과 같다. 扶蘇山廢寺金堂址出土 瓦刮(鴉尾)腹面裝飾華文部○殘欠 / 扶蘇山廢寺西廊址北端出土 瓦製鴉尾殘欠(下, 頭部上端大棟○瓦○結構造); 扶蘇山廢寺金堂址出土 斗栱間小壁 / 扶蘇山廢寺金堂址出土 面壁殘缺: 두공다공 사이 소벽은 9월 3일 수습되었다; 扶蘇山廢寺金堂址出土 飛鳥所描面壁殘缺 / 扶蘇山廢寺塔婆址出土 陶像殘缺; 扶蘇山廢寺塔婆址出土 陶像 象頭(正面·側面); 扶蘇山廢寺塔婆址出土 陶像菩薩像首: 후지사와 가즈오는 일기에서는 인물 머리를 '塑像佛頭'로 기록하였고 우메하라 스에지에게 보낸 편지에도 '佛頭'로 표현했으나, 이후에는 '보살상'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I. 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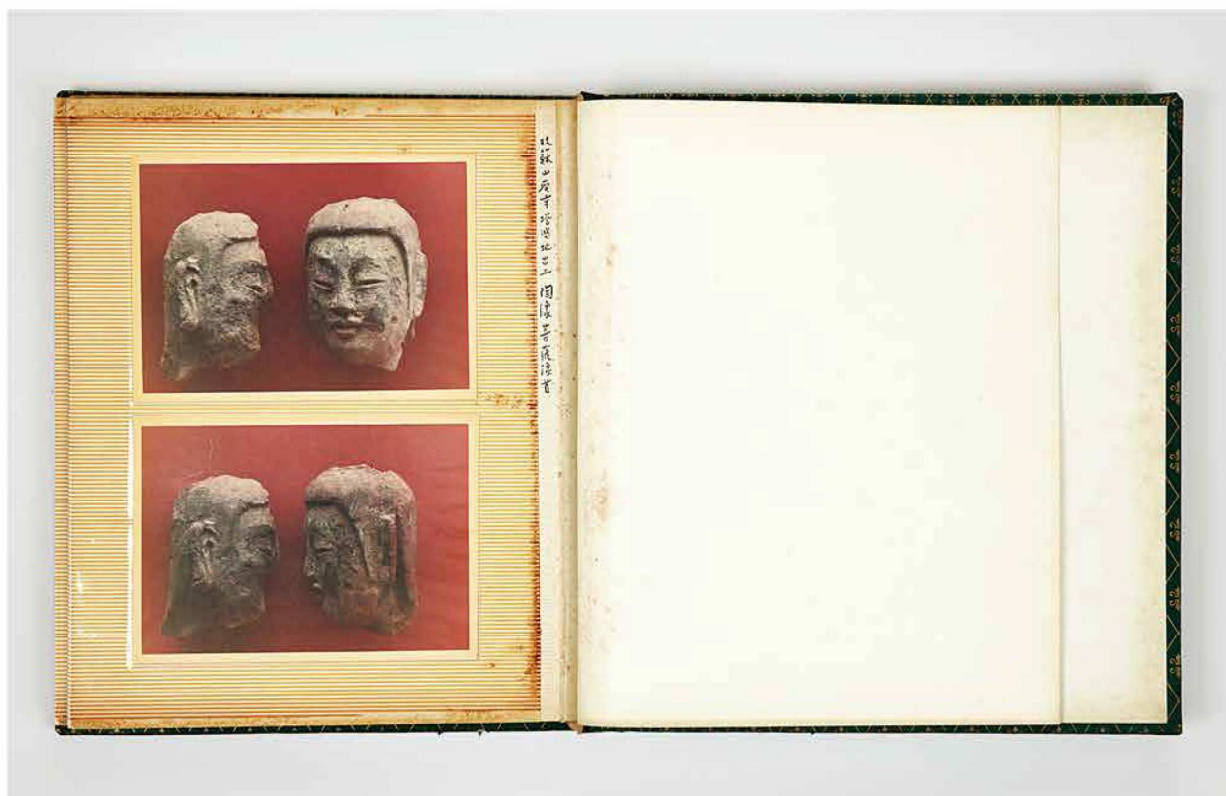
[도 33] 벽체 편 및 벽화편



[도 34] 벽화 편 및 소조상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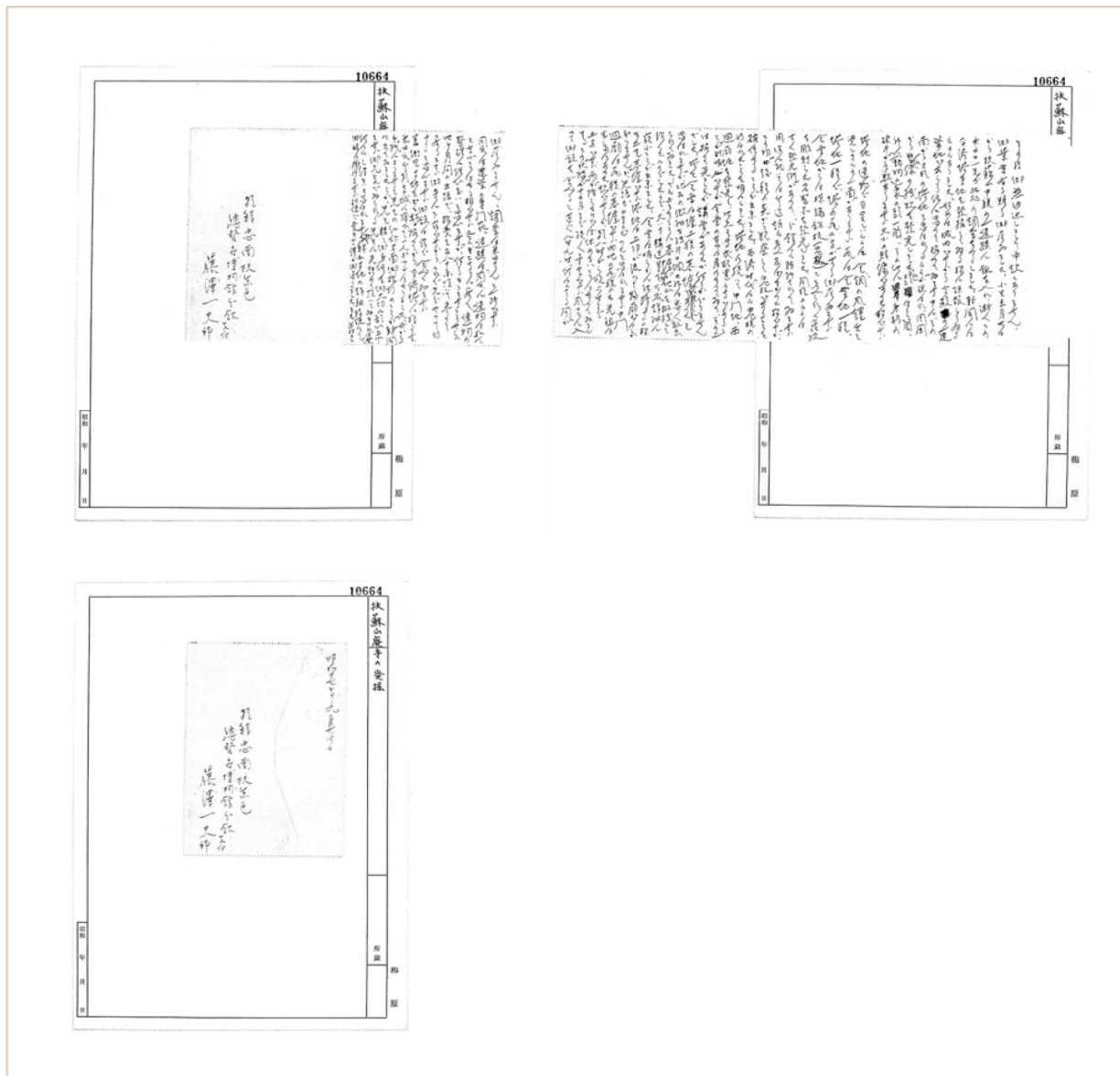
[도 35] 코끼리 머리 소조상 편



[도 36] 인물 머리 소조상 편

③ 기타

일본 공익재단법인 도요분코[東洋文庫]에서 제공하는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고고자료考古資料’ 가운데 후지사와가 우메하라에게 보낸 부소산 사지와 관련된 2통의 편지,[도 37, 도 39] 부소산 사지 가람을 간략하게 작도한 도면,[도 38] 석제 동단식판(마루끝장식기와)[도 40]와 연화문 치미 편[도 41] 53을 탐본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편지의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도 37] 10664 부소산폐사扶蘇山廢寺

53 이 파편은 1978년에 복원된 치미 뒷면의 연화문 부분으로, 이 치미는 현재 부여 1085로 관리되고 있다.

54 귀판鬼板은 건물 지붕의 마루끝을 장식한 판상板狀의 기와에 대한 일본식 표기로 여겨지는데, 귀와鬼瓦라고도 하며 석제로 된 마루끝장식기와를 지칭한다.

55 1939년 4월 1일에 개관한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 분관을 가리킨다.

56 사적인 내용이나 본 보고서에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그 후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엽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달 30일부터 부소산 중턱에 있는 한 유적을 파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22일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문 중에는 평제폐사지平濟廢寺址를 발굴하고 있는 것처럼 오보한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 안에 있어서 궁궐의 한 건축지建築址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파고 있었는데 그 남쪽에서 방형 탐지로 추정되는 것이 나타나고, 주변에서 소불상塑像의 잔결殘缺을 발견하였습니다. 불두佛頭는 3점, 이외에 코끼리의 머리 부분 1점, 기타 신부身部 파편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군상群像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탐지 출토 유물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금동제 풍탁風鐸의 설쇠로 생각되는 것 1점이 있습니다. 기와는 금당지에 한 종류, 탐지에 한 종류이고, 탐의 기와가 빠른 편입니다. 금당지에서는 동단석판棟端轉板(귀판鬼板)⁵⁴으로 추정되는 화문花紋을 조각한 석제품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사한 것은 옛부터 발견 사례가 있어서 분관分館⁵⁵에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을 안했던 모양입니다만, 이 물건을 여러 점 관찰한 결과 귀판鬼板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백제시대에도 귀판鬼板이 사용된 것을 밝혔습니다.

탐지에 이어 중문지, 서회랑지西廻廊址를 발견하여 사천왕사식四天王寺式 배치를 갖춘 사찰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당 뒤쪽은 벼랑으로 되어 있고, 그 위쪽을 파보았지만 강당이 있었던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탑과 금당은 가구식[壇上積] 기단 위에 지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마름돌[切石]의 미세한 파편 두 개 이외에는 모두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기단 내부에 생토가 남겨져 있어서 크기나 구조 등을 상당히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당은 확실히 호류지[法隆寺]와 같은 이중기단입니다. 탑지는 상부가 유실되어 윤곽밖에 알 수 없습니다만, 역시 이중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문 회랑은 와적瓦積 기단입니다. 일본의 와적도 조상은 반도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외 작업인데 비가 안 오면 쉬지 않게 되니 이러한 상태가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중략)⁵⁶ 조사는 요네다*田 씨와 같이 합니다. 요네다 씨는 건축 전문가라서 유적은 요네다 씨가, 유물은 제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여기서 유물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략)

구아리 사지를 며칠 동안 파고 나서 평제탑平濟塔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중략)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건강에 유의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지도 편달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부소산 사지의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른 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우편으로 변변치 못한 물건을 약간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쇼와昭和17년 9월 24일

조선 충남 부여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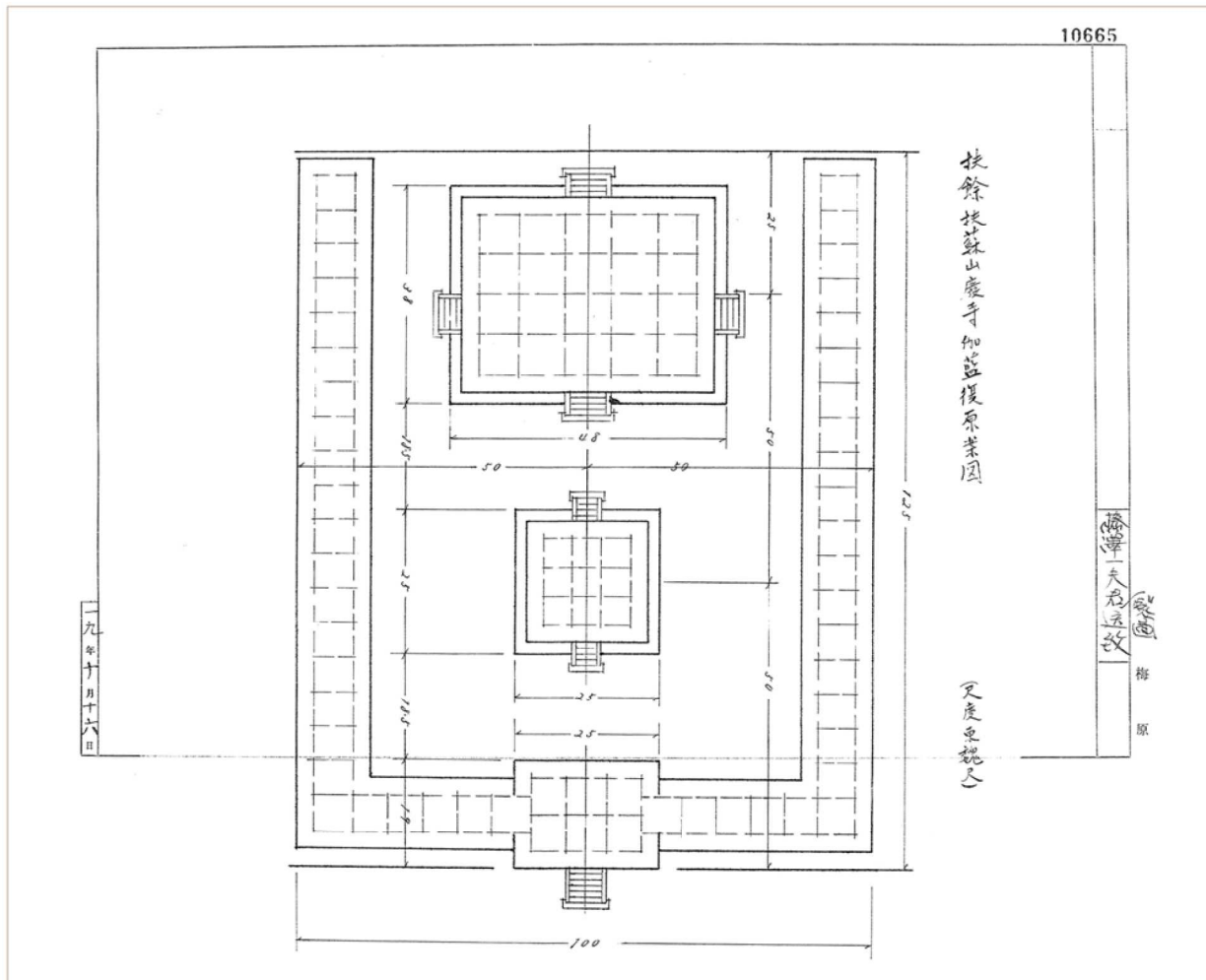
충독부박물관 분관 전교轉交

후지사와 가즈오 배拝

I. 조사 경과

1942년 9월 24일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가 마무리 되고 구아리 사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낸 편지로,⁵⁷ 부소산 사지의 발굴 경과 및 출토 유물의 양상, 백제 사찰의 가람 및 건축 구조와 일본 사찰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후 진행할 구아리 사지와 정림사지(당시에는 ‘평제탑’으로 통칭)에 관한 일정을 담았다. 이 편지와 관련된 자료로서 부소산 사지의 가람복원안 도면[도 38]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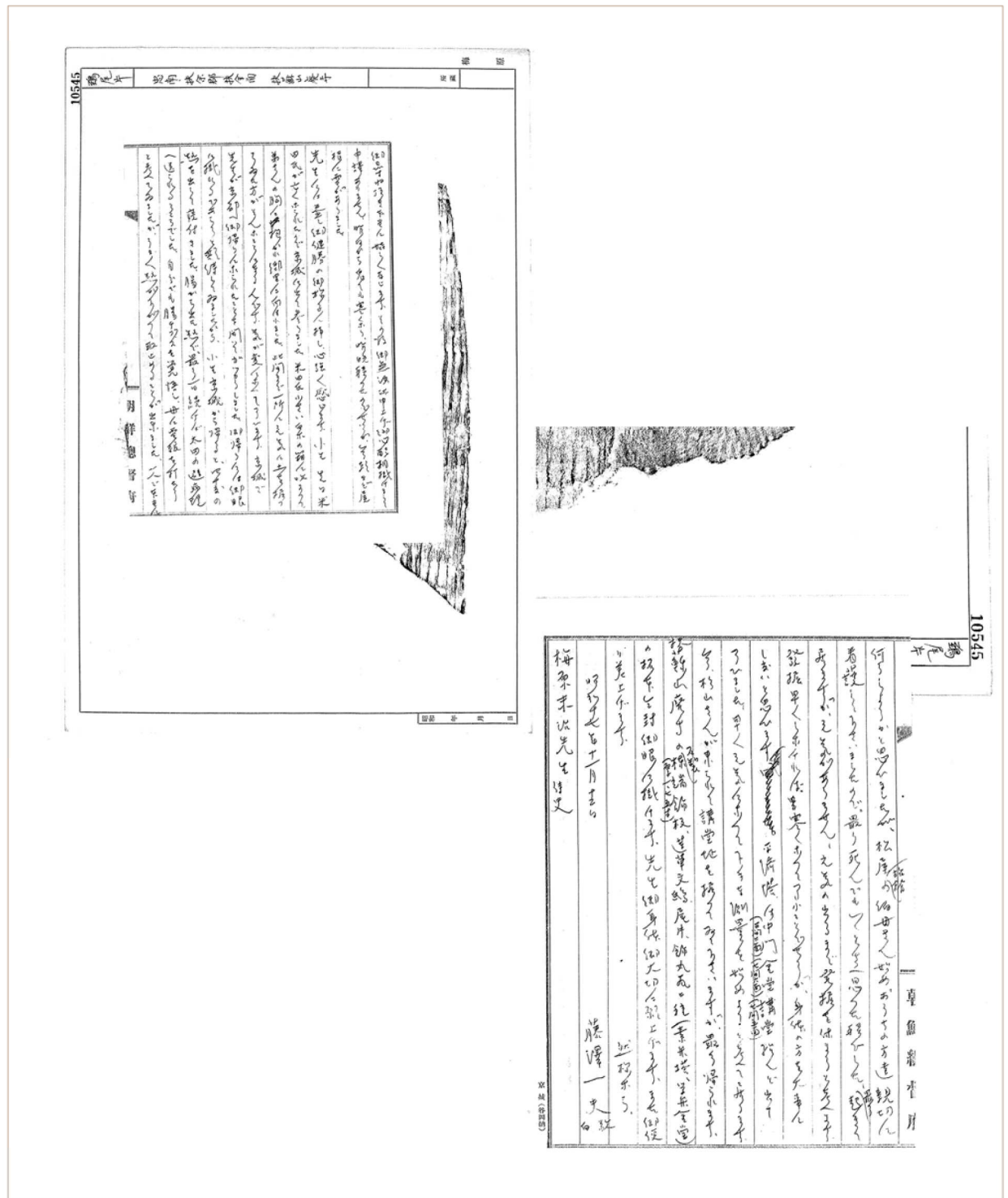
가람복원안 도면의 경우 부소산 사지의 배치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이후 1980년 실시된 발굴조사와 비교했을 때 금당의 계단 위치 등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지와 도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1탑 1금당 형식의 가람에 강당지가 확인되지 않고 중문에서 동서 방향으로 회랑이 연결되면서 다시 남북 방향으로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회랑이 있는 구조로 보았다.



[도 38] 10665 부여 부소산폐사 가람복원안도 扶餘扶蘇山廢寺伽藍復原案圖

⁵⁷ 1942년 9월 24일 당일은 후지사와 일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구아리 사지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 (2016), p. 23 참고.

아울러 정림사지 발굴이 한창 진행 중이던 昭和17년(1942) 11월 12월 쓴 편지에는 후지사와가 우메하라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정림사지 발굴 상황과 부소산 사지 관련 자료를 동봉하였는데, 편지의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도 39] 10545 치미편 충남 부여군 부여면 부소산메사 鷗尾片 忠南 扶餘郡 扶餘面 扶蘇山廢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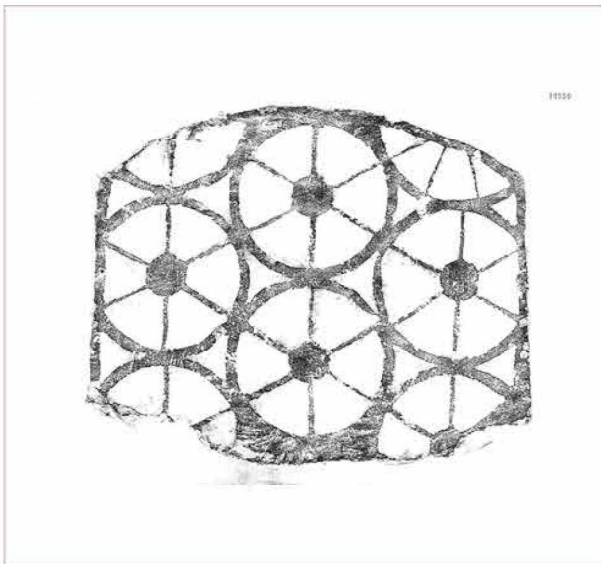
I. 조사 경과

연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후 연락드리지 못해 근심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많이 추워졌고 어젯밤에 쌓인 건지 아침에는 지붕에 눈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더욱 건승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든든해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요네다*田씨가
 돌아가셔서 경성京城에 다녀왔습니다. 요네다 씨는 백목白木 상자 안에 담겨져 남동생의 가슴에
 안겨진 채 고향으로 향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건강하게 땅을 파셨던 분이 이렇게 가버리신
 겁니다. 저의 마음도 이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경성에 있을 때 선생님께서 교토京都로 돌아가신 것을
 듣고 낙담하였습니다. 귀국하시기 전에 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평제탑平濟塔은 중문(3칸2면三間二面), 금당(7칸6면七間六面), 강당(7칸5면七間五面)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빨리 회복하여 서둘지만 측량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어제 스기야마杉山씨가 오셔서 강당지를
 파셨습니다만 곧 귀가하십니다. 부소산폐사扶蘇山廢寺의 석제 동단식판棟端飾板(두께 1.57촌),
 연화문 치미 편, 식환와飾丸瓦 두가지(소판素牌 탑, 단판單牌 금당)의 탁본을 동봉하여 보여드립니다. (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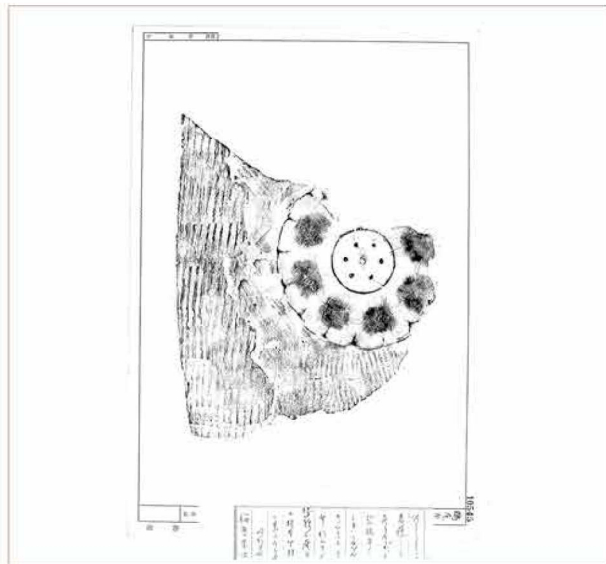
쇼와昭和 17년 11월 12일

후지사와 가즈오 경백敬白

우메하라 스에지 선생님 시사侍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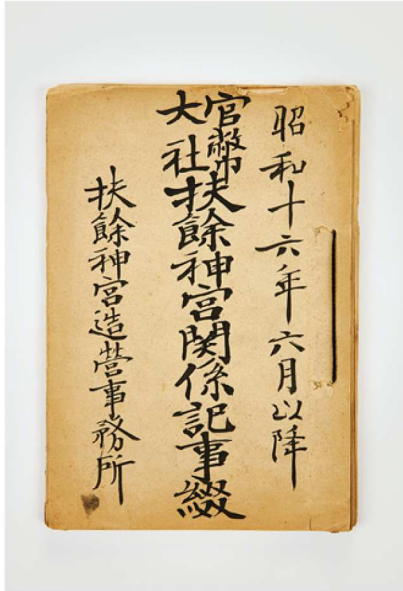


[도 40] 석제 동단식판(마루끝장식기와)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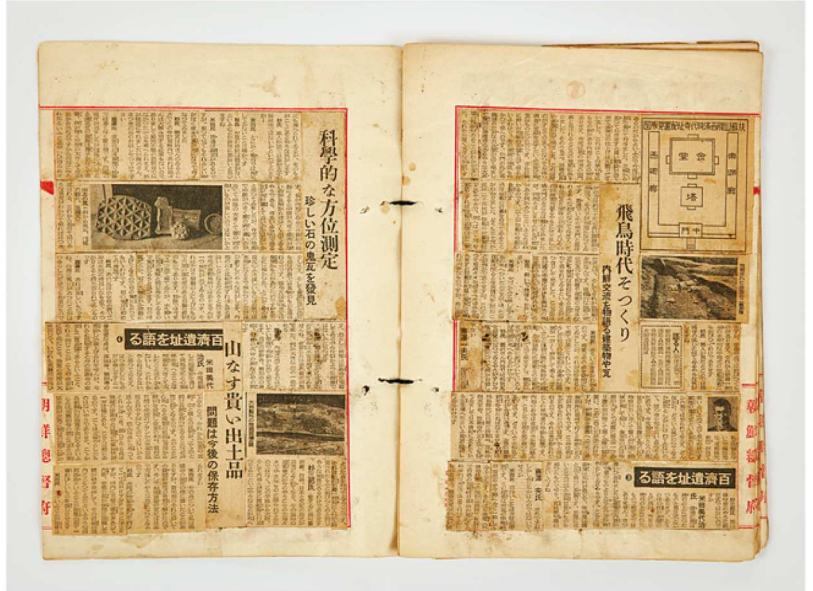


[도 41] 연화문 치미 편 탁본

한편 부여신궁 조영과 관련하여 엮은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을 확인할 수 있는데,⁵⁸ 이 가운데 부소산 사지 발굴과 관련한 후지사와 가즈오와 요네다 미요지의 대담 형식의 기사, 부소산 사지 가람의 약도 및 금당지 발굴 사진을 비롯하여 출토 유물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도 42-43]



[도 42] 관폐대사부여신궁관계기사철
官幣大社扶餘神宮關係記事綴



[도 43] 부소산 사지 발굴 관련 신문 기사

이후 부여 신궁 조영과 관련하여 1944년에 부소산 내 유적인 사지의 보존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昭和19년「부소산성扶蘇山城 유구지遺構址 보존」건으로 기안된 공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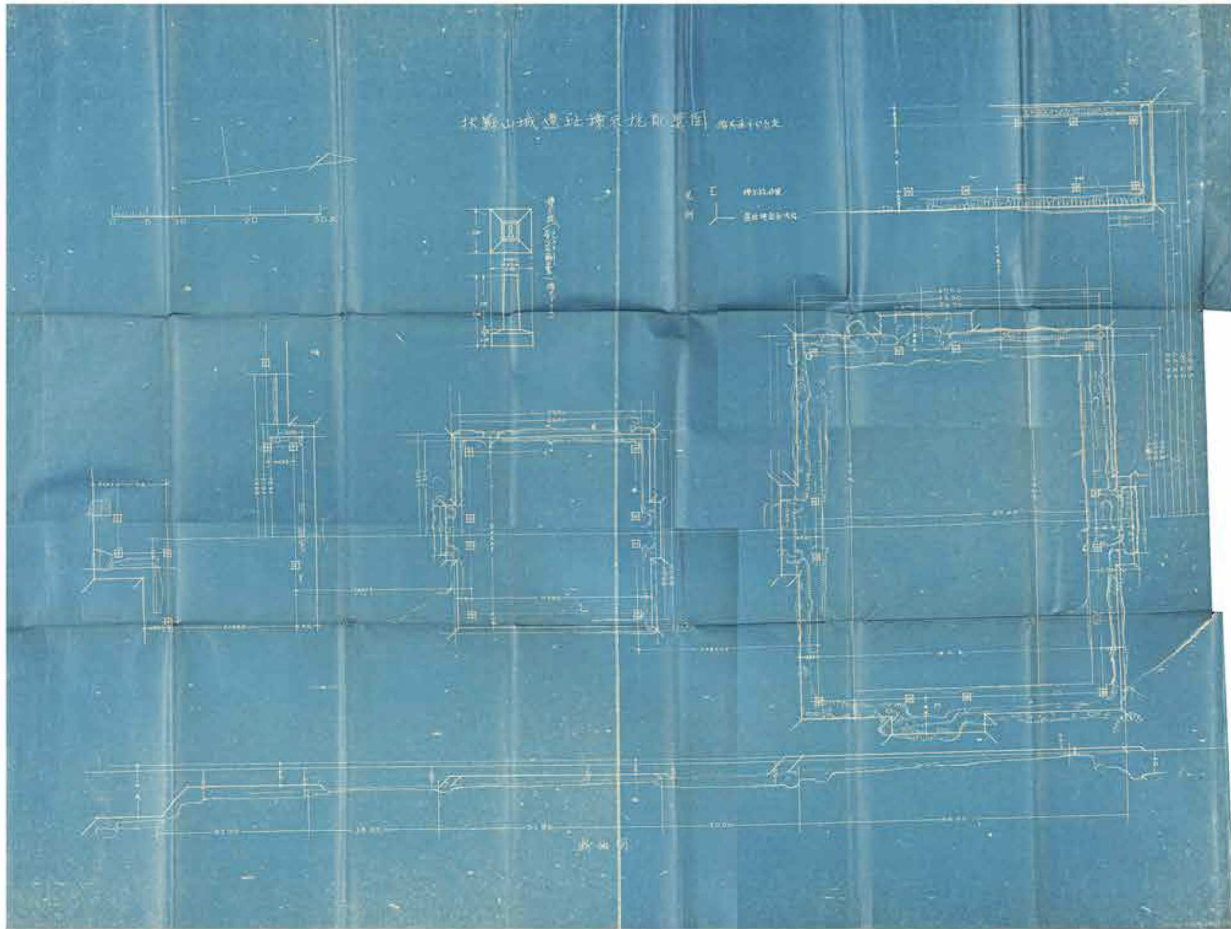
이 가운데 ‘부소산성 유지 표시항 배치도扶蘇山城遺址標示杭配置圖’로 첨부된 도면은 부소산 사지의 유구 도면으로 판단된다. 유구에 말뚝을 박아 표시한 도면으로, 기존 유구에 대한 도면일뿐만 아니라 보존을 위해 조치된 표시항標示杭으로서 말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도 44] 아울러 이에 대한 현장을 촬영하여 인화 사진으로 첨부한 자료도 있어^[도 45] 이제까지 정확한 부소산 사지의 가람 실측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확인된 도면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 표시항은 이후 1980년 발굴조사 시에 드러나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도 46] 60

58 부여신궁조영사무소에서 昭和16년 6월 이후 관폐대사 부여신궁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모은 자료로, 홍재선 님(연재기념사업회)이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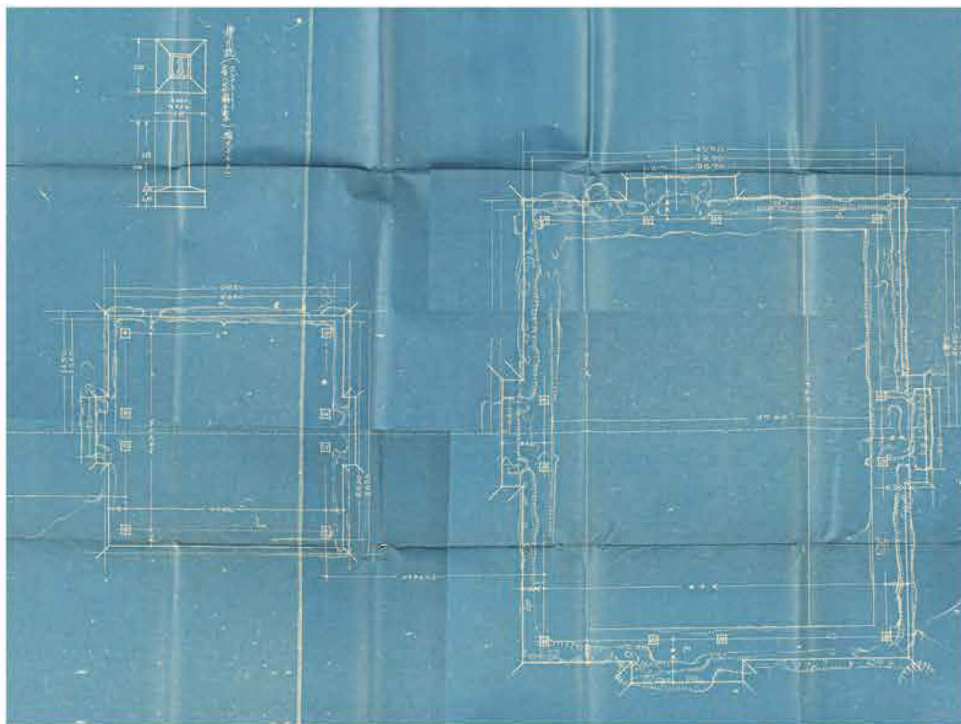
59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문서 가운데 昭和19년 8월 22일「扶蘇山城遺構址保存ニ關スル件」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1943년 2월 3일자로 추진된 부여 신궁 조영을 위한 유적(사지)의 보존 시설인 표시항에 대한 준공 보고 문서로서, 이와 관련하여 ‘노력사역명세표勞力使役明細表’(문서 6건), ‘공사정산보고서工事精算報告書’(문서 1건), ‘준공보고서竣工報告書’(문서 1건), ‘부소산성유지표시항배치도扶蘇山城遺址標示杭配置圖’(도면 1건), ‘부소산성유지표시항건설공사준공후촬영扶蘇山城遺址標示杭建設工事竣工後撮影’(사진 2건)이 함께 있다.

60 1980년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노출된 표시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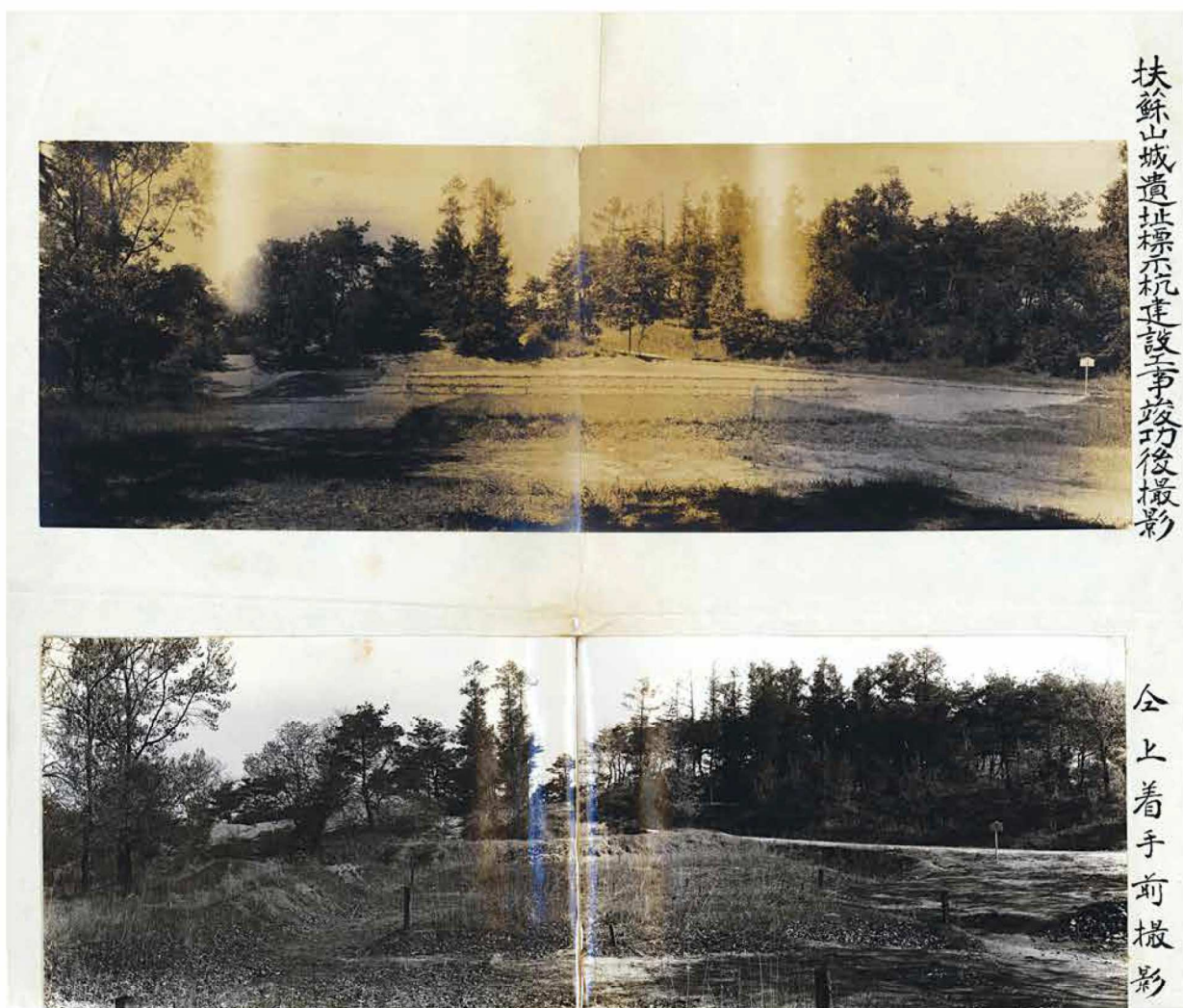
I. 조사 경과



[도 44] 부소산성 유지 표시항 배치도 扶蘇山城 遺址 標示杭 配置圖



[도 44] 세부



[도 45] 부소산성 유지 표시항 건설공사 준공 후 촬영 扶蘇山城遺址標示杭建設工事竣工後撮影



[도 46] 1980년 부소산 사지 발굴 금당지 동편 표시항 노출 모습

2. 1980년 발굴조사

1) 조사 개요⁶¹

부소산 사지는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산1번지 일대로⁶² 부소산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원색도판 1] 부소산은 해발고도 106m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에 가까운 지대로서, 북쪽과 서쪽은 백마강이 곡류하고 남쪽과 동쪽은 넓은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백제 사비시기 부소산 남쪽과 그 주변으로 왕궁 및 주요 관청이 자리 잡았고, 부소산 일대에 산성을 구축하여 왕궁과 연관된 성곽으로서, 왕궁의 후원^{後苑}이자 유사시 대피를 하기 위한 역할을 하였다.⁶³

부소산 사지는 1942년 발굴조사 이후 정확한 사명^{寺名}이 밝혀지지 않아 부소산 서쪽 중북에 있다고 해서 ‘서북사지’⁶⁴로 불리거나 ‘부소산폐사지’, ‘부소산사지’로 알려진 곳이다.⁶⁵ 1942년 발굴조사에 이은 2차 발굴조사는 1980년 당시 ‘중서부고도문화권개발계획’ 일환으로 부여 지역의 유적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진행되었는데, 그중 ‘부소산성사적공원조성계획’으로 부소산 사지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부소산 사지는 1980년 11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44일 간 실시된 2차 발굴 조사에 ‘부여부소산폐사지’로 명명하여 당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충남대학교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하였고, 당시에는 1942년 발굴조사에 대한 발굴 기록, 도면, 사진 등이 확보되지 않아 최초 발굴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부소산 사지의 지형은 북고남저, 동고서저로 금당의 뒤쪽인 북쪽은 낮은 언덕이 바로 연결되고, 동쪽은 포장도로를 건너 완만한 경사의 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지의 남서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다가 다시 평평한 대지가 단 아래에 있고, 중문은 대지 남단의 경사지에 걸쳐서 확인되었다.^{[원색도판 2-3] 66}

조사 결과 부여의 여타 다른 백제 사찰과 마찬가지로 남북자오선 상에 중문, 탑, 금당 등을 배치한 일탑일금당 식의 가람 배치 방식을 취하고 강당이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도 47] 아울러 부소산 사지에서 북서쪽 약 50m 지점에 ‘향

교발 사지'가 알려져 있는데, 부소산 사지에 부속된 일종의 원당이었거나 강당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⁶⁷ 이곳에서는 지름 8.7cm의 〈연화문수막새〉, 육각형의 〈청동등개靑銅燈蓋〉⁶⁸ 등이 출토되었다.

61 國立文化財研究所가 1996년 발간한 『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가운데 부소산폐사지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조사 경과를 정리하였다. 申光燮, 앞의 보고서(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pp. 15~81.

62 1980년 발굴조사 이후 정비가 되어 전체 면적은 2필지로 3.531m²이며, 지번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24·25번지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2008), p. 73; 2004년 4월 10일에 '부여부소산성서북사지扶餘扶蘇山城西覆寺址'의 명칭으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161호에 지정되었다.

63 국립부여박물관, 『부소산』(2016).

64 서북사지는 '西腹寺址' 혹은 '西覆寺址'로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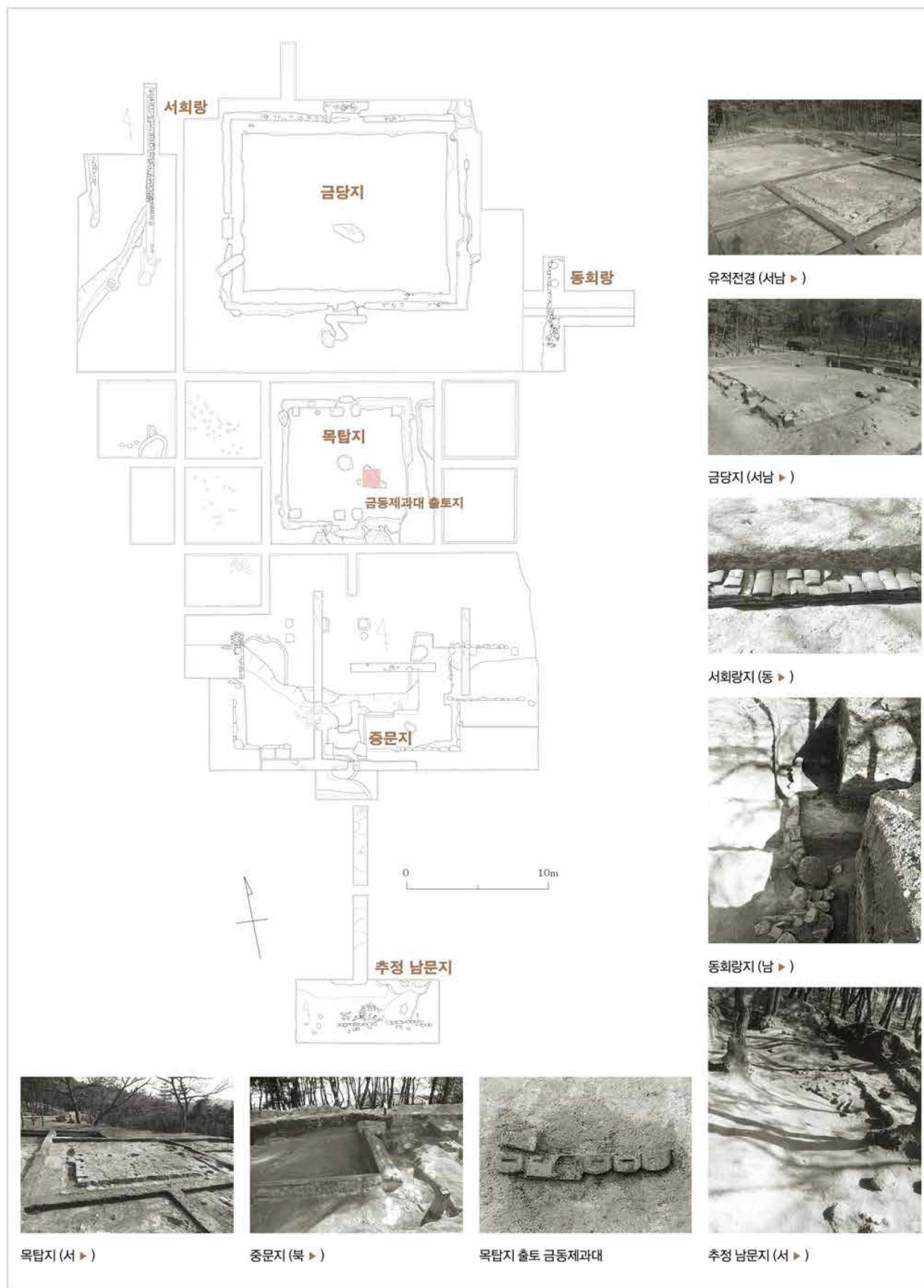
65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된 부소산 사지 관련 유물 중에는 일제강점기 이후 표기한 것으로 '서북사지'라고 묵서한 예도 있다.

66 부소산 사지는 평지 가람에서 살필 수 없는 총단식 건물 배치로서,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경사면을 삭토·정지한 후 조성하였고, 급경사로 이루어진 최남단의 중문지로부터 목탑지, 금당지 순으로, 각 50cm 내외의 레벨 차를 두고 높아져 산지 가람의 형식으로 평가된 바 있다. 조원창, 「백제 사비기 부여 부소산 사지의 축조기법과 가람배치 검토」, 『역사와 담론』제59집(호서사학회, 2011), p. 366; 산지 가람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홍재선, 앞의 논문(국립부여박물관, 2009), pp. 248~251, p. 262.

67 申光燮, 앞의 보고서(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p. 42, p. 63;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2008), p. 7; 반면 백제시대 전형적인 가람 배치에서 강당지가 따로 떨어져 배치된 경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수습된 유물들도 부소산 사지에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 절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소산 사지와 관련이 있는 부속 건물지일 가능성이 있으나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유구의 성격은 불확실하다고 하겠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2008), pp. 119~120 참고.

68 원래 반 정도만 수습된 것을 현재는 복원하여 외곽의 육각형 모습을 갖추었고, 중앙 돌출부와 처마까지를 2단의 구획으로 나누어 안쪽에 여의두문, 바깥쪽에 당초문을 투각으로 장식하였다. 너비 34cm, 높이 6cm이다. 申光燮, 앞의 보고서(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p. 55; 발견 경위 및 유물의 당시 현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金永培, 『扶蘇山 出土 百濟 銅製燈蓋』, 『考古美術』제9권 11호(1968), pp. 481~482.

I. 조사 경과



[도 47] 1980년 발굴조사 유구 도면 및 사진

2) 조사 유구 및 출토 유물

금당지

금당지는 사지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전면이 남북 측면보다 긴 평면 장방형이다. 기단석이 남아 있지 않지만 화강암계 풍화 암반을 깎아 내어 기단 내부로 삼았던 암반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조성 기법과 축조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는데, 기단으로 사용된 암반 외부에 가공한 석재를 사용하여 이중의 석조 기단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⁹ 하층 기단의 지대석을 시설하기 위해 파낸 주구의 내 측면을 기준으로 동서 전면 15.9~16m이며 남북 측면은 12m 가량 된다. 상층 기단의 면석을 세우기 위하여 깎은 수직면의 암반은 동서 전면이 14.1~14.2m이고 남북 측면은 11.1~11.2m이다.

금당지의 사변에 각각 1개씩의 석조 계단지가 있는데, 자연 암반을 깎아 내어 다듬고 석재를 결구하여 만들었다. 남북 기단의 경우 건물 기단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서 기단의 경우 중심보다 약간 앞으로 치우쳐 있다. 또한 각 계단지에는 디딤돌을 엮기 위해 암반을 깎았던 시설이 남아 있다.

목탑지

금당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탑지 동남쪽 모서리가 일부 유실되었으나 잘 남아 있다. 목탑지도 금당지와 마찬가지로 풍화된 자연 암반을 주위보다 약간 높게 깎아 내고 다듬어 기단 내부로 조성하고, 그 외곽에 기단 지대석용 주구를 파서 돌렸다. 기단의 남북에 각각 하나씩 계단을 둔 흔적이 있는데, 금당지와 마찬가지로 돌출형 계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탑지 기단의 규모는 내부 상면을 기준으로 약 7.95~8.05m의 방형이다.

탑의 심초석은 없으나 구덩이는 남아 있는데, 남북이 동서보다 넓은 지름 약 1m 내외의 타원형으로 바닥의 직경은 80cm 내외이고 바닥까지의 깊이는 약 30cm 정도이다. 심초석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심초석이 존재하였으나 소실되었을 가능성, 심초석을 안치하지 않고 자연 풍화 암반층을 깎아낸 후 원형 구멍을 파내어 초석으로 삼고 기둥을 세운 방법, 심초석이 지상에 설치되었으나 후대에 소실되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다.⁷⁰

69 금당지의 이중 기단 형식은 정림사지를 비롯해 능산리 사지, 미륵사지 등에서도 살필 수 있다. 조원창, 앞의 논문(호서사학회, 2011), p. 373.

70 梁銀景, 「百濟 扶蘇山寺址 出土品の 再檢討와 寺刹의 性格」, 『百濟研究』第52輯(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10), pp. 84~85.

아울러 부소산 사지의 심초석 위치가 사비시기 사찰의 심초석이 지표 이하에 놓이다가 지표면 위로 올라온 경우로 평가되기도 하였는데, 이후 제석사지의 심초석과 같이 심초 상면이 지상에 노출되어 심주는 더 이상 지하에 묻히지 않게 되는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⁷¹

중문지

중문지는 목탑지 남쪽 언덕 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경사지 일부에 판축을 하여 터를 넓히고 기단을 조성하였다. 중문지는 기본적으로 전면과 측면에 높은 담장형의 석축을 구축하였다. 축대는 길이 50~80cm, 높이 20~30cm 규모의 잘 다듬은 화강암으로 쌓았는데, 풍화 암반층을 정지한 다음 바닥에 기대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1cm 가량 안으로 들여 수직으로 쌓았다. 석축의 높이는 축대의 갑석 상면까지 약 1.8m이며, 동서 길이는 16m이다.

중문지의 중앙 부분에는 약 1.5m 간격을 두고 기단의 갑석을 겹한 문지 출입 시설로서 계단의 최상층 디딤돌을 올려놓기 위한 석재가 있는데, 기단 내부 쪽으로 윗면의 반쯤을 다듬어 파낸 흔적이 있고 크기는 서쪽이 길이 60cm, 동쪽이 90cm이다.

이 석재 북쪽에 직각으로 놓인 지대석이 있고 다시 그 북단에서 동향의 직각으로 놓인 지대석이 있다. 남북향의 경우 문지 전면 계단의 소맷돌 기단 지대석으로 추정되고, 동서향의 지대석은 문지 전면 기단의 지대석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문지 동쪽의 남동회랑 앞쪽인 석축 하단과 연결한 곳에 고려시대 수혈식 석곽분 1기가 조사되었는데, 장방형의 현실 평면을 가진 구조로 사지의 건축용 판석과 원형 초석, 갑석을 사용하였다. 현실 천정은 장방형의 판상형 천개석 4매로 덮었다.

추정 남문지

1942년 조사 시 확인되지 않았던 유구로, 유실이 심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남문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1m 떨어진 언덕 아래의 평탄 대지에 잡석으로 조성된 동서향의 석축렬이 있어서 이 유구를 남문지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주변에서 대형 토기 편과 기와 편이 수습되었다.

회랑지

금당의 좌우에 있는 남북향의 동·서 회랑지와 중문에 연결되는 남회랑이 조사되었다. 동남 회랑지는 중문지 기단 남측 석렬에서 3.5m 북쪽의 중문지 동측 기단에 연결되어 있고, 폭은 3.55~3.6m 정도 남아 있다. 동남회랑지 북단

에 잡석으로 1~2단 쌓은 석축렬이 있고 그 아래에 일부 엇물려 원형 초석이 있다. 이 동남회랑지의 동단이 유실되었으나, 동회랑지와 연결하여 추정해 보면 그 길이는 약 6.5~6.7m 정도 된다. 동회랑지는 금당지 기단 동측에서 확인되었고, 기단은 판축기법으로 조성하였다.

서회랑지는 금당의 북서쪽에서 조사되었다. 평화를 5~7단으로 중첩하여 만든 와적 기단이 남아 있다. 기단 폭은 기와렬 양단을 기준으로 4.3m이다. 서회랑의 북단은 금당지 북기단에서 북으로 상층면에 3.2~3.5m 지점에서 끝났으며, 동서 회랑이 금당 좌우나 뒤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서회랑지의 남쪽 부분이 완전 소실되어 기단의 조성 방법이나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서남회랑지와 연결 부분은 파악할 수 없다.

출토 유물

출토 유물은 대개가 1942년 조사 시에 확인되었다. 1980년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유물로 목탑지 기단 심초석공 동남쪽 약 1.5m 지점의 풍화 암반층 바닥에서 출토된 <금동제과대>가 있는데⁷² 교구 2점, 과판 7점, 허리끝장식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도 48] 금도금한 것으로 일부 파편에 섬유질 물질이 부착되어 있었고, 금동은 많이 탈락된 상태였다. 당시 출토 상황으로 미루어 지진구^{地鏡具}나 진단구^{眞檀具}로 추정되었다.

또한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파문수막새>가 출토되었다. 정확한 출토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출토 상황을 알 수 있다.^[도 49] 현재 부여6861로 등록되어 있으며^[도 50] 이와 같은 파문수막새는 1942년 조사에서 반파된 1점이 확인되었다.⁷³

71 정자영, 「백제의 심초 및 사리불안」, 『文化財』제41권 제1호(2008), p. 123.

72 申光燮, 앞의 보고서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pp. 52~54, p. 81 도판 53.

73 유물 등록 시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기재되어 특별전에 소개되었으나, 미공개된 1980년 발굴조사 사진으로 미루어 출토지를 부소산 사지로 정정하고자 한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도록(2016), p. 47, 도 34-2; 본문 p. 80 '연화문수막새 III형' 참조할 것.



[도 48] 금동제과대



[도 49] 1980년 부소산 사지 파문수막새 출토 상황



[도 50] 파문수막새

3. 2008년 학술조사

국립부여박물관은 2009년 학술발굴조사 추진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8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학술조사’를 실시하였고, 『백제의 절터와 가마터 지표조사 보고서』로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부소산 사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⁷⁴

국립문화재연구소도 부여 지역에 현존하는 백제의 절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미비하고 많은 유적들이 지역 개발 등으로 훼손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8년 『백제폐사지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부소산 사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1, 2차 발굴조사 경과를 정리하여 부소산 사지의 유적 현황을 서술하면서 특히 유적의 복원·정비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⁷⁵

⁷⁴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2008), pp. 5~6.

⁷⁵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2008), p. 9, pp. 69~75.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 | | |
|----------------|--------|
| 1. 와전 | 2. 소조상 |
| 3. 벽화 편 및 벽체 편 | 4. 토기 |
| 5. 금속제품 | |



1. 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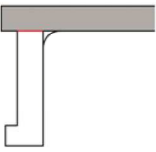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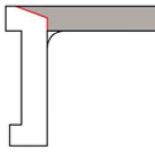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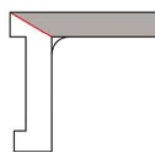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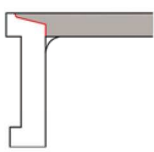




1) 수막새

수막새는 원형의 막새면과 긴 수키와를 부착한 형태의 건축 부재로서, 건물 지붕의 처마 끝을 장식하는 동시에 건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백제 사비시기의 사찰 유적 등지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는 백제 건축 및 문화의 특징을 시사하는 주요 유물이자, 사찰의 운영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1942년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수막새 가운데 발굴 일자, 출토지 등의 목서⁷⁶ 기록(이후 목서명)과 기형이 잘 남아 있는 93점을 대상으로 세부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크게 연화문수막새 92점과 파문수막새 1점으로 대별된다. 연화문수막새는 연판의 수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8엽은 I형으로, 7엽은 II형으로 구분하였으며,^[원색도판 5] 파문수막새는 III형으로 보았다.

다음에서는 각 유형의 수막새 가운데 대표 유물에 대한 형태 및 양상을 서술하고, 탑본⁷⁷·사진·도면을 게재하여 유형별 수막새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 수막새의 일자별 출토 현황을 분류하여 당시 출토 상황을 표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수막새에 대한 목서명, 막새면·연판·자방·수키와의 크기 및 특징, 색상·태도·소성도·접합 방식, 그리고 제작 기법 및 특징 순으로 속성표를 작성하여 수록된 수막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함께 실었다.⁷⁶ 이와 관련하여 수막새의 접합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1]

[표 1] 수막새 접합 방식

A식	B식	C식	D식
			
			
수막새의 주연 상단을 전부 사른 후 수키와를 접합	수막새 상단 일부를 남기고 'ㄱ'자로 자른 후 가공된 수키와를 접합	수막새 주연부터 사선으로 사른 후 가공된 수키와를 접합	수막새 상단을 'ㄴ'자로 사른 후 다시 'ㄱ'자로 가공하여 접합

76 II형 수막새 가운데 잔편만 남은 일부[070~092]는 실측을 생략하고 사진만을 게재하였다.

I 형

001. 부여1064

자방은 불규칙하게 밀집한 약 18개의 연자들이 솟아 있고, 이를 중심으로 8엽의 연판이 둘러져 있다. 연판은 편평한 편이며, 판단은 삼각돌기와 연결되어 하트 모양을 띠고 있다.

막새 뒷면에는 묵서로 ‘朝鮮忠淸南道 扶餘郡扶餘面扶蘇山廢寺 塔址西北側西部 昭和十七.九.八 發掘’이라 표시하였다. 태토는 니질이고 회색(10Y 4/)을 띠며, 소성 상태는 경질이다.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I형 수막새는 104점 가량이 수습되었고, [표 2] 현존하는 수량은 잔편을 포함하여 129점이다. 이 가운데 발굴일자와 출토지 등을 묵서로 표기한 수막새는 81점으로, 본 보고서에는 24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표 3] [도 51-55]

[표 2]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연화문수막새 I형 출토 현황

일자	출토 위치	출토 현황			
		완형	수막새 편	편	비고
9월 2일	금당 서쪽 가장자리 남부	-	7	-	
9월 5일	탑지 서쪽 북부	-	9	-	
9월 6일	탑지 서쪽	6	-	24	
9월 8일	탑지 북쪽 서부	7	42	-	
9월 16일	중문지 남쪽	-	1	-	2점 접합
	탑지	-	2	-	
9월 17일	서회랑	-	1	-	
9월 20일	중문 남쪽	1	-	1	
		-	3	-	
계		14	65	25	



[도 51] 수막새 I형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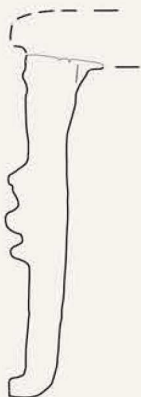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표 3] 연화문수막새 I형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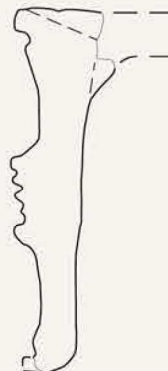
연번	등록번호	유형	목서명		막새면				
			일자	출토지	직경	화판부 직경	두께	주연너비	구상권너비
001	부여1064 (5-5)	8엽형	昭和十七.九.八 發掘	朝鮮忠清南道扶餘郡扶餘面扶蘇山 廢寺塔址西北側西部	14.9	12.2	2.4	0.8	0.5
002	부여1064 (5-1)	8엽형	昭和十七.九.九	朝鮮忠清南道扶餘郡扶餘面扶蘇山 廢寺塔址發掘	(14.1) 추정 15.5	12.0	2.5	0.4~0.8	0.3
003	부여1064 (5-2)	8엽형	昭和十七.九.二十	朝鮮忠清南道扶餘郡余餘面扶蘇山 廢寺中門址南緣西部 發掘	(15.1)	13.6	2.6	0.9	0.5
004	부여1064 (5-3)	8엽형	昭和十七.九.六	朝鮮忠清南道扶餘郡扶餘面扶蘇山 廢寺塔址發掘	(14.0)	13.0	2.0	(0.7)	0.5
005	부여1064 (5-4)	8엽형	昭和十七年九月九日	扶蘇山廢寺塔址發掘	14.8	12.0	2.4	0.8	0.3
006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六	扶蘇山廢寺塔址西側	15.5	13.0	2.7	0.8	0.5
007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年九月六日	朝鮮忠清南道扶餘郡扶餘面扶蘇山 廢寺塔址西側出土	15.2	12.3	2.6	0.9	0.5
008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六.	扶蘇山廢寺塔址西側	(10.0) 추정 16.0	(8.5) 추정 13.2	2.5	1.0	0.4
009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八.	塔址北側西部	(10.9) 추정 15.4	(8.8) 추정 13.0	2.7	0.7	0.5
			昭和十七.九.九	扶蘇山廢寺塔址北側東部					
010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九	扶蘇山廢寺址塔址北緣	(15.0)	13.4	2.5	0.9	0.4
011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九	扶蘇山廢寺塔址北側	(14.4) 추정 14.9	12.5	2.3	0.8	0.4
012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九	扶蘇山廢寺塔址北緣	(11.1) 추정 16.0	(8.2) 추정 12.8	2.4	0.4~0.9	0.4
013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九	扶蘇山廢寺塔址北緣	(12.6) 추정 17.0	(11.1) 추정 15.2	2.4	0.8~0.9	0.5
014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九	扶蘇山廢寺塔址北緣	(11.3) 추정 16.4	(9.1) 추정 13.0	2.7	1.2	0.5
015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九	扶蘇山廢寺塔址北緣	(10.1) 추정 16.0	(8.8) 추정 13.4	2.4	(0.8)	0.5
016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六	扶蘇山廢寺塔址西側	(9.7) 추정 16.4	(9.7) 추정 14.4	2.5	-	-
017	부여1308	8엽형	昭和十七.九.九	扶蘇山廢寺塔址北緣	(6.1)	(6.1) 추정 12.2	2.5	0.7	0.3
018	부여1321	8엽형	昭和十七.九.二十	中門址南緣西部	(8.4)	(7.1)	(2.2)	1.1	0.2
019	부여1354	8엽형	昭和十七.九.十六	西廊北端	(7.5)	(7.5)	1.9	-	-
020	자료326	8엽형	昭和十七.九.八	塔址北側西部	(13.9) 추정 14.9	12.6	2.4	0.6	0.5
021	자료326	8엽형	昭和十七.九.八	塔址北側西部	(11.6) 추정 16.2	(10.1) 추정 13.2	2.6	1.1	0.4
022	자료326	8엽형	昭和十七.九.八	塔址北側西部	(7.2)	(6.2)	(1.9)	0.8	0.3
023	자료326	8엽형	昭和十七.九.八	塔址北側西部	(9.9) 추정 16.4	(8.8) 추정 14.2	2.6	0.8	0.3
024	자료326	8엽형	昭和十七.九.八	塔址北側西部	(10.0) 추정 15.2	(8.7) 추정 13.0	2.7	0.7	0.5

연판		자방			수키와		색상	태토	소성도	접합 방식	제작 기법 및 특징	비고
길이	너비	직경	높이	테두리/ 연자배치	길이/너비/두께	내·외면 특징						
3.9	3.8	4.2	1.0	1+7+16	(3.1)/16.0/1.5	-	회색 (10Y 4/)	니질	경질	-	전체적으로 기형이 뒤틀림 등범혼으로 보이는 와범목질혼 존재 회전물손질	
3.5	4.0	4.2	1.0	1+7+16	-	-	회황색 (2.5Y 6/2)	니질	경질	A	-	
4.5	4.0	4.6	1.1	1+7+16	-	-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B	-	
3.8	3.9	4.4	1.1	1+7+16	-	-	회황색 (2.5Y 6/2)	니질+사질	연질(중)	A	-	
3.9	4.0	4.0	1.0	1+7+16	-	-	황회색 (2.5Y 6/1)	니질	경질	B	-	
4.3	3.8	4.5	0.7	1+7+16	(9.5)/(15.8)/1.6	내면 - 포흔 외면 - 물손질 측면 전면조정 내 측면 깎기	호린황색 (2.5Y 6/3)	니질+ 세사립	연질	-	마모가 심함 회전물손질	
4.1	4.0	4.3	0.8	1+7+16	(14.0)/(11.3)/1.5	내면 - 포흔 외면 - 물손질 내 측면 깎기	회황색 (2.5Y 6/2)	니질	경질	A	회전물손질	
4.0	4.1	4.5	0.8	1+7+16	(8.2)/14.8/1.6	내면 - 포흔	황회색 (2.5Y 7/2)	니질	경질	B	목질혼으로 보이는 범상 존재	
4.0	4.4	4.8	1.0	1+7+16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	-	
4.4	4.0	4.6	1.0	1+7+16	(4.3)/(10.2)/1.3	내면 - 포흔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4.3	4.1	4.9	0.9	1+7+16	-	-	회올리브색 (5Y 6/2)	니질	연질(중)	A	-	
4.3	4.5	4.3	0.8	1+7+16	-	-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	-	
4.2	4.4	5.2	1.0	(1+7+16)	-	-	등색 (7.5YR 6/8)	니질+사질	연질(중)	-	-	
3.9	4.2	5.0	0.9	1+7+16	-	-	회백색 (5Y 7/1)	니질	연질(중)	B	목질혼으로 보이는 범상 존재	
4.2	(3.8)	4.6	0.8	(1+7+16)	-	-	회백색 (5Y 7/2)	니질	연질(중)	-	-	
(4.5)	(4.0)	4.5	0.7	1+7+16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A	-	
4.1	4.1	(1.3)	0.7	(1+7+16)	-	-	회황색 (2.5Y 6/2)	니질	경질	A	-	
4.4	4.0	(2.7)	0.6	(1+7+16)	(8.6)/(16.0)/2.1	내면 - 포흔	회백색 (2.5Y 8/1)	니질+사질	연질(하)	-	-	
4.3	3.9	(2.8)	0.6	(1+7+16)	-	-	명적갈색 (5YR 5/8)	니질	경질	A	-	
4.2	4.6	4.4	0.7	1+7+16	-	-	등색 (7.5YR 6/6)	니질	경질	A	-	
4.2	4.7	4.6	1.0	1+7+16	-	-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4.2	3.9	(2.0)	0.7	(1+7+16)	-	-	명적갈색 (5YR 5/8)	니질	경질	A	회전물손질혼	
4.4	4.4	4.6	0.8	1+7+16	-	-	회올리브색 (5Y 6/2)	니질	연질(중)	-	-	
4.3	4.0	(4.4)	0.9	(1+7+16)	-	-	명황갈색 (2.5Y 6/6)	니질	연질(중)	-	회전물손질혼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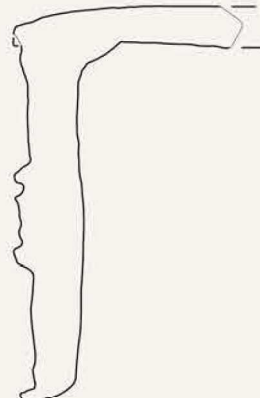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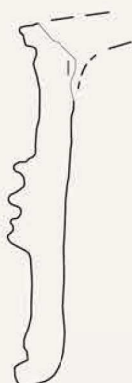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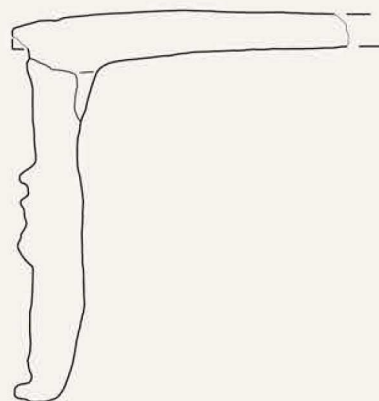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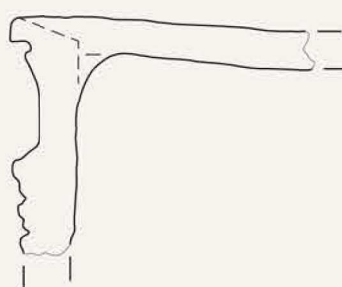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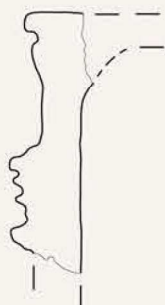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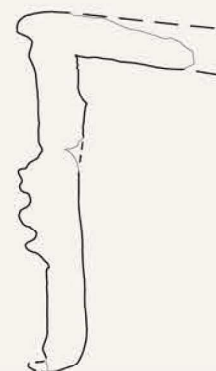
008



009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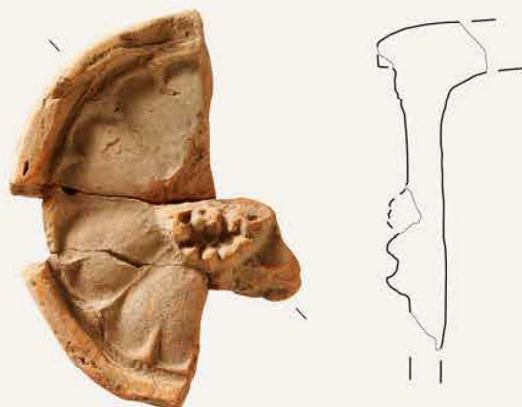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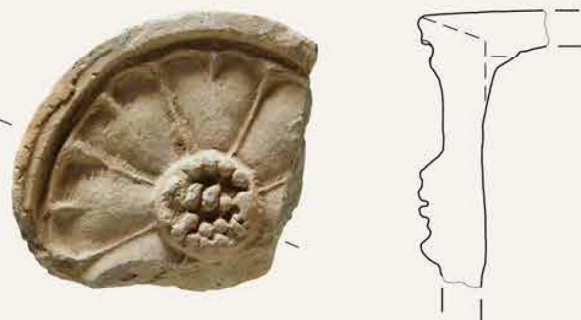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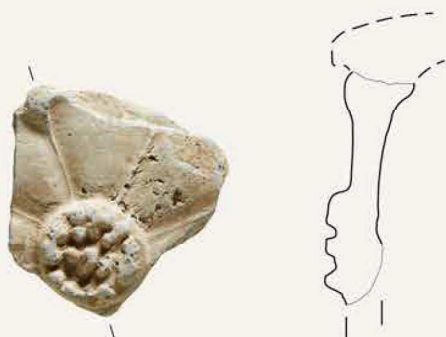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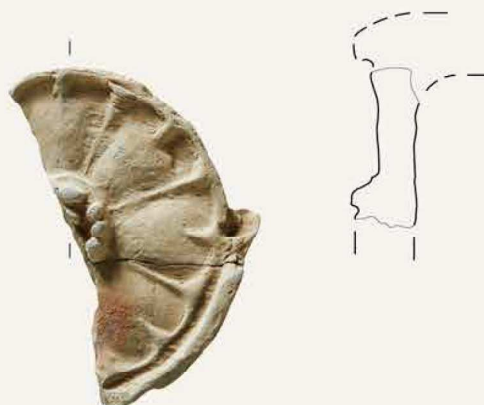
014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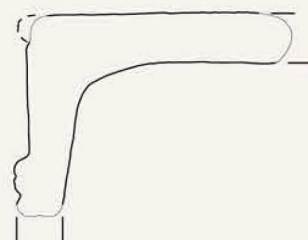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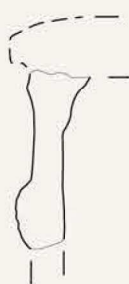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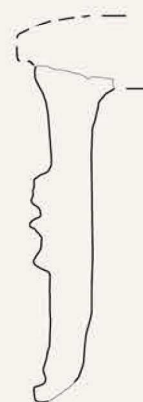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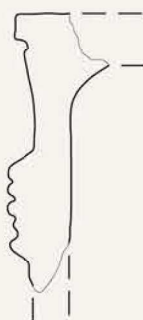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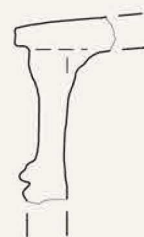
020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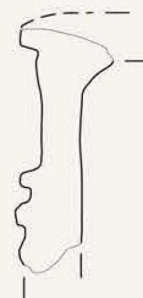
022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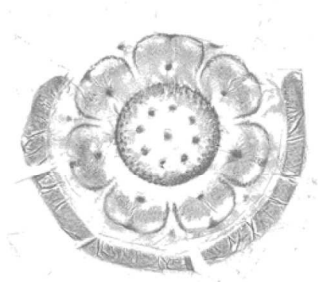


024



II형⁷⁷

025. 부여1335



수막새 II형 025 탑본

자방은 높게 돌출된 형태로 주위의 연자보다 약간 큰 가운데 연자를 중심으로 8개의 연자를 돌렸으며, 이 주변으로 마치 연주문처럼 낮고 자잘하게 솟은 3줄의 돌기대를 돌렸다.

자방 주위로 7엽의 연판이 있는데 판단은 넓적하고 가운데가 들어간 형태이며, 연판 가운데에 자방과 닿은 타원형의 돌기가 솟아 있다. 간판은 삼각형으로 연판 사이에 솟아 있다.

수키와 접합 방식은 D식이며, 막새 뒷면에는 묵서로 '昭和十七.八.一 金堂北線'이라 표시하였다. 태토는 니질과 사질이 섞여 있고 황회색(2.5Y 5/1)을 띠며 소성 상태는 연질이다.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II형 수막새는 633점 가량을 수습한 것으로 여겨지나, [표 4] 78 현존하는 수량은 잔편까지 포함하여 863점이다. 이 가운데 발굴 일자와 출토지 등을 묵서로 표기한 수막새는 440점으로, 본 보고서에는 68점⁷⁹을 수록하였다. [표 5] [도 56-66]



[도 56] 수막새 II형 025

【표 4】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연화문수막새 II형 출토 현황

일자	출토 위치	출토 현황				
		완형	수막새 편	정리완형	편	수막새
8월 31일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	15	3	4	-
	금당 북쪽 서부	12	-	-	127	-
		9	-	-	31	-
		4	-	-	54	-
		8	-	-	37	-
9월 2일	금당 서쪽 가장자리 남부	5	14	-	-	-
	금당 서남쪽 모서리	6	-	-	12	-
	금당 북동쪽 모서리	1	-	-	1	-
9월 3일	남쪽 서부	3	-	-	34	-
	출토위치불명	3	-	-	10	-
9월 4일	금당 남쪽 가장자리 동부	-	11	-	-	-
		-	49	-	-	-
9월 5일	금당지	-	-	-	-	8
	탐지 서쪽 북부	-	31	-	-	-
9월 6일	탐지 서쪽	-	71	-	-	-
9월 8일	탐지 북쪽 서부	-	21	-	-	-
9월 9일	회랑	2	-	-	6	-
9월 15일	서회랑	-	1	-	-	-
9월 16일	중문지 남쪽	3	12	-	1	-
	탐지	-	4	-	-	-
9월 17일	중문지	3	-	-	8	-
	서회랑	-	2	-	-	-
9월 20일	중문 남쪽	-	2	-	-	-
		-	5	-	-	-
계		59	238	3	325	8

77 II형인 7엽형수막새는 2015년 국립부여박물관이 발간한 『扶餘 定林寺址』에 보고된 바 있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5), p. 89, pp. 142~148; 이는 V형으로 보고된 18점의 수막새로서 부소산 사지 발굴 일지에 해당하는 목서명이 남아 있는데, 기존에 정림사지 출토로 등록, 관리되고 있어 해당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나, 정림사지 발굴 일자와 부합하지 않아 보고 시 기존 유물 등록에 있어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수막새는 부소산 사지 출토된 II형 수막새로 간주할 수 있으며, 현존 수량을 파악하는 데에도 18점을 포함하였다.

78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에서 기록한 수막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I형 대 II형의 비율은 1:6 정도이다.

79 『扶餘 定林寺址』(2015) 보고서에 V형으로 보고된 18점은 제외하였다.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표 5] 연화문수막새 II형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유형	목서명		막새면				
			일자	출토지	직경	화판부 직경	두께	주연너비	구상권너비
025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5.0	11.9	1.8	1.1	0.3
026	부여1321	7엽형	昭和十七.九.十六	中門南	(10.4) 추정 14.8	(8.7) 추정 11.8	2.0	1.2	0.3
027	부여1321	7엽형	昭和十七.九.十八	中門外	(11.6) 추정 15.4	(9.9) 추정 12.2	2.0	1.2	0.3
028	부여1321	7엽형	昭和十七.九.十八	中門外	(10.0)	(8.8)	2.1	1.1	0.3
029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4.9	11.8	2.0	1.2	0.3
030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4.6) 추정 15.0	(13.2) 추정 11.6	1.6	1.4	0.3
031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1.1) 추정 15.6	(9.7) 추정 12.4	2.0	1.3	0.3
032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九.二	金堂西南隅	(10.7) 추정 15.6	(9.2) 추정 12.2	1.8	1.2	0.3
033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0.6) 추정 14.8	(9.1) 추정 11.8	1.8	1.2	0.3
034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0.2) 추정 15.4	(8.7) 추정 11.8	1.7	1.5	0.3
035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九.二	金堂西南隅	(11.2) 추정 15.4	(9.5) 추정 12.2	1.8	1.3	0.3
036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1.0) 추정 15.4	(9.4) 추정 12.4	1.6	1.2	0.4
037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0.0) 추정 14.8	(11.5) 추정 12.0	1.9	1.2	0.2
038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九.	金堂址西	(10.1) 추정 15.2	(8.5) 추정 12.0	1.6	1.3	0.3
039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九.五	金堂	(9.1) 추정 14.4	(7.6) 추정 11.6	1.5	1.1	0.2
040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8.7) 추정 15.4	(7.1) 추정 12.4	1.5	1.2	0.3
041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九.二	金堂○○隅	(7.0)	(5.6)	(1.5)	(1.0)	0.3
042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7.5) 추정 16.0	(6.0) 추정 12.0	2.1	1.3	0.3
043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2.4) 추정 15.2	(11.0) 추정 12.4	1.7	(1.1)	0.3
044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0.7) 추정 15.0	(9.3) 추정 12.2	1.6	1.0	0.3
045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9.2) 추정 12.0	(9.2) 추정 11.2	1.8	-	0.4
046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9.2)	(9.1) 추정 12.2	2.1	-	-
047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7.0)	(5.5)	1.7	1.5	0.2
048	부여1354	7엽형	昭和十七.九.二	-	(11.3) 추정 13.0	(9.9) 추정 10.6	2.0	1.0	0.2
049	부여1354	7엽형	昭和十七.九.六	塔址西側	(6.6)	(5.1)	1.7	1.3	0.2
050	부여1389	7엽형	昭和十七.九.〇	金堂址○○隅	(11.0) 추정 15.4	9.5 추정 12.8	1.5	1.0	0.3
051	부여1396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5.6	12.2	2.0	1.4	0.3
052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九.二	-	(10.6) 추정 14.8	(9.2) 추정 16.6	1.9	1.2	0.3
053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0.8) 추정 15.0	(9.2) 추정 11.8	1.8	1.3	0.3
054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九.三	金堂南緣西部	(10.9) 추정 13.4	(9.1) 추정 10.6	1.7	1.2	0.3
055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	(10.7) 추정 15.0	(8.9) 추정 12.0	1.9	1.2	0.3
056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九.三	金堂南緣西部	(10.7) 추정 15.2	(9.4) 추정 12.4	1.9	1.1	0.3
057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	(12.1) 추정 15.0	(10.3) 추정 12.0	2.3	1.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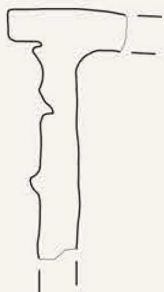
연판		자방			수키와		색상	태토	소성도	접합 방식	제작 기법 및 특징	비고
길이	너비	직경	높이	테두리/ 연자배치	길이/너비/두께	내 · 외면 특징						
2.7	4.0	6.1	0.8	연주문/1+8	-	-	황회색 (2.5Y 5/1)	니질+사질	연질(중)	D	-	
2.8	3.8	6.0	0.5	연주문/1+8	(1.5)/(14.6)/1.5	외면 - 타날흔, 물손질흔	회백색 (5Y 7/1)	니질	연질(중)	-	-	
2.8	3.8	6.3	0.4	연주문/(1+8)	-	-	회백색 (2.5Y 8/1)	니질	연질(중)	-	회전물손질흔	
2.8	3.8	(5.9)	0.6	연주문/(1+8)	-	-	회백색 (2.5Y 8/1)	니질	연질(중)	-	-	
2.8	3.8	6.0	0.5	연주문/1+8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	-	
2.8	3.8	6.3	0.7	연주문/1+8	-	-	회백색 (5Y 8/2)	니질 +사질약간	연질(중)	-	-	
2.8	3.8	6.5	0.5	연주문/1+8	(1.8)/(5.1)/1.5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D	-	
2.7	3.9	6.0	0.4	연주문/1+8	-	-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	-	
2.6	3.8	6.3	0.5	연주문/1+8	-	-	회황색 (2.5Y 7/3)	니질	연질(중)	-	-	
2.9	3.8	(5.5)	0.6	연주문/1+8	(2.0)/(7.4)/1.7	-	황회색 (2.5Y 5/1)	니질	연질(중)	-	-	
2.8	3.8	6.7	0.6	연주문/1+8	-	-	회황색 (2.5Y 7/2)	니질+ 사질약간	연질(중)	-	-	
2.8	3.8	6.2	0.5	연주문/1+8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	-	
2.7	3.8	6.8	0.6	연주문/1+8	-	-	회백색 (2.5Y 8/2)	니질	연질(중)	-	-	
2.5	3.8	6.3	0.7	연주문/1+8	-	-	회색 (5Y 5/1)	니질	연질(중)	D	-	
2.8	3.8	(4.7)	0.7	연주문/1+8	-	-	회백색 (5Y 7/2)	니질+사질	연질(중)	D	-	
2.7	3.8	(4.4)	0.5	연주문/(1+8)	-	-	회백색 (5Y 8/1)	니질	연질(중)	-	-	
2.7	4.0	2.1	0.5	연주문/(1+8)	-	-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C	-	
2.8	3.8	(3.2) 추정 6.0	0.5	연주문/(1+8)	(5.0)/(8.0)/1.8	외면 - 타날흔, 물손질흔 내면 - 포흔	회백색 (2.5Y 8/2)	니질	연질(중)	-	외범 목질흔	
2.9	3.8	6.1	0.8	연주문/1+8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	-	
2.9	4.0	6.3	0.6	연주문/1+8	-	-	회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2.6	3.5	6.2	0.5	연주문/1+8	-	-	황회색 (2.5Y 6/1)	니질	연질(중)	C	-	
2.8	(3.1)	6.1	0.6	연주문/1+8	-	-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C	-	
2.8	3.8	(5.5)	0.4	연주문/(1+8)	(5.1)/(10.1)/1.6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물손질흔(접합시)	회색 (5Y 5/1)	니질	연질(중)	D	-	
3.0	4.0	6.5	0.5	연주문/1+8	-	-	회백색 (5Y 8/1)	니질	연질(중)	-	구상권대에 동범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음	
2.9	3.8	(2.1)	0.5	연주문/1+8	-	-	회백색 (2.5Y 8/2)	니질+사질	연질(상)	-	-	
2.6	3.8	6.2	0.7	연주문/1+8	-	-	회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2.8	3.9	6.7	0.5	연주문/1+8	-	-	회율리브 (5Y 6/2)	니질	연질(중)	D	-	
2.8	3.8	6.0	0.6	연주문/1+8	(24.2)/14.4/1.4	외면 - 타날흔+물손질흔 내면 - 포흔+물손질흔	회린황색 (2.5Y 6/3)	니질+사질	연질(중)	-	등기외에 지름 0.8의 사각형 못구멍	
2.7	4.0	6.3	0.4	연주문/1+8	(15.1)/15.8/1.8	외면 - 물손질 내면 - 포흔	회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2.7	4.1	6.5	0.6	연주문/1+8	(14.0)/14.1/1.6	외면 - 타날흔, 물손질흔 내면 - 포흔	회백색 (2.5Y 8/1)	니질+ 사질약간	연질(중)	-	-	
2.8	3.8	6.1	0.4	연주문/1+8	(15.2)/14.3/2.0	외면 - 타날흔, 물손질흔 내면 - 포흔	회백색 (5Y 7/2)	니질	연질(상)	-	-	
2.7	4.1	6.5	0.4	연주문/1+8	(6.6)/15.1/1.5	외면 - 타날흔, 물손질흔 내면 - 포흔	회백색 (5Y 7/1)	니질	연질(중)	-	구상권대에 동범흔 추정	
2.7	3.8	6.3	0.5	연주문/1+8	(2.8)/(13.5)/1.5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D	회전물손질흔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연번	등록번호	유형	목서명		막새면				
			일자	출토지	직경	화판부 직경	두께	주연너비	구상권너비
058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1.3) 추정 16.0	(9.8) 추정 12.6	(1.5)	1.3	0.3
059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九.十六	中門南	(12.8) 추정 16.0	(11.2) 추정 12.8	1.9	1.2	0.4
060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九.二	-	(9.9) 추정 15.8	(8.3) 추정 12.6	2.1	1.3	0.3
061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九.三	-	(10.8) 추정 15.2	(9.3) 추정 12.2	1.7	1.4	0.2
062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0.3) 추정 15.2	(9.3) 추정 12.0	1.6	1.3	0.3
063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九.十〇	中門南	(8.3) 추정 15.6	(6.3) 추정 12.0	1.9	1.4	0.2
064	부여2010	7엽형	昭和十七.九.二	-	(7.6) 추정 15.0	(6.1) 추정 12.2	1.7	1.2	0.3
065	부여4999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扶蘇山 金堂北緣	(11.2) 추정 16.0	(9.2) 추정 12.0	2.3	1.5	0.3
066	부여4999	7엽형	昭和十七.九.二	扶蘇山 金堂	(10.2) 추정 14.4	(9.0) 추정 11.8	1.7	1.0	0.3
067	자료321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9.8)	(5.3)	(1.7)	1.2	0.2
068	자료323	7엽형	昭和十七.九.五	塔址西側北部	(11.4) 추정 15.0	(9.8) 추정 10.8	2.0	1.9	0.2
069	자료325	7엽형	昭和十七.九.五	塔址西側北部	(11.4) 추정 15.5	(10.0) 추정 12.3	2.0	1.2	0.3
070	부여1321	7엽형	昭和十七.九.二十.	中門南緣西部	(10.3)	(8.6)	(1.6)	1.2	0.2
071	부여1321	7엽형	昭和十七.九.十八	中門外	(10.6)	(8.4)	(1.5)	1.3	0.2
072	부여1321	7엽형	昭和十七.九.十八	中門外	(5.7)	(6.1)	(0.7)	1.2	0.2
073	부여1321	7엽형	昭和十七.九.十八	中門外	(11.5)	(7.7)	(1.5)	1.2	0.2
074	부여1332	7엽형	昭和十七.九.十八	中門外	(10.7)	(6.5)	(1.4)	1.4	0.2
075	부여133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3.9)	(11.0)	(1.7)	1.3	0.3
076	부여1336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8.1)	(6.9)	(1.4)	1.3	0.2
077	부여1336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5.0)	(3.0)	(2.0)	1.2	0.2
078	부여1336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4.6)	(2.8)	(0.69)	1.1	0.3
079	부여1336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6.5)	(7.2)	(2.7)	1.3	0.2
080	부여1336	7엽형	昭和十七.	金堂北緣	(2.5)	-	(1.2)	-	-
081	부여1336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4.0)	(2.4)	(1.5)	1.2	0.3
082	부여1336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10.1)	(7.9)	(1.4)	1.1	0.3
083	부여1336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7.3)	(5.6)	(1.3)	1.5	0.3
084	부여1352	7엽형	昭和十七.九.五	塔址西側北部	(4.7)	(2.9)	(0.9)	1.1	0.3
085	부여1352	7엽형	昭和十七.九.八	塔址北側西部	-	-	-	(0.7)	-
086	부여1352	7엽형	昭和十七.九.六	塔址西側	-	-	-	-	-
087	부여1352	7엽형	昭和十七.九.五	塔址西側北部	(10.2)	(6.9)	-	(0.9)	(0.5)
088	부여1352	7엽형	昭和十七.九.五	塔址西側北部	(6.9)	(5.6)	-	0.6	0.4
089	부여1352	7엽형	昭和十七.九.八	塔址北側西部	(12.1)	-	-	(1.8)	-
090	부여1352	7엽형	昭和十七.九.二	〇〇西側	(7.9)	(5.8)	-	(0.9)	0.4
091	부여1352	7엽형	昭和十七.九.五	塔址西側北部	(7.3)	-	-	1.0	-
092	자료325	7엽형	昭和十七.八.卅一	金堂北緣	(8.4)	(7.1)	-	1.4	0.2

연판		자방			수키와		색상	태토	소성도	접합 방식	제작 기법 및 특징	비고
길이	너비	직경	높이	테두리/ 연자배치	길이/너비/두께	내·외면 특징						
2.9	4.0	6.4	0.6	연주문/1+8	-	-	회백색 (5Y 7/1)	니질	연질(중)	C	구상권대에 동범흔 추정	
2.9	4.0	6.4	0.5	연주문/1+8	-	-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2.9	3.8	6.1	0.7	연주문/1+8	-	-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	-	
2.8	3.9	6.4	0.5	연주문/1+8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	-	
2.5	3.9	6.5	0.5	연주문/1+8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D	-	
2.9	3.7	(3.5)	0.4	연주문/1+8	-	-	호린황색 (2.5Y 6/3)	니질+사질	연질(중)	-	-	
2.9	3.9	(3.2)	0.5	연주문/1+8	-	-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2.8	3.8	6.3	0.6	연주문/1+8	-	-	회황색 (2.5Y 8/1)	니질+사질	연질(중)	C	-	
2.6	3.8	6.1	0.5	연주문/1+8	-	-	회백색 (10YR 8/1)	니질+사질	경질	-	회전물손질흔	
2.5	3.7	(2.3)	0.9	연주문/1+8	-	-	천황색 (2.5Y 7/3)	니질	연질(중)	D	-	
2.7	3.7	6.5	0.6	연주문/1+8	-	-	회백색 (2.5Y 8/2)	니질	경질	D	회전물손질	
2.8	(3.5)	6.3	0.6	연주문/1+8	-	-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상)	-	-	
2.8	4.0	(5.9)	0.6	연주문/(1+8)	-	-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	-	
2.8	3.8	-	-	-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	-	
(2.7)	3.5	-	-	-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	-	
(2.1)	3.5	-	-	-	(9.0)/(12.0)/1.6	외면 - 타날 후 정면 내면 - 포흔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D	-	
(2.3)	3.4	-	-	-	(12.7)/(10.4)/1.5	외면 - 타날 후 정면 내면 - 포흔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D	-	
2.8	3.8	(4.9)	0.4	연주문/1+8	-	-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	-	
(2.6)	3.7	-	-	-	(11.5)/(11.7)/1.5	외면 - 물손질 내면 - 포흔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2.7)	(3.2)	-	-	-	(11.8)/(8.9)/1.3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회색 (N 4/)	니질	연질(중)	D	-	
(2.8)	3.8	-	-	-	(14.0)/(8.9)/1.2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회백색 (10YR 8/1)	니질	연질(중)	D	-	
(2.7)	3.9	-	-	-	(4.8)/(8.6)/1.2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	-	-	-	-	(6.5)/(5.9)/1.1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회색 (N 4/)	니질+사질	연질(중)	-	-	
(2.7)	(3.1)	-	-	-	(16.0)/(11.0)/1.5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회백색 (5Y 8/2)	니질	연질(중)	-	-	
(2.7)	(3.9)	-	-	-	(7.4)/(8.5)/1.1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	-	
(2.9)	(2.4)	-	-	-	(14.0)/(9.4)/1.3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회색 (5Y 5/1)	니질	연질(중)	-	-	
(2.9)	4.1	-	-	-	(23.5)/(11.7)/1.3	내면 - 포흔	회백색 (5Y 8/1)	니질	연질(중)	-	약 0.7cm 정도의 사각형으로 추정되는 못구멍이 있음	
-	-	-	-	-	(2.9)/(8.3)/1.9	내면 - 포흔	회백색 (5Y 7/1)	니질	연질(상)	-	-	
-	-	-	-	-	(5.7)/(10.5)/1.98	내면 - 포흔, 물손질흔	회백색 (2.5Y 7/1)	니질	연질	-	-	
-	-	-	-	-	(3.0)/(6.4)/1.8	외면 - 물손질 내면 - 포흔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	-	-	
-	-	-	-	-	(3.8)/(7.5)/1.4	외면 - 물손질 내면 - 포흔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	-	-	-	-	(3.7)/(7.8)/1.7	내면 - 포흔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	-	
-	-	-	-	-	(2.0)/(6.3)/1.8	-	천황색 (2.5Y 7/3)	니질	연질(중)	-	-	
-	-	-	-	-	(2.1)/(4.5)/1.9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	-	
2.7	4.0	-	-	연주문/1+8	(22.5)/(13.8)/ (1.5)	외면 - 타날흔 내면 - 포흔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	-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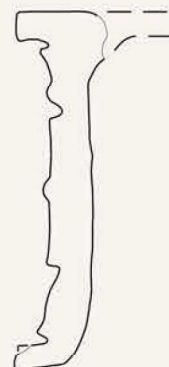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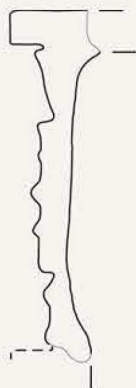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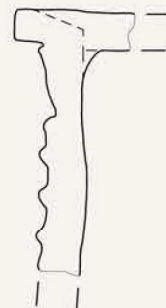
029



030



031



032



033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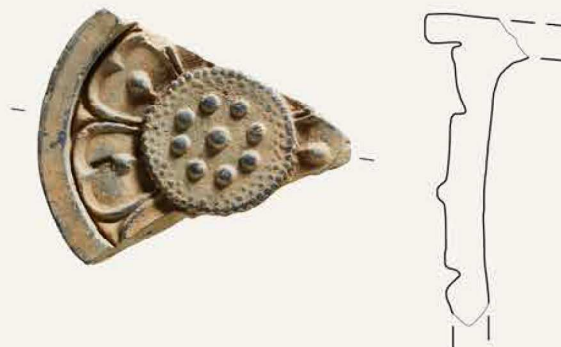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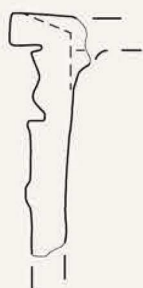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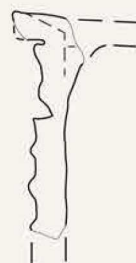
037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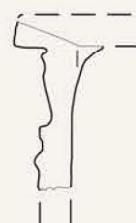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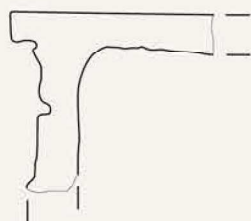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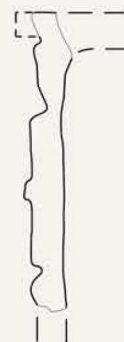
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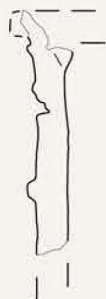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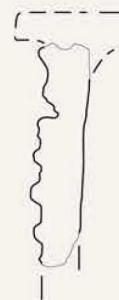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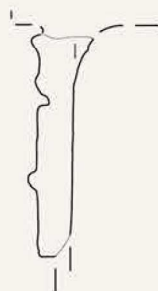
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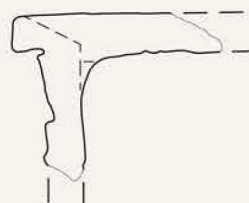
046



045



047



048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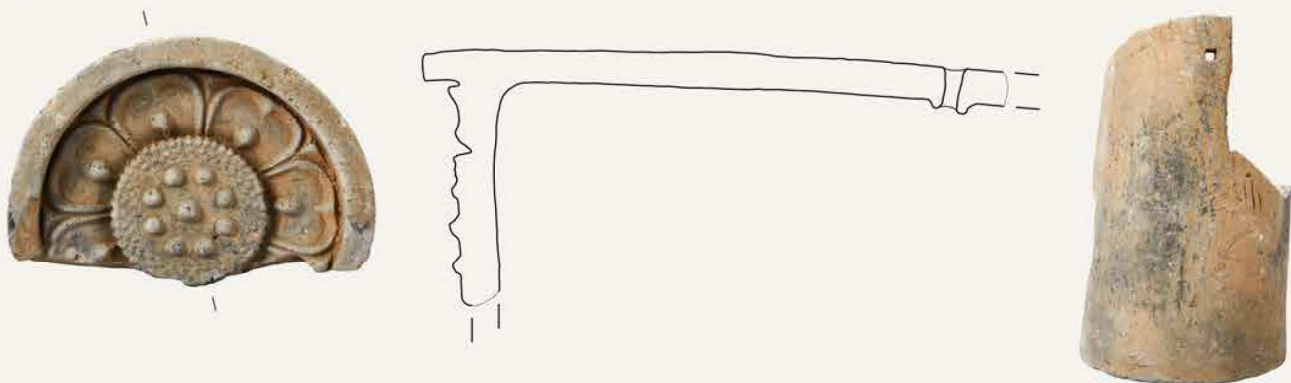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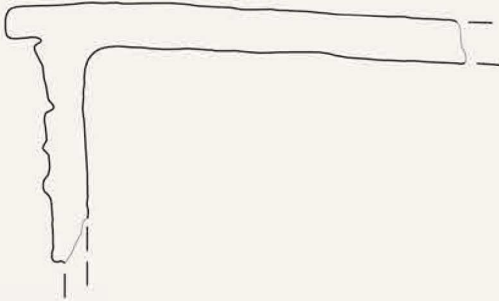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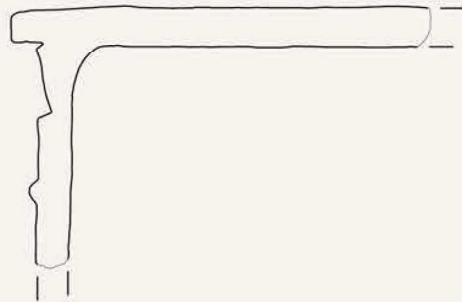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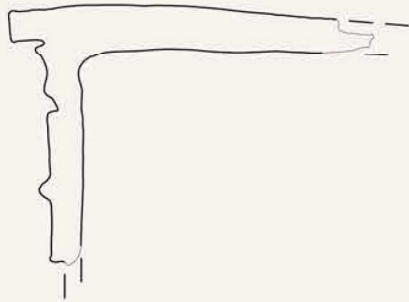
053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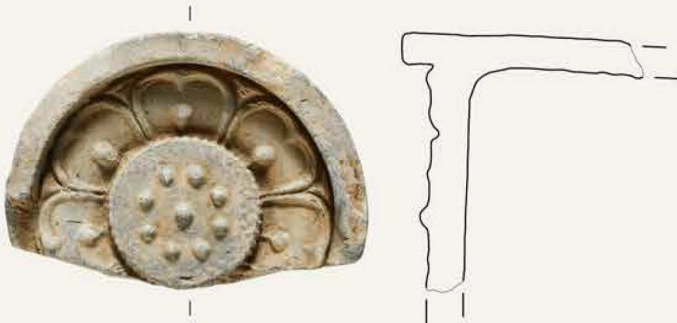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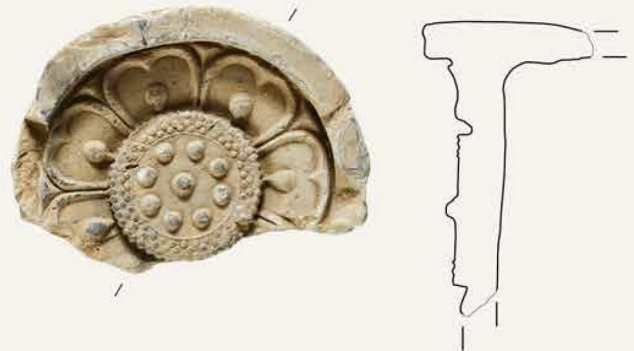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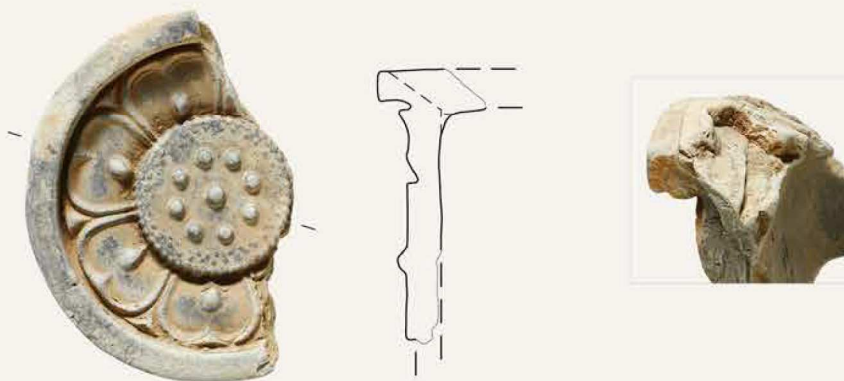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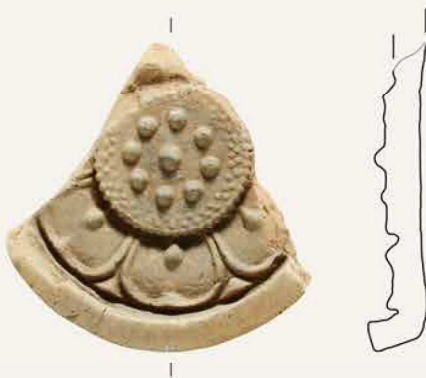
057



058



059



060



061



063



062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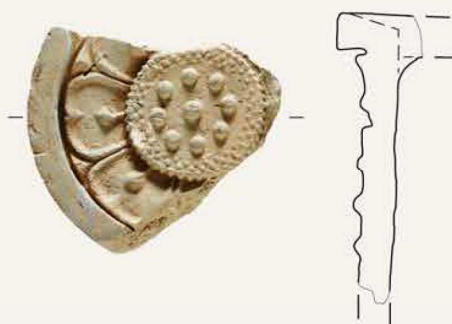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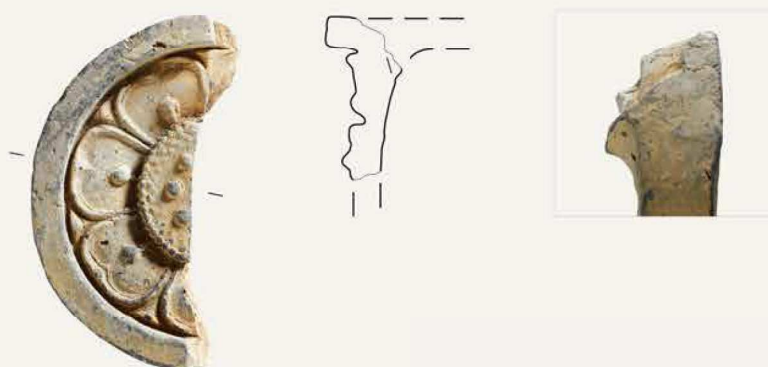
066



068



067



069



070



071



072



073



074



075



076



077



078



079



08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90



091



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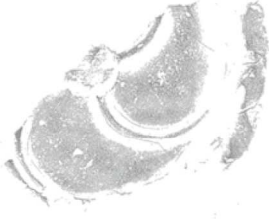


III형

093. 부여1348

파문이 찍힌 수막새로 반파된 상태이다. 자방과 같은 중심의 돌출한 원으로부터 시계반대 방향을 회전하는 곡선이 십자형태로 돌려졌을 것으로 여겨지며, 곡선의 두께는 약 0.2~0.4cm이다. 당시 발굴조사에서 1점이 출토품으로 확인되며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에서도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다.^[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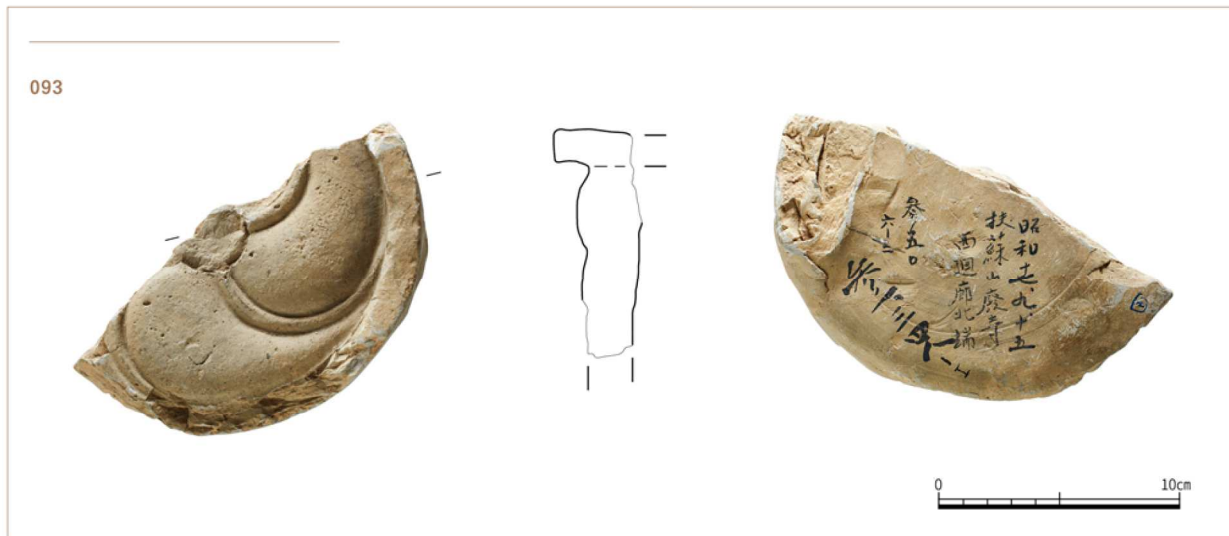
수키와 접합 방식은 A식이며, 막새 뒷면에는 묵서로 '昭和十七.九.十五 扶蘇山廢寺 西廻廊北端'이라 표시하였다. 태토는 니질로 회황색(2.5Y 7/2)을 띠며, 소성 상태는 경질이다.^{[표 7] [도 67]}



수막새 III형 093 탐본

[표 6]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연화문수막새 III형 출토 현황

일자	출토 위치	출토 현황	비고
9월 15일	금당지 북쪽 가장자리 서부	4줄의 파문 수막새 편 1점	뒷면에는 '扶蘇山廢寺 西廻廊北端'라 표기되어 있음



[도 67] 수막새 III형 093

[표 7] 연화문수막새 III형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유형	묵서명		막새면					자방			색상	태토	소성도	접합 방식	제작 기법 및 특징	비고
			일자	출토지	직경	화판부 직경	두께	주연 너비	구상권 너비	직경	높이	테두리/연자배치						
93	부여1348	파문	昭和十七.九.十五	扶蘇山廢寺 西廻廊北端	(9.5) 추정 20.0	(7.8)	(2.4)	1.2	0.5	(2.4)	-	-	회황색 (2.5Y 7/2)	니질	경질	A	회전물손질	

2) 평기와

1942년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에서 연화문수막새 외에 평기와가 출토되었는데, 현재 확인되는 수량은 15점으로 수키와 4점, 암키와 11점이다. 수키와의 경우 못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방형 구멍이 나 있는 예들이 확인되고, 주로 암키와에 붉은 색으로 선을 그어 표시한 예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붉은 색 선으로 표시한 예는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특징으로, 바깥뿐만 아니라 안쪽에 선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음에서는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를 기준으로 평기와 출토 현황을 분류하여 당시 출토 상황을 정리하였다.^[표 8] 또한 목서명, 길이, 너비, 두께, 와도방향, 무늬, 색상, 태토, 소성도, 제작 기법과 특징 순으로 속성표를 작성하여 수록된 평기와를 소개하고,^[표 9] 이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함께 실었다.^[도 68-75]

[표 8]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평기와 출토 현황

일자	출토 위치	출토 현황	비고
8월 31일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많은 기와 편이 나왔다. ⁸⁰	
9월 1일	금당 북쪽 가장자리 트렌치 동부	기와 편 ⁸¹	
9월 2일	기단 서쪽 가장자리 트렌치	12시 직전 남쪽 고려시대 암키와 편 오후 3시 이후 고려시대 암키와 1점 ⁸²	
9월 3일	동쪽 가장자리 트렌치	기와가 많지 않았다.	
	남쪽 가장자리 트렌치	옛 기와가 많이 나왔다.	
	위치 불명	붉은 선이 남아 있는 암키와 1점 ⁸³	
9월 4일	금당 남쪽 가장자리 동부	붉은 선이 남아 있는 암키와 편 2점 ⁸⁴	
9월 5일	탐지 서쪽 북부	-	수키와 1점 ⁸⁵
9월 6일	탐지 서쪽	-	수키와 1점 ⁸⁶
9월 15일	강당 위치 트렌치	금당과 같은 기와가 나옴 ⁸⁷	

⁸⁰ 기와 편이 나온 상황만으로 평기와 출토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8월 31일 출토로 '金堂 北緣'이 함께 목서된 수키와 2점[094, 097]과 '金堂址'가 목서된 암키와 1점[104], 일자만 표기된 암키와 4점[105~108]이 확인된다.

⁸¹ 기와 편이 동제 작은 못 1점과 함께 나왔으나 정확하게 어떤 양상인지는 파악되지 않으며, 평기와에 기록된 목서명에도 해당 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⁸² 고려시대 암키와 편이나 암키와 1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각각 '金堂', '金堂西南隅'에서 출토한 암키와[102, 103]가 1점씩 확인된다.

⁸³ 목서로 '昭和一七.九.三 扶蘇山廢寺'로 표기되었고, 붉은 선이 남아 있는 암키와 1점[099]이 이에 해당한다.

⁸⁴ 목서로 '昭和一七.九.四 扶蘇山廢寺 金堂址'로 표기되었고, 붉은 선이 남아 있는 암키와 편 2점[100~101]이 이에 해당한다.

⁸⁵ 일기에는 이 수키와[96]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목서로 '昭和一七.九.五 塔址西側北部'로 표시되어 있다.

⁸⁶ 일기에는 이 수키와[95]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목서로 '昭和一七.九.六 塔址西側'으로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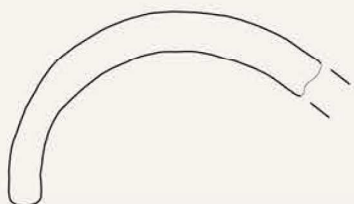
⁸⁷ 부소산 사지는 실제 강당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강당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트렌치를 설정해서 기와가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표 9] 평가와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명칭	목서명		길이	너비	두께	와도 방향	무늬	색상	태도	소성도	제작기법 및 특징	비고
			일자	출토지										
094	부여1332	수키와	昭和一七八卅一	金堂北緣	(12.0)	(13.0)	1.7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외면 물손질 정면흔, 붉은선	
095	부여1350	수키와	昭和一七九六	塔址西側	(6.5)	(6.2)	1.6	-	평행선문	회황색 (2.5Y 7/2)	니질	연질(중)	외면 물손질 정면흔	
096	부여1351	수키와	昭和一七九五	塔址西側 北部	(10.5)	(10.3)	1.5	측면 전면 물손질	평행선문	천회색 (7.5Y 7/1)	니질	연질(중)	0.7~0.8cm의 사각형 못구멍이 존재 평행선문이 시문되어 있지만 물손질흔이 남음 내면 포목흔 외면 깎기흔	
097	자료337	수키와	昭和一七八卅一	金堂北緣	(19.2)	(11.1)	1.5	-	평행선문	천황색 (2.5Y 7/3)	니질+사질	연질(중)	내면 포목흔	
098	부여1304	암키와	昭和一七八三	金堂北緣 西部	(17.9)	(13.7)	2.1	내면	-	회색 (5Y 5/1)	니질	연질(상)	붉은선	
099	부여1307	암키와	昭和一七九三	扶蘇山廢寺	(12.6)	(9.3)	1.9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중)	통쪽흔, 붉은선	
100	부여1307	암키와	昭和一七九四	扶蘇山廢寺 金堂址	(12.6)	(6.3)	1.9	-	평행선문 후 무문화	흐린황색 (10YR 7/4)	니질	연질(중)	통쪽흔, 붉은선	
101	부여1307	암키와	昭和一七九四	扶蘇山廢寺 金堂址	(9.2)	(11.5)	1.8	-	-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상)	통쪽흔, 붉은선	
102	부여1336	암키와	一七九二	金堂	37.6	(11.4)	1.9	내면	평행선문	흐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중)	외면 물손질 정면흔, 통쪽흔	
103	부여1336	암키와	昭和一七九二	金堂西南隅	(10.9)	(11.6)	2.0	내면	평행선문	회백색 (2.5Y 8/2)	니질+사질	연질(중)	외면 물손질 정면흔, 통쪽흔, 붉은선	
104	부여1336	암키와	昭和一七八三	金堂址	(10.5)	(9.4)	2.0	내면	-	회색 (N 4/)	니질	연질(상)	통쪽흔, 붉은선	
105	자료342	암키와	昭和一七八卅一	-	(11.6)	(12.9)	1.8	-	평행선문	천황색 (2.5Y 7/4)	니질+사질	연질(중)	외면 물손질 정면흔, 붉은선, 내면 통쪽흔	
106	자료342	암키와	昭和一七八卅一	-	(6.9)	(13.0)	1.7	내면	-	천황색 (2.5Y 7/3)	니질+사질	연질(중)	통쪽흔, 붉은선	
107	자료342	암키와	昭和一七八卅一	-	(6.4)	(9.0)	1.9	-	평행선문 후 무문화	회올리브색 (5Y 6/2)	니질	연질(중)	통쪽흔, 붉은선	
108	자료342	암키와	昭和一七八卅一	-	(10.8)	(11.0)	2.3	-	평행선문	천황색 (2.5Y 7/3)	니질	연질(중)	통쪽흔, 붉은선	

094



095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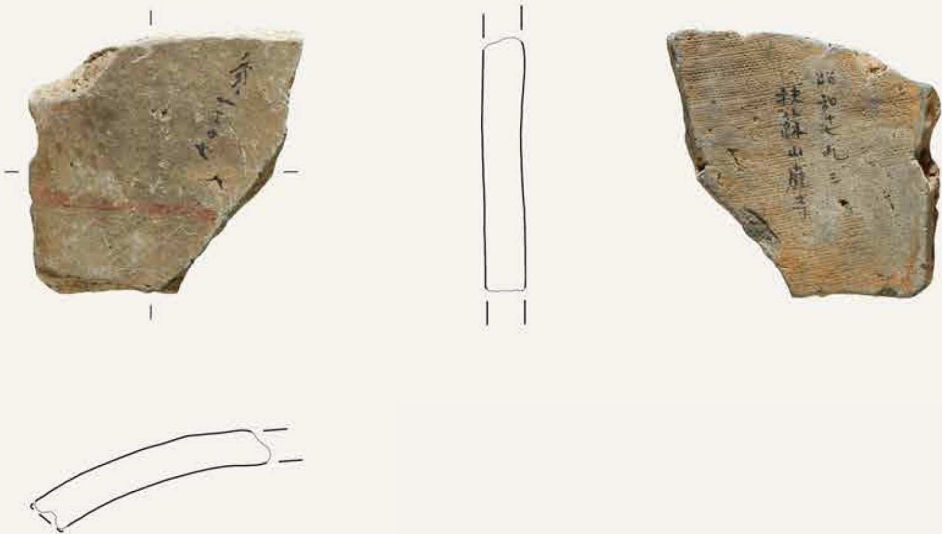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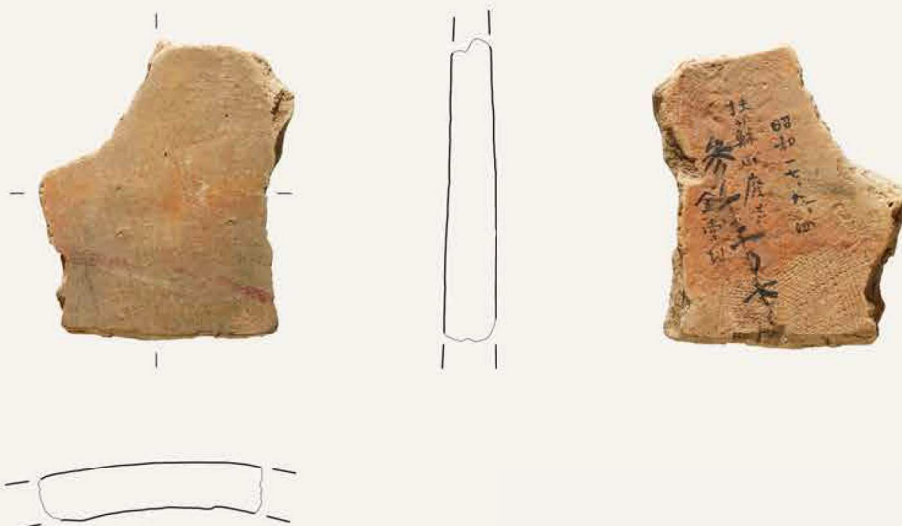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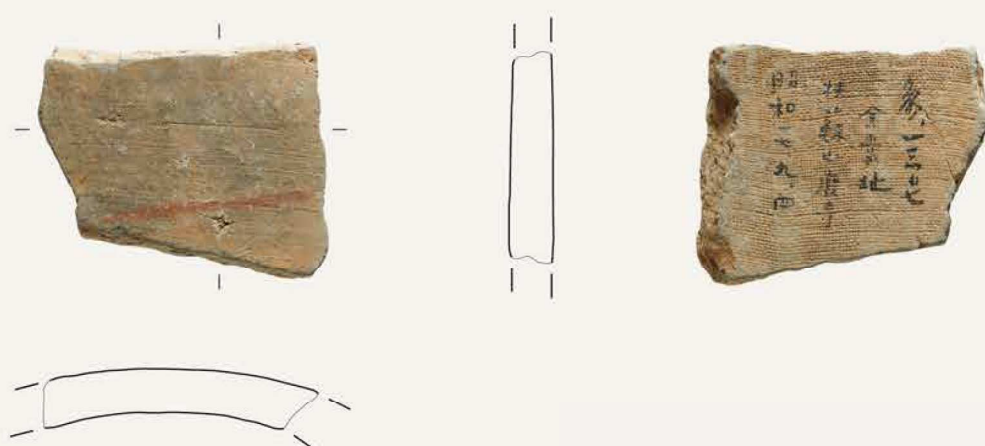
099



100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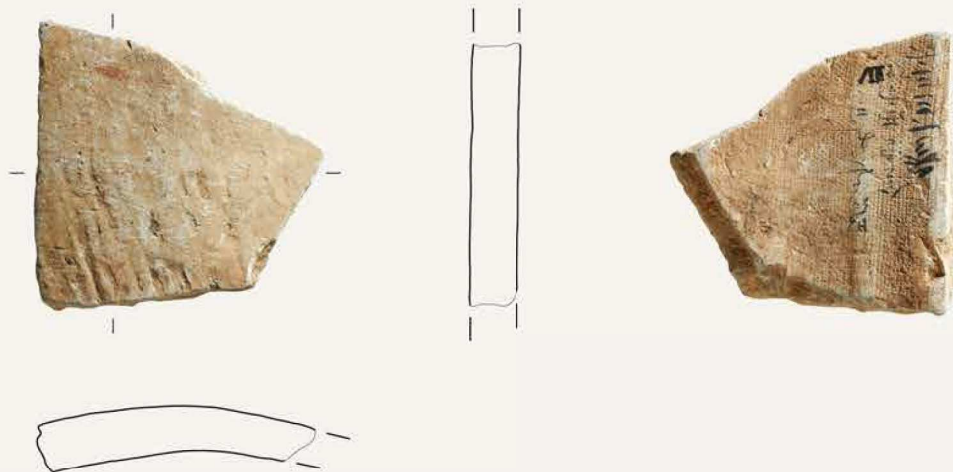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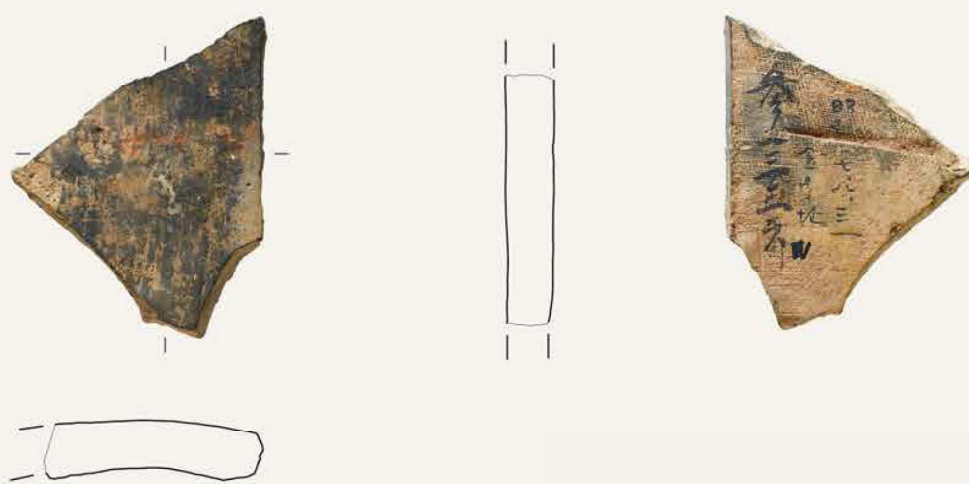


[도 72] 평기와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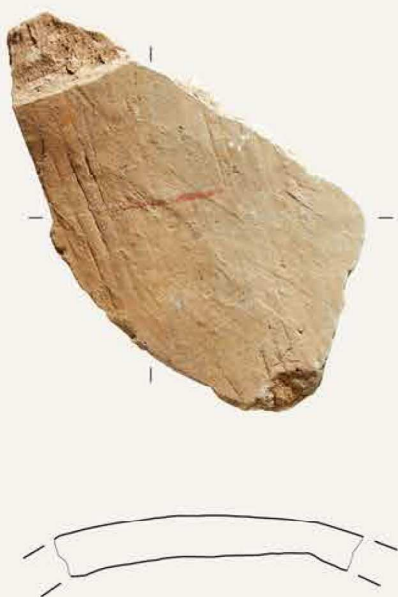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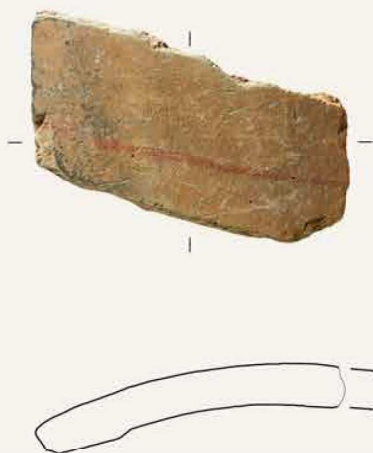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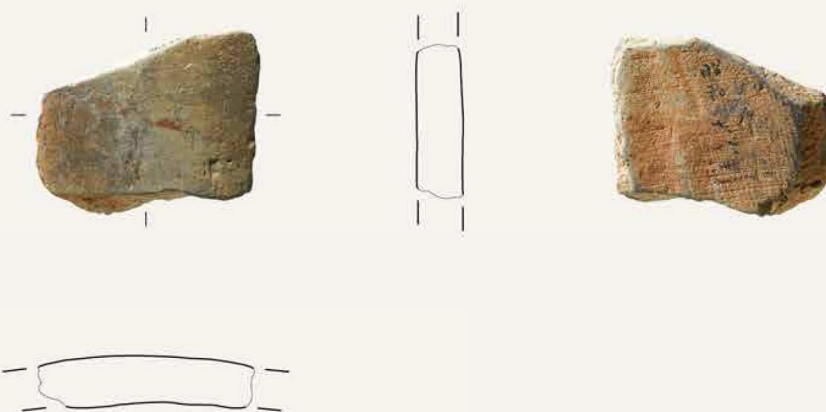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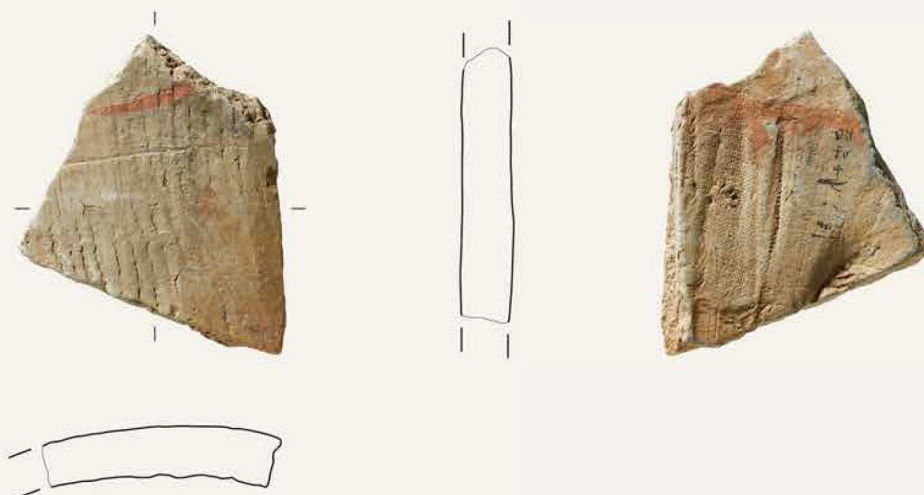
106



107



108



3) 인장과

인장와는 기와 외면에 문자나 기호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 제작과 관련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기를 나타내는 간지干支, 지명, 인명, 제작처 등으로 볼 수 있다. ‘인각와印刻瓦’ 혹은 ‘인명와印銘瓦’로도 일컬어지며, 이와 같은 인장와는 대부분 사비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1942년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인장와의 현존 수량은 44점으로 본 보고서에는 33점을 수록하였고,⁸⁸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를 기준으로 한 인장과 출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표 10] 89}

인장와가 찍힌 기와의 종류는 수키와 14점, 암키와 19점이며, 소성도는 경질 대 연질의 비율이 1 : 2 정도이다. 인장은 양각으로 찍었으며, 「午」-「止」 5점, 「午」-「助」 3점, 「午」-「斯」 1점을 비롯하여 「午」와 조합식으로 이루어진 예가 5점으로, 「〇」-「止」 2점을 포함하여 대개 「午」와 상기 각 문자와의 구성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인장의 위치는 상하 방향으로 인접하였다. 아울러 단독으로 남아 있는 「午」 4점, 「止」 3점도 확인된다.⁹⁰ 그 밖에 「己」-「助」 1점, 「巳」-「助」 1점, 「〇」-「助」 1점 등 「助」와 동반된 인장의 유형도 확인된다.^[표 11] 한 개체당 찍은 인장의 수는 2개인 예(21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개가 남아 있는 예(11점), 그리고 4개인 경우(1점)도 있다.

인장의 형태는 대개 원형을 이루며 타원형도 확인된다. 대체로 문자 주위에 1~2mm의 테두리가 있으며, 없는 예도 있다. 인장의 크기는 직경 2cm 이내 위주이며, 직경이 1.5cm 이내인 예도 있다. 이상의 인장와에 대하여 목서명, 기와의 길이·너비·두께·무늬·와도방향, 인장수·인장음각·인장크기, 색상, 태토, 소성도, 제작 기법 및 특징 순으로 속성표를 작성하였고, ^[표 12] 사진·도면·탐본을 함께 실었다.^[도 76-91]

⁸⁸ 1942년 부소산 사지 발굴 조사품으로 확인된 실제 인장과 수량은 44점으로, 이 가운데 11점(부여1315)은 기존에 부여읍 군수리 출토로 등록, 관리되어 『扶餘 軍守里 寺址』 보고서에 수록되었고, 수키와 4점과 암키와 7점으로 나뉜다. 국립부여박물관, 『扶餘 軍守里 寺址』(2012), pp. 91~99; 그러나 이 인장와에 목서된 기록은 부소산 사지의 발굴 일자에 해당되어 당시 부소산 사지 조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⁸⁹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의 인장와에 대한 기록은 종류나 수량에 대하여 다소 모호하여 현존하는 인장와의 종류나 수량의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⁹⁰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에 기록된 인장과 가운데 9월 5일 금당 남쪽 건물지와 탐지 서쪽에서 나온 「申」-「市」 인장, 9월 8일 탐지 북쪽 서부에서 나온 「戊」-「斯」 인장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단독으로 남아 있는 인장 가운데 기호처럼 표시된 예와 「辰」이 확인된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2), p. 91 24), p. 96 34).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표 10]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인장과 출토 현황

날짜	출토 위치	출토 현황	비고
9월 2일	금당 서쪽 가장자리 남부	3	「午?」-「止」, 「午」-「助?」, 「午」-「止?」
9월 5일	금당 동쪽 가장자리	1	소형 수키와 「午?」-「止?」
	남쪽 건물지	2	수키와 「申」-「市」, 「?」-「止」
	탐지 서쪽	4	수키와 「午」-「止」, 「?」-「止」, 「申」-「市」, 불명 「午」-「止」
9월 6일	탐지 서쪽	2	수키와 「午」-「止?」 암키와 「斯」
9월 8일	탐지 북쪽 서부	6	암키와 「午?」, 「斯」, 「戊」-「斯」, 「午」-「助」 수키와 「午?」-「止」, 「?」-「?」
9월 9일 ⁹¹	탐지 북쪽 동부	-	암키와
9월 16일	탐지	1	암키와 「午」-「助」 ⁹²

[표 11] 인장과 문자 구성 유형

상	하	止	助	斯
午				
己	-		-	
巳	-		-	

⁹¹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는 9월 9일에 확인된 인장와의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해당 일자의 목서가 남은 예로 수키와 편[111, 116, 134, 136], 암키와 편[118, 120~122, 124, 127, 129, 141]을 들 수 있다; 그리고 『扶餘 軍守里 寺址』 보고서에 실린 수키와 1점 및 암키와 2점(부여1315)도 이 일자의 목서가 확인된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2), p. 92 26), p. 96 34) · 35).

⁹² 해당 일자의 목서가 남은 암키와 편[119]으로 여겨지며, 이와 함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문지 남쪽에서 출토된 것으로 표기된 수키와 편[117]이 확인된다.

[표 12] 인장과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인장명	명칭	목서명		기와					인장			색상	태토	소성도	제작기법 및 특징	비고
				일자	출토지	길이	너비	두께	무늬	와도방향	인장수	인장 음각	인장크기					
109	자료341	斯(?)	임키와 편	昭和十七.九.六	塔址西側	(4.8)	(5.1)	1.3	무문	-	1	양각	(2.2)x(1.4)	회황색 (2.5Y 6/2)	니질+ 사질	경질	-	
110	부여1306	雜(?)	임키와 편	昭和十五.十一.廿八	扶蘇山廢寺址	(9.5)	(6.1)	1.3	무문	-	1	양각	2.0x(1.9)	호린등색 (5YR 6/4)	니질	연질 (중)	-	
111	부여1303	○	수키와 편	昭和十七.九.九	塔址北緣	(6.3)	(6.1)	1.6	무문	-	1	양각	(1.9)x(0.9)	명황갈색 (10YR 6/6)	니질	연질 (상)	-	
112	부여1336	午-止	수키와 편	昭和十七.八.三一	金堂址北緣西部	(6.4)	(7.0)	1.0	무문	-	2	양각	1.9x2.3 (1.0)x(1.8)	명황갈색 (10YR 6/6)	니질+ 사질	연질 (하)	-	
113	부여2012	午-止	수키와 편	-	扶蘇山廢寺	(7.7)	(5.5)	1.2	무문	측면전면 조정	2	양각	2.0x1.8 (1.8)x(1.1)	회황색 (2.5Y 6/2)	니질+ 사질	연질 (상)	내 측면 깎기	
114	부여2012	午-止	수키와 편	十七.九.五	金堂西緣	(7.5)	2.5	1.2	무문	측면전면 조정	2	양각	(2.1)x(2.0) 1.9x1.8	천황색 (2.5Y 6/3)	니질	연질 (중)	-	
115	부여2012	午-止	수키와 편	十七.九.六	塔○西緣	(10.0)	(7.6)	1.2	무문	측면전면 조정	2	양각	1.4x1.2 1.3x1.3	명적갈색 (5YR 5/6)	니질+ 사질	경질	내외 측면 깎기	
116	부여2012	午-止	수키와 편	十七.九.九	-	(7.3)	(8.9)	1.3	평행선문 후 물손질	측면전면 조정	2	양각	1.4x1.3 1.1x1.6	회백색 (2.5Y 7/2)	니질	경질	내외 측면 깎기	
117	부여1321	午-止 (?)	수키와 편	昭和十七.九.十六	中門南	(13.9)	(8.4)	1.5	무문	-	2	양각	1.7x1.7 (0.5)x(1.7)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 (중)	-	
118	부여1361	午-斯	임키와 편	十七.九.九	-	(8.7)	(6.7)	1.4	무문	-	4	양각	2.0x2.0 1.9x1.9 (1.5)x(2.1) (0.6)x(1.2)	천황색 (2.5Y 7/4)	니질	연질 (중)	-	
119	부여1306	午-助	임키와 편	昭和十七.九.一六	扶蘇山廢寺	(7.2)	(8.3)	1.4	무문	-	2	양각	1.8x1.9 1.7x1.7	회황색 (2.5Y 6/2)	니질	연질 (중)	-	
120	부여1361	午-助	임키와 편	十七.九.九	-	(13.1)	(12.6)	1.3	평행선문 후 무문화	-	2	양각	1.8x1.8 2.8x1.8	호린등색 (7.5YR 6/4)	니질	연질 (중)	-	
121	부여2012	午-助	임키와 편	十七.九.九	-	(15.3)	(9.0)	1.8	평행선문 후 물손질	측면전면 조정	2	양각	1.9x1.7 (1.8)x(1.7)	회백색 (2.5Y 7/1)	니질+ 사질	연질 (상)	-	
122	부여2012	午-助 (?)	임키와 편	十七.九.九	-	(3.8)	(5.4)	1.3	무문	측면전면 조정	2	양각	(1.3)x(1.7) (0.8)x(1.1)	천황색 (2.5Y 6/3)	니질	연질 (중)	-	
123	부여1303	午	수키와 편	昭和十七.九.六	塔址西側	(6.9)	(9.9)	1.5	무문	-	1	양각	(1.3)x(1.9)	호린갈색 (7.5Y 5/4)	니질	경질	-	
124	부여2012	午-○	임키와 편	十七.九.九	-	(8.9)	(6.3)	1.4	평행선문 후 물손질	-	2	양각	1.8x1.6	명적갈색 (5YR 5/8)	니질+ 사질	경질	내 측면 깎기	
125	부여2012	午	임키와 편	十七.九.六	塔址西緣	(8.2)	(6.9)	1.2	무문	측면전면 조정	1	양각	1.8x(0.8)	천황색 (2.5Y 7/3)	니질	경질	인장에 목질흔 관찰	
126	부여2012	午-○	임키와 편	十七.九.二	金堂址西南隅	(3.0)	(4.3)	1.4	무문	-	2	양각	1.9x1.9 (1.3)x(0.3)	회백색 (5Y 7/1)	니질	경질	-	
127	자료333	午	임키와 편	十七.九.九	塔址	(3.6)	(5.0)	1.6	평행선문 후 물손질	-	1	양각	1.7x1.5	명적갈색 (5YR 5/8)	니질+ 사질	연질 (상)	-	
128	자료341	午	임키와 편	十七.九.六	塔○○緣	(6.2)	(6.4)	1.6	무문	-	1	양각	1.8x1.8	천황색 (2.5Y 7/4)	니질	연질 (중)	-	
129	부여2012	午(?)- 止(?)	임키와 편	十七.九.九	-	(8.0)	(4.4)	1.4	평행선문 후 무문화	-	2	양각	1.6x2.0 1.4x1.6	호린황색 (2.5Y 6/3)	니질	연질 (중)	-	
130	부여2012	己-助	임키와 편	-	扶蘇山廢寺址	(18.9)	(10.8)	1.7	평행선문 후 물손질	측면전면 조정	2	양각	1.8x1.6 1.7x2.0	회색 (5Y 6/1)	니질	경질	내 측면 깎기	
131	자료460	巳-助	임키와 편	-	서북사지	(18.5)	(8.8)	1.6	무문	측면전면 조정	2	음각	(2.0)x2.1 (2.3)x(2.0)	회색 (5Y 6/1)	니질+ 사질	경질	인장 목질흔, 범상흔	
132	부여1336	止	수키와 편	昭和十七.八.三一	金堂址北緣西部	(6.7)	(7.4)	1.5	무문	-	1	양각	(1.5)x(1.2)	등색 (7.5YR 7/6)	니질	연질 (중)	-	
133	부여1336	○-止	수키와 편	昭和十七.九.二	金堂址西南隅	(6.7)	(5.4)	1.1	무문	-	2	양각	2.0x1.9 (1.0)x(1.7)	회백색 (2.5Y 7/1)	니질	경질	-	
134	부여1361	○-止	수키와 편	十七.九.九	-	(9.6)	(5.6)	1.5	무문	-	2	양각	1.6x1.3 (1.3)x(0.6)	호린황등색 (10YR 7/4)	니질	연질 (중)	-	
135	부여2012	止	수키와 편	十七.九.五	金堂西緣	(4.0)	(2.5)	1.3	무문	측면전면 조정	1	양각	(1.6)x(1.8)	천황색 (2.5Y 7/3)	니질	연질 (중)	-	
136	부여2012	止	수키와 편	十七.九.九	-	(8.8)	(4.0)	1.4	평행선문 후 물손질	측면전면 조정	1	양각	(1.5)x(1.4)	등색 (7.5YR 6/6)	니질	연질 (중)	내외 측면 깎기 인장 찍은 후 깎음	
137	부여2012	○-助	임키와 편	十七.九.六	塔址西緣	(9.9)	(11.2)	1.6	평행선문	-	2	양각	(0.4)x(1.0) 1.8x1.7	등색 (7.5YR 6/6)	니질	연질 (중)	-	
138	부여2012	○-毛 (?)	임키와 편	十七.九.六	塔址西緣	(6.7)	(7.3)	1.1	평행선문 후 물손질	-	2	양각	2.0x2.1 (1.9)x(0.9)	회백색 (2.5Y 7/1)	니질	경질	인장 2개가 연결되어 찍힘	
139	부여1336	○-○	수키와 편	昭和十七.九.五	金堂東南隅	(14.0)	(12.0)	1.3	평행선문 후 물손질	측면전면 조정	2	-	1.5x1.2 1.5x1.4	명황갈색 (2.5Y 7/6)	니질+ 사질	연질 (중)	내외 측면 깎기 인장 마모가 심함	
140	자료333	○-○	임키와 편	十七.九.八	塔址北側	(4.5)	(2.3)	1.4	무문	측면전면 조정	1	-	(1.4)x(0.9)	회백색 (2.5Y 7/1)	니질+ 사질	연질 (상)	내외 측면 깎기 인장 찍은 후 자르고 측면 깎기 함	
141	자료333	○-止	임키와 편	17.9.9	-	(3.7)	(4.7)	1.4	무문	측면전면 조정	2	양각	1.9x1.7 (1.2)x(0.8)	명갈색 (7.5YR 5/8)	니질+ 사질	연질 (상)	내 측면 깎기, 통쪽흔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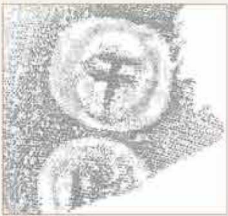
11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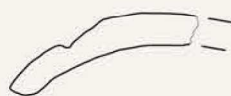


112



[도 77] 인장과 111-112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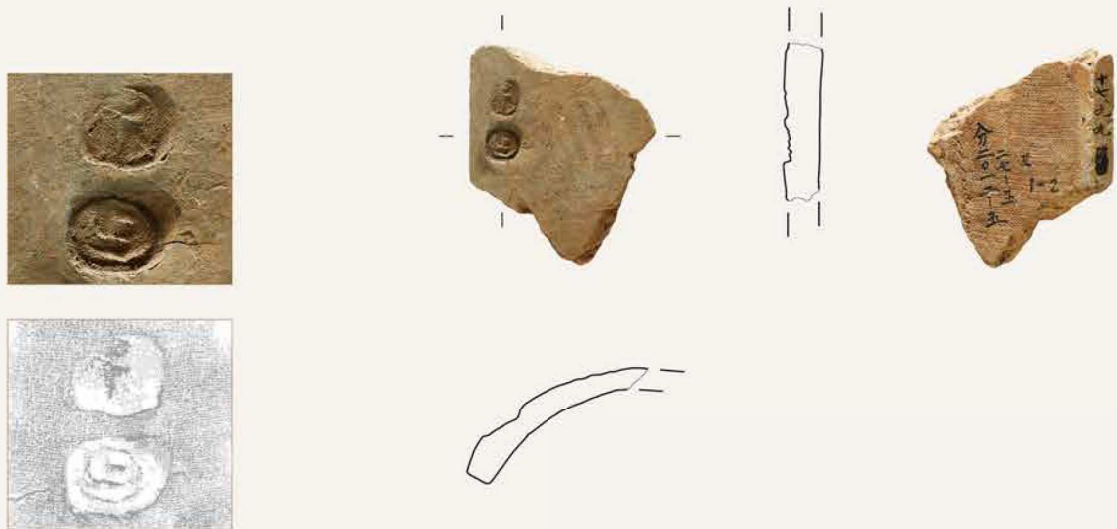
114



115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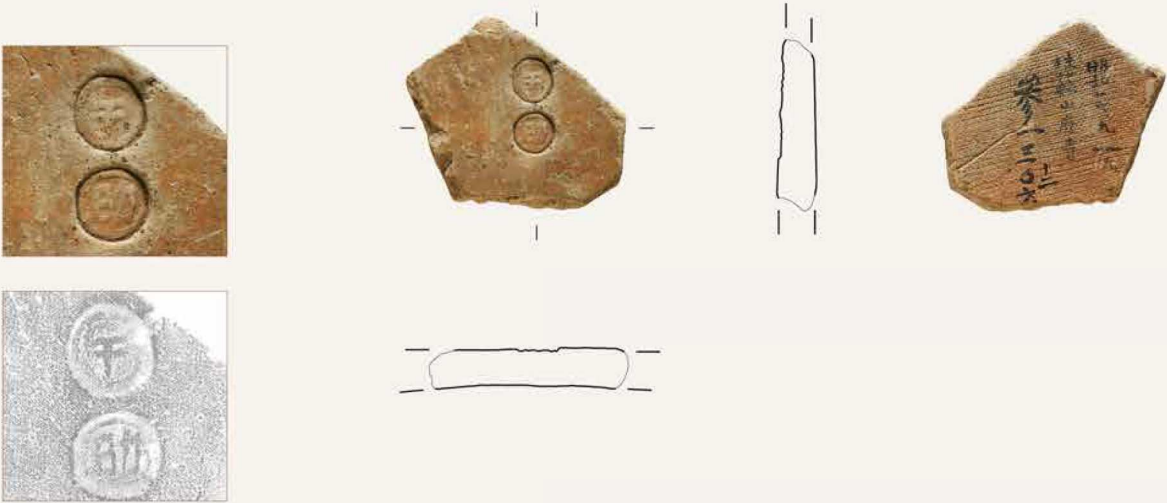
117



118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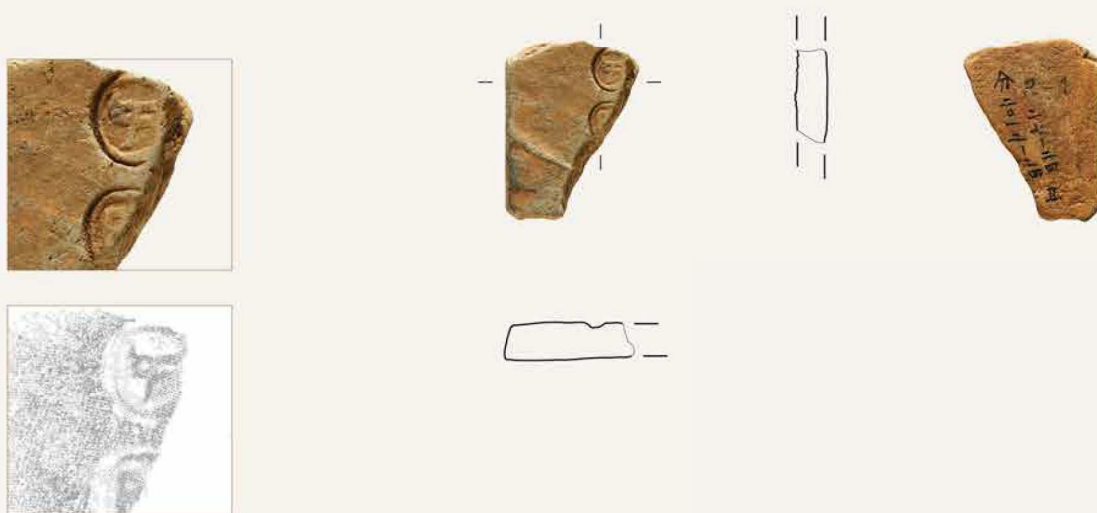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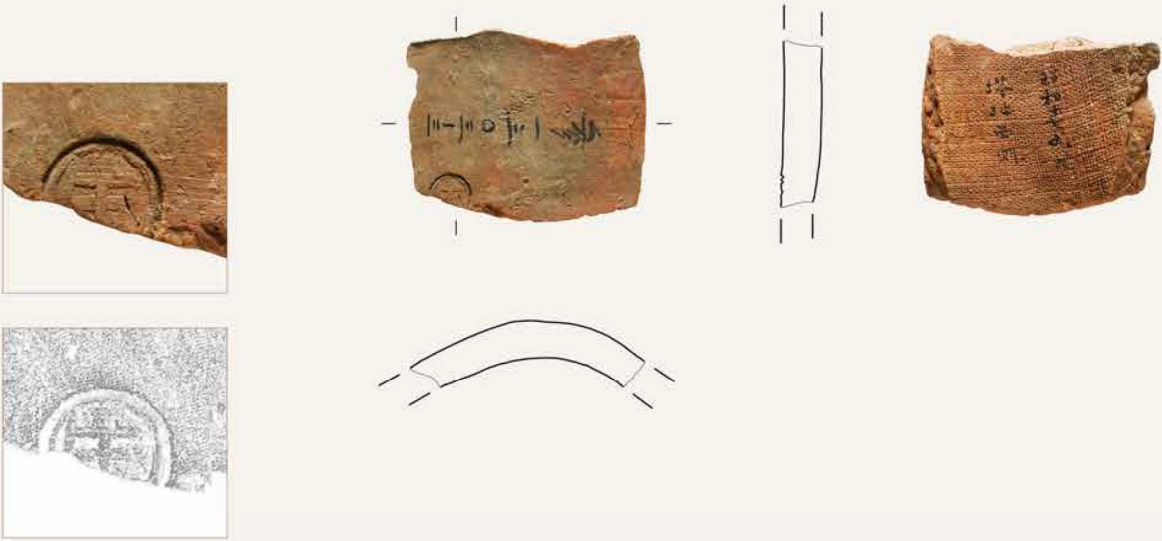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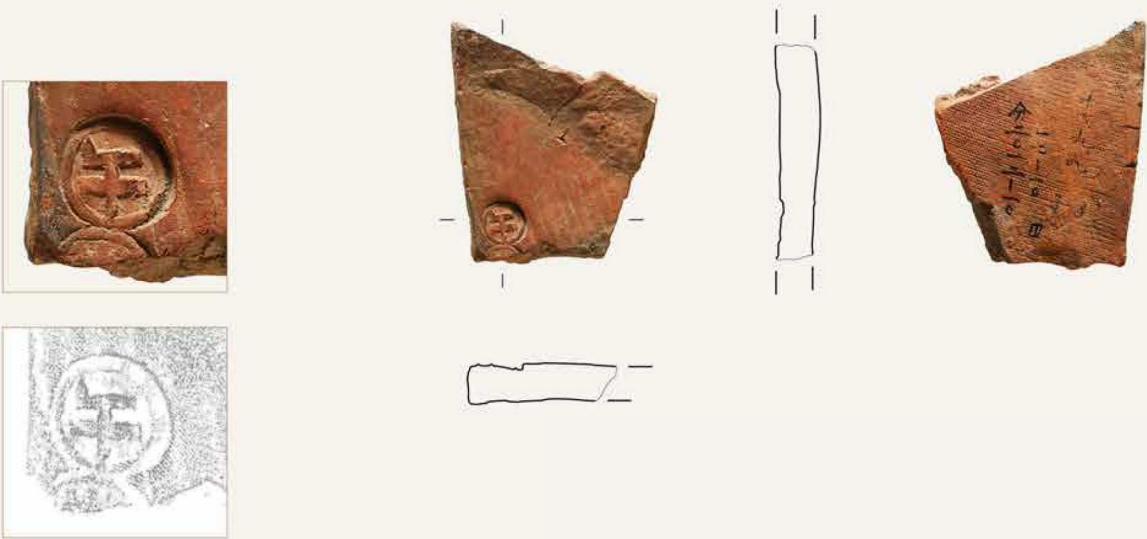
122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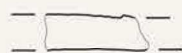
124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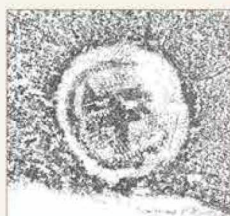
126



127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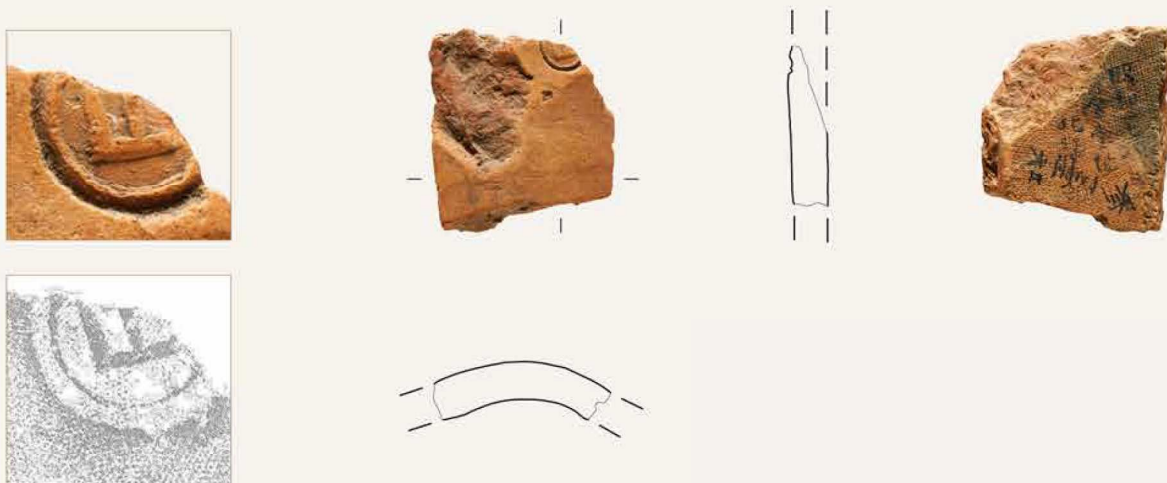
129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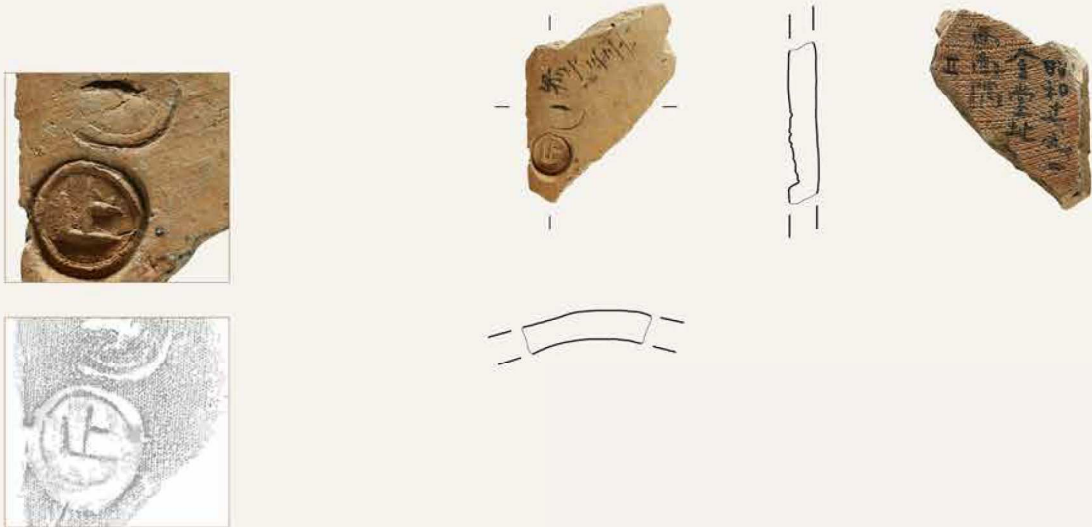
132



131



133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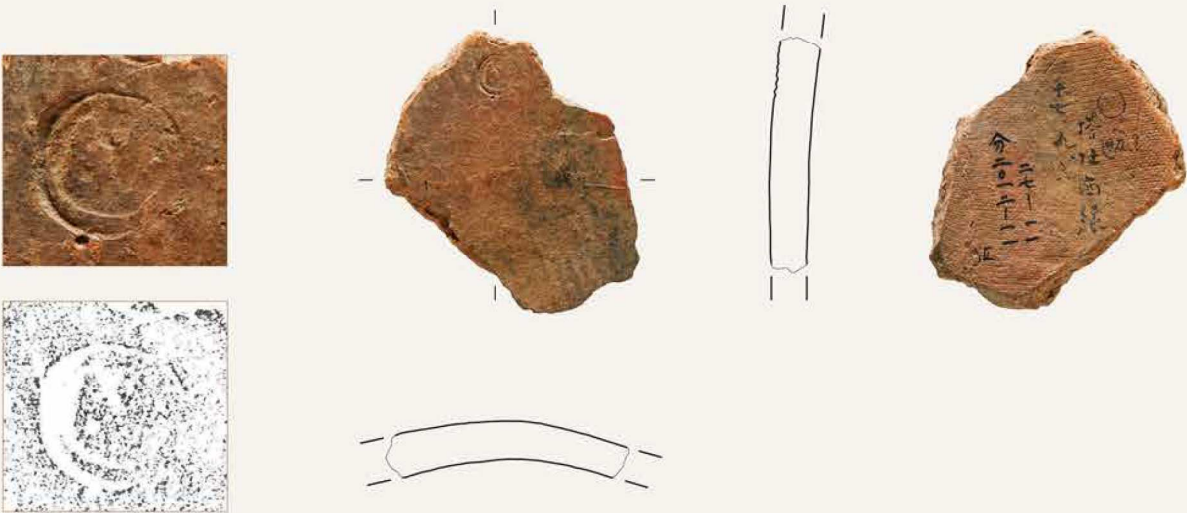
13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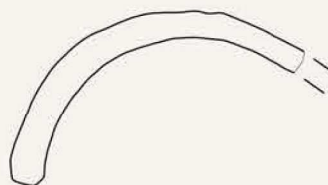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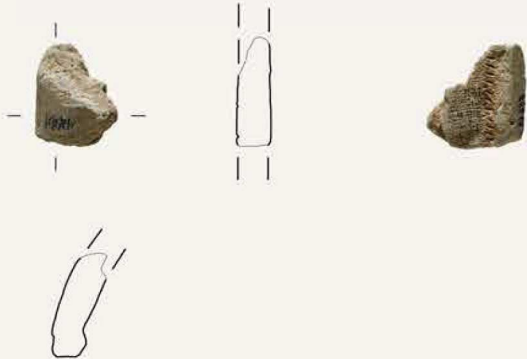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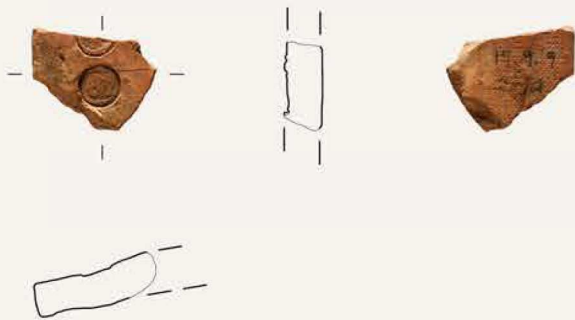
139



140



141



[도 91] 인장과 140-141

4) 치미

치미는 건축물 지붕의 용마루 양 끝을 장식하는 기와로,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특징적인 부재 중 하나이다. 부소산 사지뿐만 아니라 부여 능산리 사지와 왕흥사지, 익산 미륵사지에서 대형 치미 편이 출토되어 건축물의 위용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치미 편은 부소산 사지 출토품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8월 30일부터 금당지 주변, 탑지 북쪽 편을 비롯한 서회랑지와 중문 남쪽 등에서 출토되었다. 수량은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 따라 정리하면 약 464점 이상인데, [표 13] 현재 복원된 2점의 치미에 활용된 파편 수량을 제외하면 327점 가량이 남아 있으며, 대다수가 잔편이다. [도 96] 이 중 1942년 당시의 묵서명이 있는 파편은 16점이다. [도 92-95] 93

1978년 복원된 치미(부여1085)는 부소산 사지의 치미를 활용하였고, 94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치미를 복원하였다. 95 아울러 부소산에서 출토된 치미 편을 복원한 예 및 파편(부여4988) [도 93-94] 도 있다. [표 14] 96

다음에서는 치미 편 2점에 대한 묵서명, 길이·너비·두께, 색상·태토·소성도, 그리고 제작 기법 및 특징 순으로 속성표를 작성하고 [표 15] 이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수록하였다. [도 92]

93 일부 파편에는 '서복사지'라는 한글 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일부 부소산 사지 조사품의 한글 묵서명 예와 잔존한 다량의 치미 편을 감안할 때 이후 1942년 발굴 조사품에 대한 별도의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1978년에 완료된 치미 복원 작업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94 이 치미는 1975년 치미 편 분류를 시작으로 1976년 치미 복원이 착수되었고, 이후 1978년 3월에 복원을 마쳤다. 徐聲勳, 「百濟의 鷓尾 복원」, 『박물관신문』 제81호(1978); 복원한 치미에 대한 특징과 도면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1996), pp. 36~40; 치미 뒷면의 연화문은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 가운데 8월 31일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조사 시에 수습된 것으로 여겨진다.

95 2010년에 복원한 치미는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2016.11.29.~2017.1.30.)에 출품되었다.







96 복원된 및 파편은 부여4988로 관리되고 있으며, 부소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복원된 치미는 서복사지 [부소산 사지] 출토품으로 보고된 논고가 있어, 유물 등록 당시 부소산 내 출토 지역을 세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현 상태와 같이 복원된 시기도 불확실하다. 아울러 해당 논고에서 [도 94]는 부소산 사지 출토, [도 93]은 부소산 출토로 소개하였다. 徐聲勳, 「百濟鷓尾考」, 『考古美術』 제140·141호(1979.3.), pp. 12~15 참고; 복원된 치미는 '부소산' 특별전(2016.7.5.~2016.10.3.)에 출품된 바 있다.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2016), p. 48 도 36.

[표 13]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치미 편 출토 현황

일자	출토 위치	출토 현황	비고
8월 30일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트렌치	-	수량 미상
8월 31일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트렌치	2	1점은 소판 연화문을 표현한 등 부분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194	
		86	
9월 2일	동쪽 북부	21	
	금당 서쪽 가장자리 남부	5	
	서남쪽 모서리	37	
9월 3일	동쪽 북부	21	
	남쪽 서부	5	
9월 4일	금당 남쪽 가장자리 동부	32	
9월 5일	금당지	4	
	탑지 서쪽 북부	2	
9월 9일	탑지 북쪽 동부	2	
9월 15일	서회랑	12	
		25	
	금당지 북쪽 가장자리 서부	-	치미 큰 편 소판 연화문이 표현된 것
9월 16일	중문지 남쪽	1	
9월 17일	서회랑	14	치미 큰 편 등
9월 20일	중문 남쪽	1	
계		약 464점 이상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표 14] 부소산 사지 및 부소산 출토 치미 복원품

대상	높이	측면	뒷면
1978년 복원 (부여1085)	90cm		
2010년 복원	91cm		
부여4988	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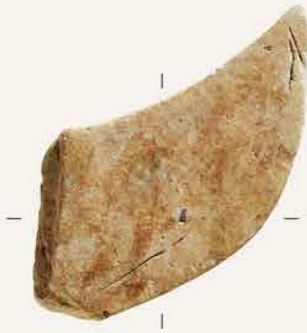
[표 15] 치미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명칭	문서명		길이	너비	두께	색상	태토	소성도	제작기법 및 특징	비고
			일자	출토지								
142	자료320	날개 깃 편	十七.九.三	北東隅	(19.3)	(10.4)	3.0	회백색 (5Y 7/2)	니질	연질(상)	치미의 날개 깃 편으로 부여4988의 복원 후 잔편으로 추정된다. 뒷날개 장식이 서로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졌으며, 각 날개 이용 부분에서 날카롭게 깎기 정면 흔이 보이고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뒷면에 0.2cm 정도의 가는 패인 선이 존재한다. 각 날개가 나누어지는 지점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143	자료322	날개 깃 편	〇〇十 七.九.〇〇	西廊北端	(13.2)	(11.8)	2.3	천황색 (2.5Y 7/4)	니질	연질(상)	치미의 날개 깃 편으로 부여1085의 복원 후 잔편으로 추정된다. 정면과 측면이 물손질로 정면되어 있다.	

142



143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도 93] 부소산 출토 치미 편(부여4988)



[도 94] 부소산 출토 치미 편(부여4988)



연번	날짜	목서명	연번	날짜	목서명
1	十七.九.九	塔北	7	十七.九.十六	西廊北錄
2	十七.九.九	塔北	8	十七.九.二	○南隅
3	十七.九.六	塔址西錄	9	十七.九.二	西○隅金堂址
4	十七.〇.〇	西廊北錄	10	昭和 十七.九.五	塔址 西側北部
5	十七.九.十六	中門址	11	昭和 十七.九.五	金堂
6	十七.九.五	金堂	12	昭和 十七.九.十六	西廊北端

[도 95] 치미 편



[도 96] 지미편

5) 마루끝장식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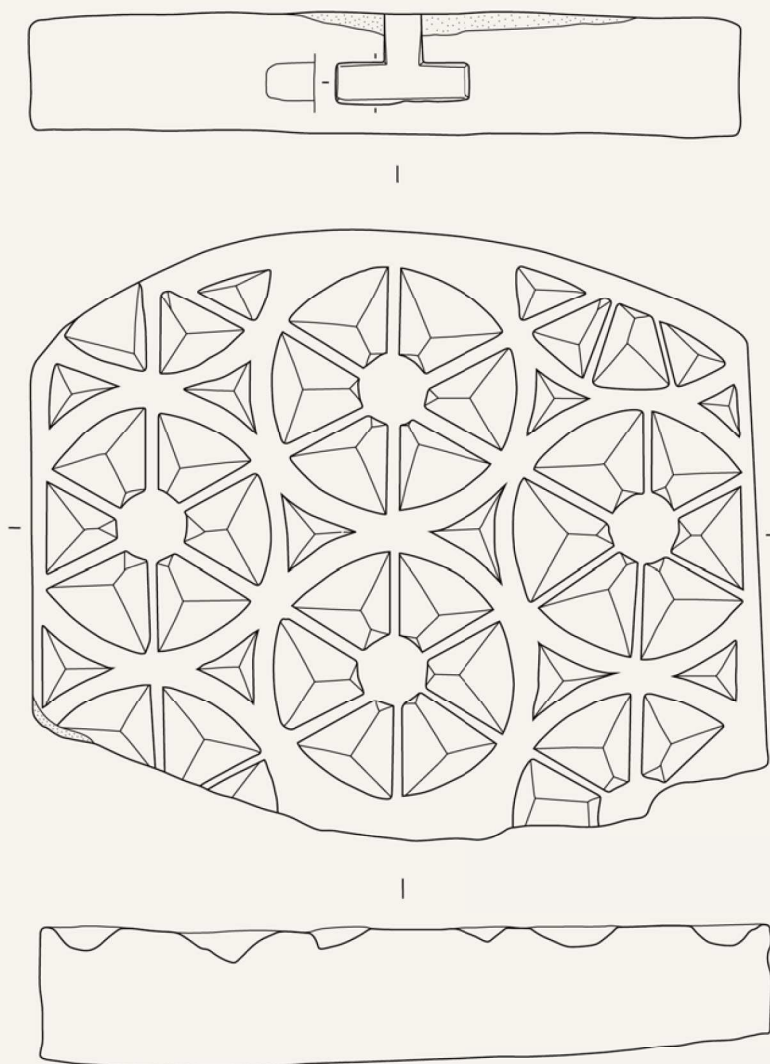
건축물 지붕의 마루를 장식한 석제 기와로 추정되며, 현재 부여71로 등록되어 있다. '동단식와棟段飾瓦'로도 알려져 있다. 상단은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되었고, 측면과 하단은 방형⁹⁷을 갖추었다. 앞면은 원 안에 6개의 빗살이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깊게 조각된 형태이며, 연속적으로 무늬가 장식되었다. 뒷면은 전체적으로 표면을 불규칙하게 다듬은 흔적이 나 있다. 상단의 중앙에 'T'자 형의 홈이 나 있고, 하단 오른쪽에도 고정을 위한 구멍이 나 있다.^{[표 16] [도 97-98] 97} 1942년 발굴 조사 시 8월 30일 금당 북쪽 기단 끝에서 출토한 것으로 금당 지붕을 장식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여 용정리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마루끝장식기와가 출토되었다.⁹⁸

[표 16] 마루끝장식기와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길이	너비	두께	문양면		상단홈				하단홈		재질	비고
					내원 지름	외원 지름	길이	너비	돌출 길이	돌출 너비	길이	너비		
144	부여71	29.3	35	5.3	12.3	13.9	1.7	6.5	1	2	1.6	10	석재	

⁹⁷ 상단의 'T'자 형 홈에 부소산 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丁'자형 철심을 결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申光燮, 앞의 보고서(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p. 46.

⁹⁸ 공주 송산리(현 금성동), 부여 쌍북리 건물지, 그리고 일본 호류지法隆寺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申光燮, 앞의 보고서(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p. 44.





6) 전

1942년 발굴조사 시에 출토된 것으로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소산 사지에서 나온 것으로 목서명이 남아 있는 문양전^{文樣塼}(무늬벽돌) 파편 1점(부여1140)이 있다.[표 17] [도 100] 부여 규암면 외리 사지에서 출토된 <연꽃구름무늬 벽돌^{蓮花渦雲文塼}>(부여222)[도 99]과 비슷한 무늬가 일부 남아 있는데,⁹⁹ 이보다 재질이 무르고 색상도 옅은 편이다.

그밖에 이후 부소산 사지에서 수습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늬 없는 석제 전 4점(부여2018)이 있다.[도 101-102]

[표 17] 문양전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목서명		길이	너비	두께	문양	색상	태토	소성도	비고
		날짜	출토지								
145	부여1140	-	扶蘇○○寺	(7.5)	(7.8)	3.8	운문	회백색 (5Y 8/1)	니질+사질혼입	연질	



[도 99] 부여 외리사지 연꽃구름무늬 벽돌

[도 99]의 세부

⁹⁹ 이와 관련해서 왕실 사찰인 왕흥사지^{王興寺址}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연화문전^{蓮花文塼} 파편(부여276)도 알려져 있는데, 2017년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백제百濟 왕흥사-정유년丁酉年에 창왕昌王을 다시 만나다'(2017.7.18.~10.9.)에 출품되었다. 왕실 사찰 건축물과 이와 같은 문양전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도 100] 문양전편 145



[도 101] 전편



[도 102] 전편

2. 소조상

소조상은 흙으로 만든 다양한 인물상·동물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찰 시설의 내부를 장식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 부소산 사지에서는 이와 같은 소조상 편들이 확인되었는데,¹⁰⁰ 현존하는 수량은 약 94점이며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도 소조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표 18]

인물의 머리, 옷 주름이 남아 있는 몸체, 코끼리 머리^[원색도판 7] 등으로, 소조상 편 일부에 구멍이 남아 있어 신체를 부위별로 만들고 나무 재질의 심을 연결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성형이 완성되면 소성,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¹⁰¹

이와 관련하여 부소산 사지 벽체 편 사이에 금박이 확인되었는데, 부소산 사지 소조상의 경우 발굴 당시에는 “風貌端麗한 소조불상에 金泥를 塗抹한 것처럼, 곳곳에 금색의 殘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여¹⁰² 소조상에도 금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소산 사지 소조상의 제작 시기는 1980년 발굴조사에서 목탑지 심초석으로부터 동남쪽 1.5m 지점에서 출토된 금동제과대(당식대금구^{唐式帶金具})의 연대를 기준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¹⁰³

이처럼 백제 사비시기 사찰을 장엄한 소조상은 사찰지뿐만 아니라 생산 유적 등지에서 출토되었는데, 부소산 사지를 비롯하여 부여 금강사지·정림사지·능산리 사지·구아리 사지·구교리 사지·임강사지, 청양 왕진리 요지·본의리 요지, 익산 제석사지 폐기장 유적·미륵사지·왕궁리 유적 등지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형상이 남아 있는 20점을 대상으로, 목서명, 높이·너비·두께, 색상, 태토, 소성도, 특징을 속성표로 정리하고,^[표 19] 사진과 도면을 수록하였다.^[도 103-106] ¹⁰⁴

[표 18]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소조상 출토 현황

일자	출토 위치	출토 현황	비고
9월 5일	남쪽 건물지	소조상 편	
9월 8일	탑지 북쪽 기장자리 서부	완형의 소상불 머리 부분(塑像佛頭)	
9월 9일	탑지 북쪽 동부	소조상 무릎 부분 및 옷 부분	
		니상泥像 편 8점	
9월 16일	탑지	소조상 편 3점	

¹⁰⁰ 부소산 사지는 백제 고도에서 최초로 소조상이 출토된 유적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호류지法隆寺 목탑과 같이 목탑의 내부를 장엄하던 탑내소상塔內塑像(탑본소상塔本塑像)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병호, 「百濟 泗沘時期 塑造像의 展開過程」, 『東垣學術論文集』第14輯(國立中央博物館·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13), p. 325 재인용; 杉三郎, 앞의 글(寶雲社, 1943); 輕部慈恩, 「扶蘇山南側中腹廢寺址出土の塑像」, 『百濟美術』(寶雲社, 1946).

¹⁰¹ 불보상편으로 여겨지는 2점을 동범품으로 추정하면서 부소산 사지 소조상은 심목을 사용하였고, 두체별제식, 저화도 소성, 채색흔이 확인되며, 성형 시 범발范拔인지 수닐법手捏法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동범품의 존재로 보아 두 방식이 병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병호, 앞의 논문(國立中央博物館·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13), p. 346.

¹⁰² 이병호, 앞의 논문(國立中央博物館·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13), p. 351 재인용; 杉三郎, 앞의 글(寶雲社, 1943), p. 87.

¹⁰³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38년(637)조에 당 태종이 백제 사신에게 금포錦袍와 채백彩帛 3000단을 주었다는 기록에 주목하여 당식대금구와 이당나라 복식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梁銀景, 앞의 논문(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10), pp. 90~9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화문수막새의 상대편년을 감안하여 637년 이후인 7세기 중엽 이후에 소조상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병호, 앞의 논문(國立中央博物館·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13), pp. 346~347.

¹⁰⁴ 이 밖에 소조상 잔편에 대한 사진[도 107-108]을 게재하였다.

[표 19] 소조상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목서명		높이	너비	두께	색상	태토	소성도	특징	비고
		일자	출토지								
146	부여 282	-	-	(5.0)	3.6	(3.0)	명갈색 (7.5Y 5/8)	니질	연질(하)	인물상으로 크기는 소형이다. 중앙의 가르마가 선명하게 보이며, 눈·코·입이 도통하게 표현되어 있고, 왼쪽 귀만 남아 있다. 정수리부터 목에는 0.8cm 정도 되는 방형의 심목 흔적이 있다. 흰색으로 된 채색흔이 소조상 전면에 있다.	
147	부여 282	-	-	(5.7)	(2.2)	(3.4)	명적갈색 (5YR 5/8)	니질	연질(하)	인물상 머리의 왼쪽 편이다. 얼굴은 왼쪽 눈과 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으며, 뒷목도 일부 남아 있다. 흰색으로 된 채색흔도 남아 있다. 머리 중앙에 방형의 심목흔이 있는데, 정수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이다.	
148	부여 282	-	-	(4.6)	(3.2)	(2.6)	등색 (7.5YR 6/6)	니질	연질(하)	인물상의 머리 편 일부이다. 코 아래부분만 남아 있다. 코는 마모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양감이 있다. 흑색으로 된 채색흔이 존재한다.	
149	부여 282	-	-	(2.5)	1.65	(1.4)	황등색 (10YR 8/6)	니질	연질(하)	인물상의 머리 편이며 소형이다. 마모가 되어 이목구비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힘드나, 양쪽 귀와 입, 코 위치는 파악할 수 있다. 머리 뒷부분은 편평하다.	
150	부여 282	-	-	(4.5)	(6.0)	(2.9)	등색 (7.5YR 6/6)	니질	연질(하)	인물상의 상반신 편으로 옷자락으로 추정된다. 손빛기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편평한 면에 음각선으로 옷자락을 표현하였다. 옷자락에서 백색의 채색이 확인된다. 뒷면에는 심목흔이 남아 있다.	
151	부여 282	-	-	(9.9)	(3.9)	(2.4)	등색 (5YR 7/8)	니질	연질(하)	옷자락(소매) 편으로 추정된다. 옷주름이 양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백색과 흑색의 채색흔이 관찰된다.	
152	부여 283 (2-2)	-	-	(5.6)	(5.1)	3.9	등색 (5YR 6/8)	니질	연질(하)	상반신으로 오른쪽 어깨가 남아 있다. 소형에 해당하며 음각선으로 옷자락을 표현하였다. 뒷면에 심목흔이 확인된다.	
153	자료 318	-	-	(8.0)	(6.7)	(2.6)	등색 (5YR 6/8)	니질	연질(하)	옷자락 편으로 추정된다. 흑색으로 채색된 부분이 있으며, 자연유가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한 단 아래 옷자락 편에서는 채색흔도 보이고 있다. 154와 동일한 편으로 추정되나 접합은 되지 않는다.	
154	자료 318	-	-	(6.6)	(6.6)	(1.6)	등색 (5YR 6/8)	니질	연질(하)	옷자락 편으로 추정된다. 흑색으로 채색된 부분과 자연유가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한 단 아래 옷자락 편에서 약간의 채색흔이 보이고 있다. 153과 동일한 편으로 추정되나 접합은 되지 않는다.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연번	등록번호	도서명		높이	너비	두께	색상	태토	소성도	특징	비고
		일자	출토지								
155	자료 324	-	-	(4.6)	(3.1)	(1.5)	등색 (7.5YR 6/8)	니질 + 세사립	연질(하)	옷자락 편으로 추정된다. 옷을 여민 끈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듯한 옷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백색의 채색흔이 관찰된다.	
156	자료 324	十七. 九.〇	塔〇	(4.5)	(5.2)	(1.7)	명갈색 (7.5Y 5/8)	니질	연질(하)	상반신 편의 허리 부분으로 추정된다. 허리를 동어맨 옷자락은 결실되었고 그 밑으로 볼록하게 나와 내려가면서 앙감이 표현되었다. 옷자락은 음각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손빛기로 제작되었다.	
157	자료 324	-	-	(8.4)	(5.6)	(2.4)	등색 (5YR 6/8)	니질	연질(하)	하반신 옷자락 편으로 추정된다. 옷자락은 외곽선으로 표현하였고, 백색의 채색이 확인된다. 손빛기로 제작되었다.	
158	자료 324	十七. 九.八	-	(4.7)	(3.0)	(1.7)	등색 (7.5YR 6/8)	니질	연질(하)	소매 끝부분 옷자락 편으로 추정된다. 백색의 채색흔이 관찰된다.	
159	자료 324	-	-	(2.7)	1.8	1.3	명갈색 (7.5Y 5/8)	니질	연질(하)	-	
160	부여 282	-	-	(5.2)	(5.8)	(3.2)	등색 (5YR 6/8)	니질	연질(하)	하체 편으로 추정된다. 오른쪽 무릎과 옷자락 편이 남아 있다.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이며 무릎 위로 옷자락이 묘사되어 있다. 흰색의 칠 흔적이 관찰된다.	
161	부여 282	-	-	(3.8)	(4.1)	(1.3)	황등색 (7.5YR 7/8)	니질	연질(하)	하체 편으로 추정된다. 무릎과 옷자락 일부가 남아 있다. 옷자락은 편평한 면에 음각선으로 표현하였다.	
162	자료 324	〇〇九. 〇	〇北	(3.4)	4.1	(2.9)	등색 (5YR 6/8)	니질+ 세사립	연질(하)	왼쪽 무릎 편으로 추정된다.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며, 허벅지 쪽에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흑색의 채색흔이 관찰된다.	
163	자료 320	-	-	(6.9)	(3.6)	(2.4)	명황갈색 (10YR 6/6)	니질	연질(하)	옷자락 편으로 추정되며 음각선으로 표현하였다. 뒷면에는 심목흔이 관찰되며 옷자락에 백색의 채색흔이 확인된다.	
164	자료 324	-	-	(2.2)	2.5	0.9	등색 (7.5YR 6/8)	니질	연질(하)	소조상의 장식 편으로 추정된다. 원형에 낮은 원뿔 모양으로 아래쪽은 방사상으로 음각 장식이 있다. 백색의 채색흔이 관찰된다.	
165	부여 283 (2-1)	-	-	(6.8)	4.2	(3.9)	황색 (7.5Y 6/8)	니질	연질(하)	코끼리 상으로 머리 부분이 잔존한다. 오른쪽 눈의 1/2정도가 결실되었다. 상아 부분에 0.4cm 정도의 방형 구멍이 있어 상아를 따로 꿰기 위한 자리로 추정된다. 목 부분에는 0.7cm 정도의 방형 구멍이 있다. 정수리 쪽 구멍은 타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심목이 정수리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흰색의 채색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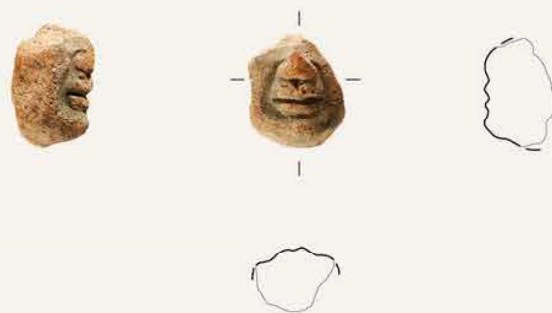
146



147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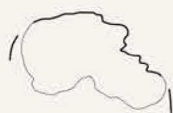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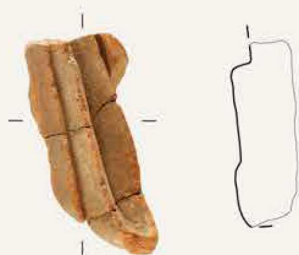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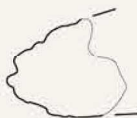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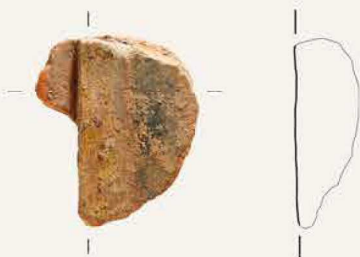
151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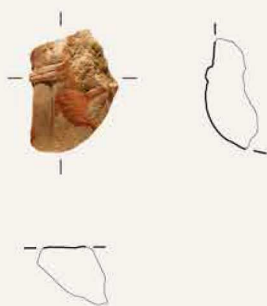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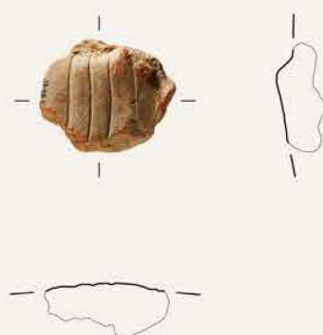
154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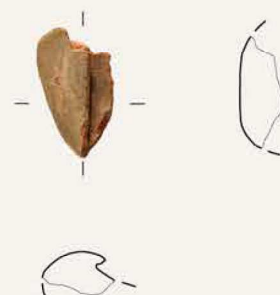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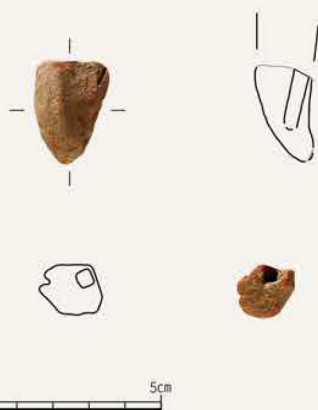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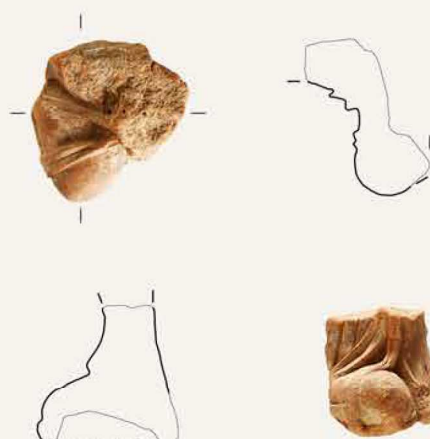
158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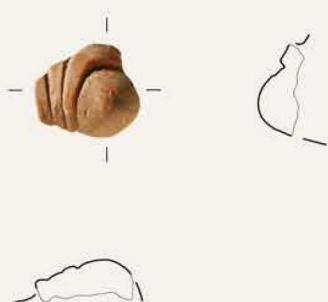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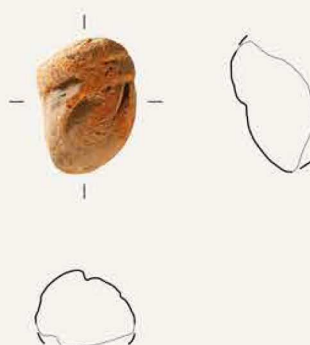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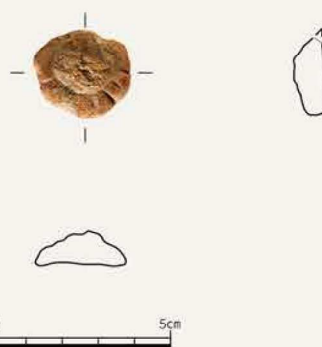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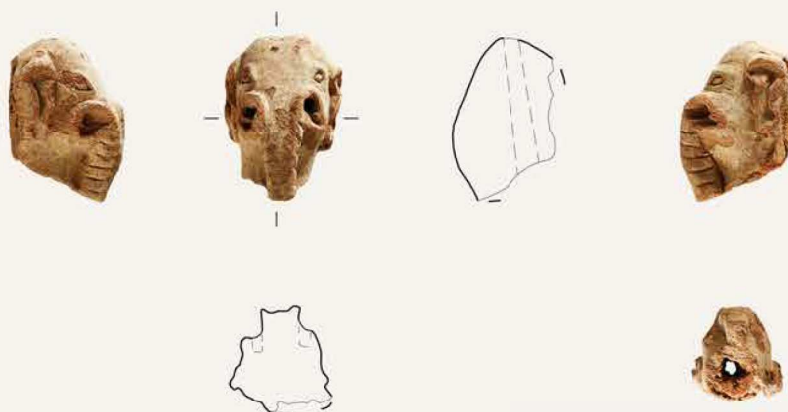
163



164



165





[도 107] 소조상 편



[도 108] 소조상 편

3. 벽화 편 및 벽체 편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벽화 편 및 벽체 편은 현재 약 144개체가 남아 있는데, 벽화 편으로 여겨지는 예는 13개 체이고, 벽체 편은 131개체이다.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에는 이에 대한 출토지 및 출토 현황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정확한 수량은 다루지 않았다.^[표 20]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는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금당지에서 여러 벽화 조각들, 혹은 벽 편들이 확인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하얀 바탕에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그림이 남아 있었고, 9월 3일에는 새가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벽화 편도 출토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벽화 편을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 분관에 전시하기도 하였다.

9월 8일 탐지에서 불을 맞아 녹은 벽화 편을 비롯하여 탐지 주변에서도 벽체 편과 벽화 편이 출토되어 목탑 내부도 벽화 장식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불을 맞아 녹은 벽화 편은 어떤 경위인지 불확실하나 화재로 손실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후지사와 가즈오는 9월 10일에서 9월 11일 사이 수습한 벽화 등을 세척하여 관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불꽃을 그린 듯한 벽화를 확인하기도 하였다.¹⁰⁵

부소산 사지의 벽화 편 및 벽체 편은 대개 외면에 백색 바탕칠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벽화의 그림은 2가지 정도의 안료를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존 상태는 흑색이나 적색을 띤다. 부소산 사지의 벽화 편에 대한 X선형광분 석기XRF 분석에 따르면, 바탕의 백색은 연백鉛白(납), 적색은 석간주石間朱(철)이나 진사, 흑색은 구리나 망간 성분이 확인되었다.¹⁰⁶ 아울러 벽체 편 가운데 일부 금박이 섞여 있는 예도 확인된다.^{[도 114] 107}

한편 벽체 편에 소조상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예도 있어^[도 115] 벽화를 배경으로 하거나 벽체의 일부에 소조상을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사찰 건물의 벽면을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개 사찰 벽화는 불교 설화를 중심으로 장식했을 것이며,¹⁰⁸ 부소산 사지 외에도 부여 임강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에서 벽화 편이 확인되었고, 이는 일본 호류지法隆寺 벽화와 같이 고대 동아시아 사찰 벽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¹⁰⁹

본 보고서에는 벽화 편 4개체에 대한 길이·너비·두께의 속성표를 정리하여^[표 21] 이에 대한 사진을 수록하였고,^{[도 109-110] 110} 기타 벽화 및 벽체의 잔편에 대한 사진도 함께 실었다.^[도 111-113]

105 여러 벽화 편 가운데 후지사와가 확인한 불꽃을 그린 것으로 여겨지는 파편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106 국립부여박물관, 『百濟色』(2015), pp. 15~16; 흑색 부분에 구리Cu가 검출되어 녹색 또는 청색 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나, 화재나 오랜 시간 매장되었던 주변 환경에 의해 흑색으로 변색된 것으로 보인다.

107 금박이 남아 있는 벽체 편은 다른 흰색 안료 바탕의 벽화나 벽체 편과 외관상 색깔, 상태 등이 다르게 보인다. 벽체 사이에 잔존한 금박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정림사지의 경우 소조상에 금Au이 검출되어 채색 안료로 사용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洛陽博物館, 『고대안료-백제 정림사지와 북위 영녕사지 안료 중심으로』(2015), pp. 18~19, pp. 26~27, p. 62, p. 69.

108 후지사와 가즈오는 벽화 가운데 그림의 소재를 새, 불꽃 등으로 보았으나 정확하게 그 대상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유사한 형상을 언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벽화 잔편도 크기가 작거나 벽화의 표면 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묘사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109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벽화벽체 편이 3겹으로 성형, 제작되었고, 이러한 제작 기법은 임강사지, 제석사지의 백제 벽화 벽체, 중국 영녕사지의 남북조시대 예와 유사한 것으로 논구된 바 있다. 梁銀景, 앞의 논문(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10), p. 98.

110 벽화 편 및 벽체 편 잔존 크기에 대한 속성표는 벽화의 그림 상태가 다소 양호한 [도 109], [도 110]으로 정리하였다. 벽화 편 및 벽체 편은 상태 보존을 위해 뒷면 일부를 보강하거나 파편의 특성상 전체 벽면의 일부라는 점에서 도면을 생각하고 사진만을 수록하였다.

[표 20]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벽화 편 및 벽체 편 출토 현황

일자	출토 위치	출토 현황	비고
9월 1일	금당 서쪽 가장자리 북부	작은 편으로 하얀 바탕에 붉은색과 검은색 그림이 있음	
	금당 북쪽 가장자리 동부	벽 편으로 그림은 없음	
	중앙 계단 부분	작은 벽화 편 계속 나옴	
9월 2일	북쪽 가장자리 트렌치	하얀 바탕에 붉은색의 선이 남아 있는 벽화 편	
9월 3일	동쪽 가장자리 트렌치	벽 편이 많이 나옴	
		새가 그려진 벽화 편	요네다 씨 발굴
	남쪽 가장자리 트렌치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그려진 벽화 작은 편	
9월 4일	동쪽 가장자리 트렌치	기와층 안 벽 편 포함	
		벽화 큰 편	최 근 발굴
	남쪽 가장자리 트렌치	벽화 편	중앙 계단지 서쪽
9월 5일	금당 동쪽 가장자리	벽 편 나옴	박물관에 가서 벽화 편을 진열함
9월 8일	탑지 북쪽 서반부	녹은 벽화 편	
9월 9일	탑지 북쪽 동부	벽 편	
	탑지 남쪽 계단지	벽화 편 1점	
9월 11일	-	불꽃을 그린 벽화 확인	요네다 씨가 벽화를 씻음
			아마노 군은 벽화를 본떠서 그림
9월 15일	금당지 북쪽 가장자리 서부	벽 편이 많이 나옴. 그림 흔적이 있는 1점	

[표 21] 벽화 편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명칭	길이	너비	두께	비고
166	부여 281	벽화 편	24.2	23	7.4	1942년 9월 3일 요네다 미요지가 발굴한 것으로 추정
167	부여 281	벽화 편	20.2	15.7	7.8	
168	부여 281	벽화 편	23.1	16	14.5	
169	부여 281	벽화 편	13.3	10.5	2.6	

166



167



168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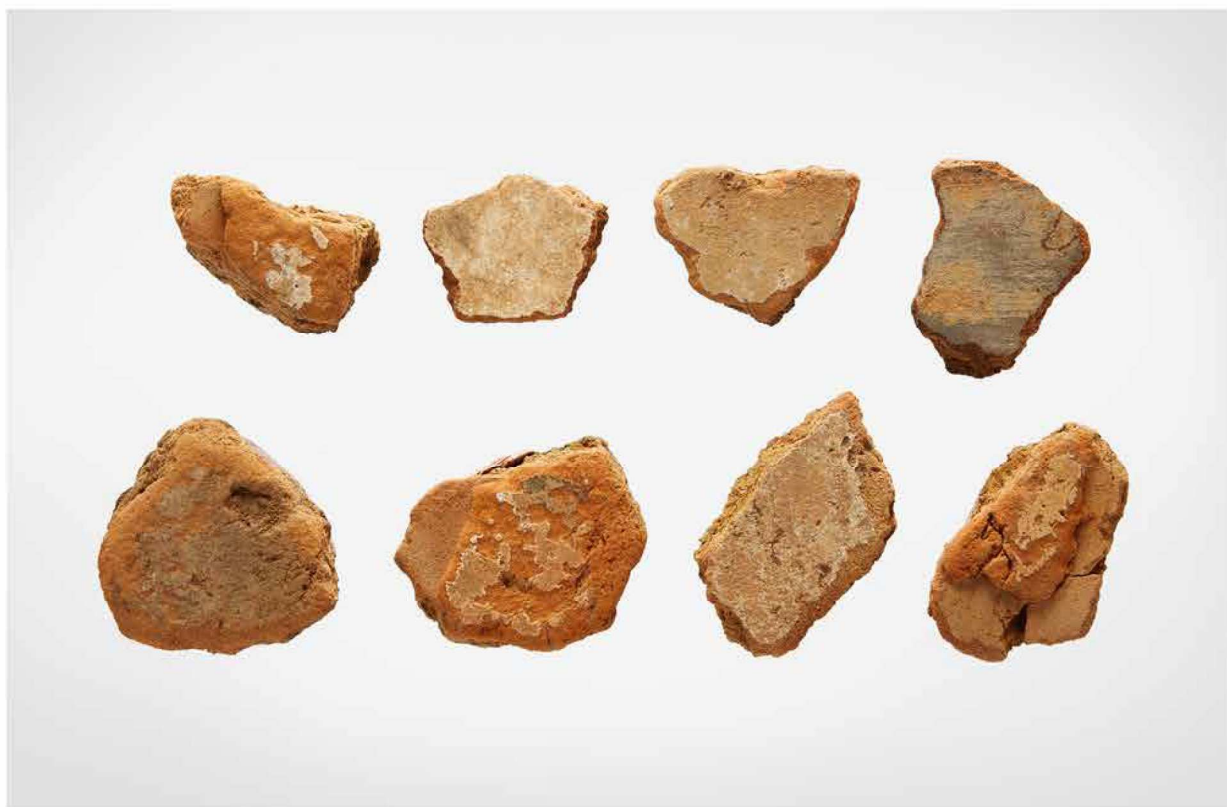




[도 111] 벽화편



[도 112] 벽화편



[도 113] 벽화편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전면



측면

4. 토기

1942년 후지사와 가즈오의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부소산 사지 일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현존 수량은 총 36점이다.^[표 23] 이 가운데 6점은 토기 뒷면에 조사 당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명과 날짜 등이 있는데, ‘금당金堂’이나 ‘중문中門’ 등이 적혀 있어 사찰 건물터에서 발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기된 날짜가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의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 일자와 일치하고 있어 1942년 8~9월 후지사와 가즈오가 발굴조사에서 발견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표 22]¹¹¹ 그 외의 토기는 부소산 사지 일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출토 위치와 날짜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 알 수 없다.¹¹²

1942년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와 그 일대에서 발견된 토기는 백제 토기 22점, 통일신라 토기 1점, 고려 토기 13점이다. 백제 토기는 기형과 용도 등에 따라 완 2점, 대부완 1점, 전달린토기 1점, 뚜껑 5점, 접시 1점, 병형토기 1점, 동체부 편 7점, 저부 편 2점, 파수 1점, 등잔 1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완은 음식 등을 담아 먹는 대표적인 배식기로, 부소산 사지에서 2점^[170-171]이 발견되었다. 공통적으로 백제 사비시기에 다수 확인되는 높이가 낮고 바닥이 둥근 형태의 완이다. 굽이 달린 대부완^[172]은 1점이 확인되었다. 부소산 사지 출토품은 사비시기 일반적인 대부완에 비해 경도가 높고 기벽의 두께가 두꺼우며, 굽 역시 비교적 높고 두껍다.

전달린토기는 백제 사비시기의 대표적인 토기 기종 가운데 하나로 왕실 혹은 상류 계층의 음식 문화와 관련 있는 토기로 이해된다. 완 형태의 몸체 상단에 손잡이 모양의 전이 2개 혹은 3개가 달린 특이한 형태로 완의 구연부 아래에 전을 돌린 후 그 일부를 다시 잘라 내어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여 지역에서는 2개의 전이 부착된 전달린토기가 확인되며, 익산 지역에서는 3개의 전이 부착된 것도 발견된다. 부소산 사지에서 발견된 전달린 토기^[173] 역시 다른 부여 지역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본래 양쪽에 2개의 전이 부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전을 떼 것처럼 몸체는 온전하고 전 부분만 훼손된 상태이다. 이 전달린토기의 대각은 비교적 높고 두꺼우며, 몸체 역시 전체적으로 기벽이 두껍고 경도가 높다. 굽의 안쪽은 굽과 몸체의 바닥면이 살짝 분리되어 있는데, 본래 몸체를 만든 후 별도로 굽 부분을 부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뚜껑은 일반적으로 배류, 완류, 호류 등과 함께 사용된다. 뚜껑은 손잡이 유무에 따라 유뉴형과 무뉴형으로 구분되며, 유뉴형은 다시 손잡이 형태에 따라 세분된다. 부소산 사지 출토 뚜껑 가운데 1점에서만 보주형의 손잡이가 확인된다. 보주형 손잡이가 달린 뚜껑은 한성시기에 유행하다가 사비시기에 들어 다시 등장하는데, 주로 사비기 대부완에 사용되었다. 다른 4점 가운데 2점은 본래 손잡이가 부착되지 않은 무뉴형이며, 나머지 2점은 일부만 남아 있어 손잡이의 부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174-178]

부소산 사지에서는 백제의 접시 편^[179]도 1점이 발견되었다. 대각의 너비에 비해 접시부의 크기가 작은 것이

¹¹¹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에는 토기의 상태, 기종, 시대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목서명이 표시된 일부 토기를 제외하면 토기의 출토 기록과 현존 상황이 부합하지는 않는다.

¹¹² 토기에 ‘서복사지’라고 한글로 쓰여 있어 1942년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토기인지는 불분명하나, 일제강점기 조사품에 대하여 이후 별도의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 함께 수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징이다. 접시부의 외면에는 거칠게 회전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병은 몸체에 비해 목과 구연부가 현저하게 좁아서 액체를 저장하고 이동하기에 편리한 기종으로, 백제 토기 가운데 이러한 병 모양과 유사한 종류를 병형토기라 한다.¹¹³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병형토기^[180]는 구연부와 경부, 동체 상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형의 저장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둥근 동체 상부 위로 좁고 짧은 목이 연결되며 구연부는 짧게 외반한다.

이외에도 7편의 크고 작은 토기의 동체부 편^[181-187]이 발견되었다. 동체부 편^[181-187]의 크기와 형태, 두께, 경도 등을 보았을 때, 대부분 대형 저장용 용이나 호의 일부로 판단된다. 대부분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일부 횡선이나 파상문이 시문된 것도 확인된다.

파수^[190]는 띠 모양의 대상파수帶狀把手 편으로 파수 일부 및 파수와 동체부를 접합할 때 보강했던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파수는 일반적으로 몸체에 부착한 후 부착 부위를 보강하게 되는데, 파수의 잔존 상태가 이러한 파수의 부착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상파수는 주로 자배기 혹은 저장용기 등에 부착되었다.

등잔은 내부에 기름을 담아 심지를 이용하여 불을 밝히는 용기로, 사찰터와 건물터 등 백제 사비시기의 생활 유적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 등잔은 경질토기로 제작된 예가 매우 드문데, 부소산 사지 출토품^[191] 역시 회색의 연질토기이다. 등잔은 내부에 축의 유무와 심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의 유무, 손잡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분된다. 부소산 사지 출토품의 경우 편 일부만 확인되어 축과 심지 담는 공간의 유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ㄱ’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형태의 등잔은 부소산 자락의 관북리 백제 추정 왕궁지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등잔의 뒷면에는 출토 위치를 표시한 ‘扶蘇○○寺 金堂址 ○北隅辺’이라는 목서가 있어 금당에서 사용했던 등잔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토기는 주름무늬병^[192] 1점이 발견되었다. 주름무늬병은 남북국시대 후반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토기 기종 가운데 하나이다. 무늬 구성 등에 따라 줄무늬병, 덧띠무늬병, 덧줄무늬병 등으로도 불린다. 주로 기름과 같은 중요한 내용물을 담았으며, 이에 따라 유병油甁이라 부르기도 한다. 무늬 구성과 시문 방식에 따라 줄무늬병과 덧띠무늬병 등으로 세분되는데, 부소산 사지 출토품은 동체부에 두꺼운 덧띠가 세로로 부착된 덧띠무늬병이다. 본래 12개의 덧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9개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동체부와 경부 사이에는 다시 원형의 두꺼운 덧띠가 있으며, 그 위로 좁고 긴 경부가 이어진다. 덧띠무늬가 장식된 주름무늬병은 최대지름이 동체부 중앙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소산 사지 출토품 역시 잔존 상태를 보았을 때 동일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토기는 총 13점이 발견되었다. 형태와 용도에 따라 완 5점, 접시 1점, 자배기 2점, 그리고 구연부 편 1점, 동체부 편 1점, 저부 편 3점 등으로 분류된다. 완은 굽의 부착 유무에 따라 세분되는데, 굽이 달린 대부완이 2점, 굽이 없는 것이 2점이며, 나머지 1점은 굽 부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고려시대의 완^[193-197]은 저부에서부터 외반하며 올라가다 동체 중앙부에서 한 차례 부드럽게 단을 진 후 직립에 가깝게 동체 상부로 이어진다. 구연부는 크게 외반하는데 구순부가 비교적 두껍고 둥근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회색 혹은 흑회색을 띤 무른 재질의 연질토기이다. 태토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거친 느낌을 주며, 성형이 완료된 이후에도 깔끔하게 정면되지 않았다.

113 박순발, 『백제토기 탐구』(주류성, 2006).

접시^[198]는 밝은 회색의 연질토기이다. 굽은 부착되지 않았으며, 저부에서 이어지는 동체부는 중단에서 단을 이룬 후 상부로 이어진다. 접시 역시 외면에 거친 회전 물손질 흔적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태토가 뭉치거나 떨어진 곳도 발견된다. 아울러 성형 이후 접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태토가 밀린 흔적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굽은 모래가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어 접시의 표면이 거친 느낌을 준다.

자배기^[199-200]는 2점이 발견되었는데, 1점은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다른 1점은 바닥 일부만 남아 있다. 전자의 경우 함께 발견된 완형 토기에 비해 태토가 보다 정선되었고, 성형 후 토기 내외면을 정면하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작흔과 정면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부소산 사지는 백제 왕실의 후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부소산 내에 건립된 백제의 왕실사찰이다. 2차례의 발굴조사로 밝혀진 가람의 형태와 출토 유물을 보았을 때 부소산 사지는 백제에 의해 창건된 것이 분명하나, 백제 멸망 이후 사찰의 존속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남북국시대 이후의 유물이 소량 발견되었지만, 사찰의 개보수 흔적과 같은 적극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¹¹⁴

따라서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와 그 주변에서 수습한 남북국시대~고려시대 토기는 부소산 사지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적으며, 인근 부소산 내의 건물터 등에 산포하였던 유물이 부소산 사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부소산성 발굴조사 결과, 부소산성은 백제에 의해 초축된 이후 남북국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기존 성벽이 보수되고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소산성 내 평탄지에서는 남북국시대~조선시대의 대형 건물지 등이 다수 조사되었다. 따라서 부소산 사지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와 고려의 토기는 부소산 내 다른 유구에 산포한 유물이 경사면을 따라 유입되거나 그 주변에서 수습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 현 |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표 22】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토기 출토 현황

일자	출토 위치	출토 현황
8월 30일	금당 서쪽 가장자리 북부	검은색 초벌구이 토기 편
9월 2일	북쪽 가장자리 트렌치	토기 편
	금당 서쪽 가장자리 남부	백제 토기 및 와기 편 몇 점 고려시대 토기 편 몇 점
	북동쪽 모서리	와기 이부배 편 1점 ¹¹⁵
9월 3일	남쪽 가장자리 트렌치	늦은 시기의 토기 편
9월 4일	남쪽 가장자리 트렌치	조선시대 토기

114 부여에 소재하는 대표적인 백제 사찰인 정림사와 왕흥사의 경우, 백제 멸망 이후 고려시대까지 사찰이 유지되거나 재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발굴조사 결과, 정림 사지에서는 금당과 강당, 왕흥사지에서는 목탑과 금당에서 고려시대에 정비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의 구성에서도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의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15 묵서로 '十七.九.二 扶蘇○寺金堂址○北隅辺'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등잔[191]으로 분류하였다.

[표 23] 토기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기종	목서명		구경	저경 (너비)	기고 (길이)	기벽두께	무늬	색상	태토	소성도	시대	제작기법 및 특징	비고
			일자	출토지											
170	자료448	완	-	-	13.4 (복원)	5.4 (복원)	(6.0)	0.5~1.0	-	회색 (N 5/)	니질	경질	백제	-	
171	자료448	완	-	-	14.4 (복원)	-	4.7	0.5~0.6	-	회백색 (10Y 7/1)	니질	경질	백제	회전물손질	
172	자료434	대부완	-	-	-	9.1 (복원)	(7.3)	0.6~1.1	-	회백색 (10Y 7/1)	니질	경질	백제	회전물손질 동체부 1조의 음각선 횡방향 시문	대각높이 1.0
179	자료434	접시	-	中門口	17.2 (복원)	9.4 (복원)	2.8	0.5~0.9	-	호린황등색 (10YR 6/4)	니질	연질	백제	회전물손질	
180	자료432	병형토기	-	-	-	-	(10.3)	0.6~1.2	-	황등색 (10YR 7/6)	니질	경질	백제	동체부에 2조의 음각선이 횡방향으로 시문 구연부가 외반 손누름흔	
181	자료427	동체부 편	-	-	-	-	(13.6)	1.3	평행타날문	갈회색 (10YR 5/1)	니질	경질	백제	-	
182	자료427	동체부 편	-	-	-	-	(25.2)	1.0~1.1	격자타날문 평행타날문	갈회색 (10YR 5/1)	니질	경질	백제	-	
183	자료427	동체부 편	-	-	-	-	(12.4)	0.5	타날문 중호문	회색 (5Y 4/1)	니질	경질	백제	회전물손질 일부 2조의 횡음각선	
184	자료427	동체부 편	-	-	-	-	(14.9)	2.1	평행타날문	회색 (5Y 5/1)	니질	경질	백제	물손질	
185	자료427	동체부 편	-	-	-	-	(7.9)	1.0	평행타날문	회색 (5Y 5/1)	니질	경질	백제	평행타날문이 x자 방향으로 겹쳐짐	
186	자료427	동체부 편	-	-	-	-	(8.7)	1.0~1.3	-	회색 (5Y 5/1)	니질	경질	백제	2조의 음각선이 횡방향으로 시문 토기 내면 회전성형흔	
187	자료427	동체부 편	-	-	-	-	(4.4)	0.9~1.0	-	회색 (N 6/)	니질	경질	백제	-	
188	자료438	저부 편	-	-	-	(7.8)	(5.5)	0.7	평행타날문	회황색 (2.5Y 7/2)	니질+ 세사립	경질	백제	물손질	
189	자료438	저부 편	-	-	-	(6.6)	(5.5)	0.4	-	회색 (5Y 6/1)	니질+ 사질	경질	백제	회전물손질	
190	자료449	파수	昭和十七. 九.十五	西廊北端	-	2.8	(7.2)	0.5~0.7	-	천황색 (2.5Y 7/3)	니질	연질	백제	물손질, 손누름	
192	자료433	주름무늬병	-	-	-	-	(6.6)	0.4~0.5	-	회색 (N 6/)	니질	경질	통일 신라	경부에 자연유 2조의 음각선이 돌아감 동체부에 1조의 양각선 횡방향 그 아래 총방향의 양각선 등간격 배치	
193	자료404	완	-	-	(14.0)	6.0	8.0	0.5~1.0	-	회백색 (2.5Y 8/1)	니질	연질	고려	회전물손질	
194	자료404	완	-	-	12.2 (복원)	(8.0)	7.0	0.5~0.7	-	담황색 (2.5Y 8/3)	니질+ 세사립	연질	고려	회전물손질	
195	자료434	완	-	-	-	9.0 (복원)	(5.0)	0.5	-	회백색 (2.5Y 8/2)	니질+ 세사립	연질	고려	회전물손질	
196	자료451	완	-	-	-	8.0 (복원)	(6.8)	0.3~1.1	-	회색 (N 4/1)	니질	연질	고려	회전물손질	
197	자료451	완	-	-	16.8 (복원)	-	(7.4)	0.4~0.7	-	회백색 (5Y 8/1)	니질+ 세사립	연질	고려	회전물손질	
198	자료451	접시	昭和十七. 八.卅一	金堂北緣	16.0 (복원)	10.5 (복원)	3.0	0.6	-	회백색 (5Y 8/1)	니질+ 세사립	연질	고려	회전성형흔	
199	자료449	자배기	-	-	25.0 (복원)	18.1 (복원)	12.9	0.5~0.8	-	회백색 (2.5Y 8/1)	니질+ 사질	연질 (상)	고려	토기 내외면 회전물손질흔 구연부 외반	
200	자료438	자배기	-	-	-	15.6 (복원)	-	0.6~0.8	-	천황등색 (10YR 8/4)	니질+ 사질	연질	고려	-	
201	자료412	구연부 편	十七.八.卅 一	-	20.2 (복원)	-	(5.6)	0.7	-	회색 (7.5Y 4/1)	니질+ 사질	연질	고려	회전성형흔	
202	자료451	동체부 편	-	-	-	-	(7.5)	0.6	-	회백색 (2.5Y 8/2)	니질	연질	고려	-	
203	자료450	저부 편	-	-	-	(6.4)	(3.8)	0.6~1.2	-	천황색 (10YR 8/4)	니질+ 세사립	연질 (상)	고려	회전성형흔	
204	자료438	저부 편	-	-	-	7.8 (복원)	(2.1)	0.5~0.7	-	회백색 (2.5Y 8/1)	사질+ 니질	연질	고려	-	
205	자료451	저부 편	-	-	-	-	(10.0)	0.5~0.8	-	회백색 (2.5Y 8/1)	니질	연질	고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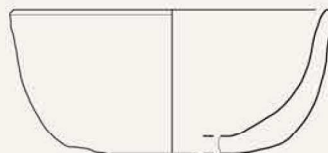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전달린토기																		
연번	등록번호	기종	목서명		구경	저경 (너비)	기고 (길이)	기벽두께	전달린 길이	전달린 높이	전달린 두께	무늬	색상	태토	소성도	제작기법 및 특징	시대	비고
			일자	출토지														
173	부여4285	전달린 토기	-	-	13.8	8.2	7.2	0.7	(0.5)	0.6	0.5	-	회색 (7.5Y 4/1)	니질	경질	회전물손질	백제	

등 잔															
연번	등록번호	기종	목서명		구경	저경 (너비)	기고 (길이)	기벽두께	무늬	색상	태토	소성도	제작기법 및 특징	시대	비고
			일자	출토지											
191	부여1057	등잔	十七.九.二	扶蘇○○寺 金堂址○北隔辺	7.7 (복원)	9.5 (복원)	4.7	0.7~1.3	-	회백색 (5Y 7/1)	니질	연질(상)	회전물손질	백제	

뚜 경																	
연번	등록번호	기종	목서명		구경	기고 (길이)	기벽두께	꼭지			무늬	색상	태토	소성도	제작기법 및 특징	시대	비고
			일자	출토지				형태	지름	높이							
174	자료428	뚜껑	-	-	11.0 (복원)	3.7	0.6~0.8	보주형	1.7	1.5	-	회백색 (5Y 7/2)	니질	경질	물손질 회전 성형	백제	
175	자료428	뚜껑	-	-	13.2 (복원)	(4.4)	0.5	-	-	-	-	회황색 (2.5Y 6/2)	니질	경질	회전물손질	백제	
176	자료428	뚜껑	-	-	14.6 (복원)	(1.9)	0.8~1.0	-	-	-	-	회색 (7.5Y 4/1)	니질	경질	4조의 음각선이 동심원을 이룸	백제	
177	자료430	뚜껑	-	-	-	(3.5)	0.3~0.8	-	-	-	-	호린황등색 (10YR 7/4)	니질+ 사질	경질	녹색의 자연유 1조의 음각선 회전성형흔	백제	
178	자료428	뚜껑	十七. 九.二	金堂址 西南隅	10.3 (복원)	2.0	0.5~0.6	-	-	-	-	회올리브색 (5Y 6/2)	니질	경질	회전물손질	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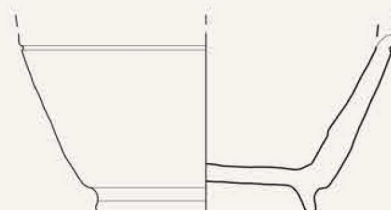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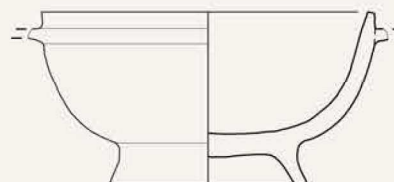
171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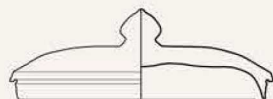


173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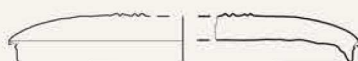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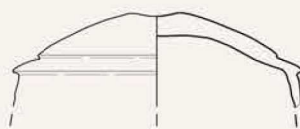
175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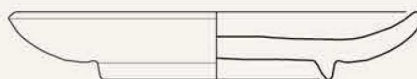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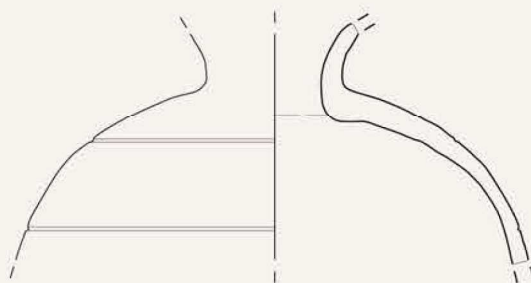
178



179



180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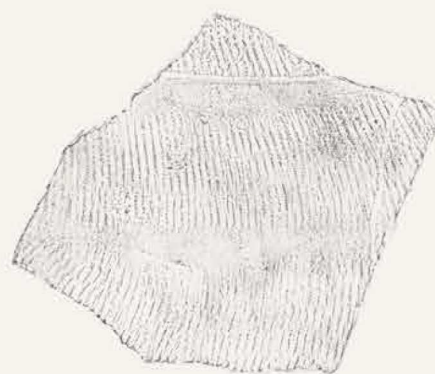
182



183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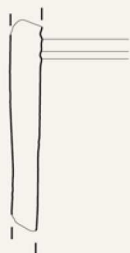


185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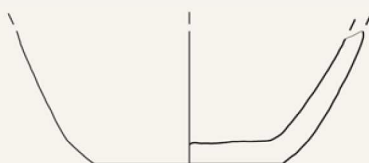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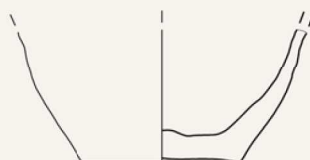
187



188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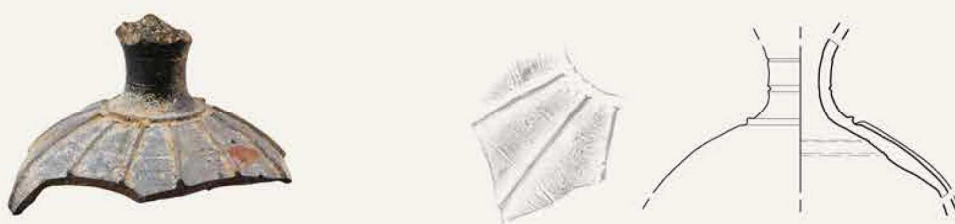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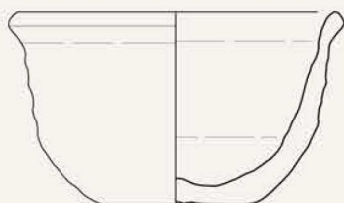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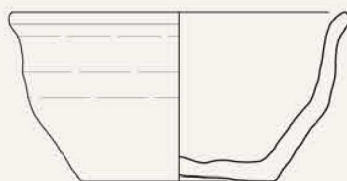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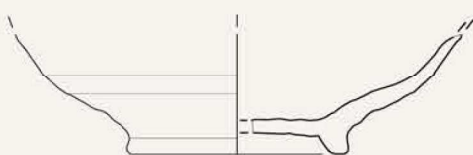
193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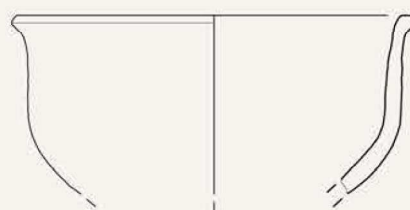
195



196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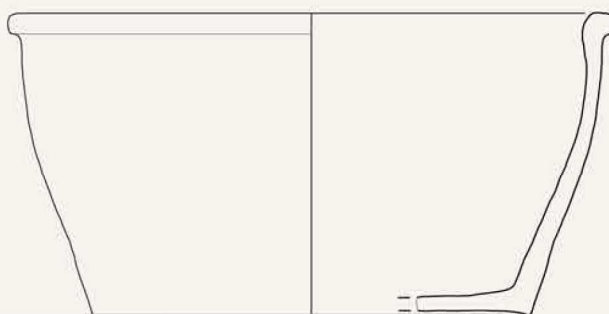


198



II.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199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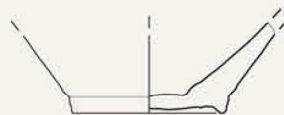
201



202



203



204



205



5. 금속제품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를 살펴보면 부소산 사지에서 여러 종류의 금속제품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철정을 비롯하여 철제 금구(문비축금구), 다량으로 출토된 철못, 철기 편, 철촉, 금동제 금구 편, 동제소뿔, 동제 알갱이[銅粒], 동판 편, 연판형 동제 금구 등이 출토된 것으로 기록되었다.^[표 24] 그러나 대개의 경우 현존하지 않고, 본 보고서에는 철정 3점에 대하여 수록하고자 한다.

철정 가운데 ‘망와정望瓦釘’으로 등록되어 있는 2점이 있는데, 1점은 1980년 발굴조사 보고서에 마루끝장식기와를 고정하는 못으로 보고된 바 있다.^{[207] 116} 나머지 1점도 비슷한 형태로 못 머리가 일자형에 몸체는 가늘고 길면서 끝이 구부러져 있는 형태이다.^[206] 마지막 1점^[208]은 길이로 미루어 1942년 8월 31일 금당지 북쪽 가장자리 서부 조사 시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속성표를 정리하여^[표 25] 사진과 도면을 게재하였다.^[도 127-128]

[표 24]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중 금속제품 출토 현황

일자	출토 위치	출토 현황							비고
		철제 금구	철못	철기 편	철촉	금동제 금구 편	동제 소뿔	기타	
8월 31일	금당 북쪽 가장자리 서부	2	1	-	-	-	1	-	- 철못: 길이 약 52cm - 철제 금구: '문비축금구'로 추정
9월 1일	금당 서쪽 가장자리 북부 및 북쪽 가장자리 동부	-	-	-	1	-	1	-	
9월 2일	(금당) 동쪽 북부	-	22	-	-	-	-	-	
	금당 서쪽 가장자리 남부	1	-	-	-	-	-	-	- 철제 금구: 길이 약 55cm
9월 3일	(금당) 동쪽 북부	○	○	-	-	-	-	-	- 철제 금구: 용도 및 수량 불명
	(금당) 남쪽 서부	-	○	-	-	○	-	-	
9월 4일	서쪽 가장자리 트렌치	-	○	-	-	-	-	-	
	금당 남쪽 가장자리 동부	-	○	-	-	-	-	-	
9월 6일	남방 건물지	-	-	-	-	-	-	○	- 풍탁수화식
9월 8일	탑지	-	-	-	-	-	-	○	- 동제 알갱이[銅粒], 동판 편
9월 9일	탑지 북쪽 동부	-	-	-	-	-	-	○	- 연판형 동제 금구
9월 16일	탑지	-	-	3	-	-	-	-	

※ 정확한 수량이 기록되지 않은 유물은 '○'으로 표시

116 보고서에는 이 철정을 ‘丁’자형 철심으로 보고하면서 부소산 사지 출토품으로 전하며, 마루끝장식기와에 걸구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申光燮, 앞의 보고서(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pp. 45~46.

[표 25] 금속제품 속성표

연번	등록번호	명칭	목서명		길이	너비	두께	특징
			일자	출토지				
206	부여1614	철정	-	-	43.3	-	0.6	
207	부여1614	철정	-	-	50.5	-	0.6~0.7	
208	부여1615	철정	-	-	52.1	-	1.4	방형의 못머리를 가지고 있다.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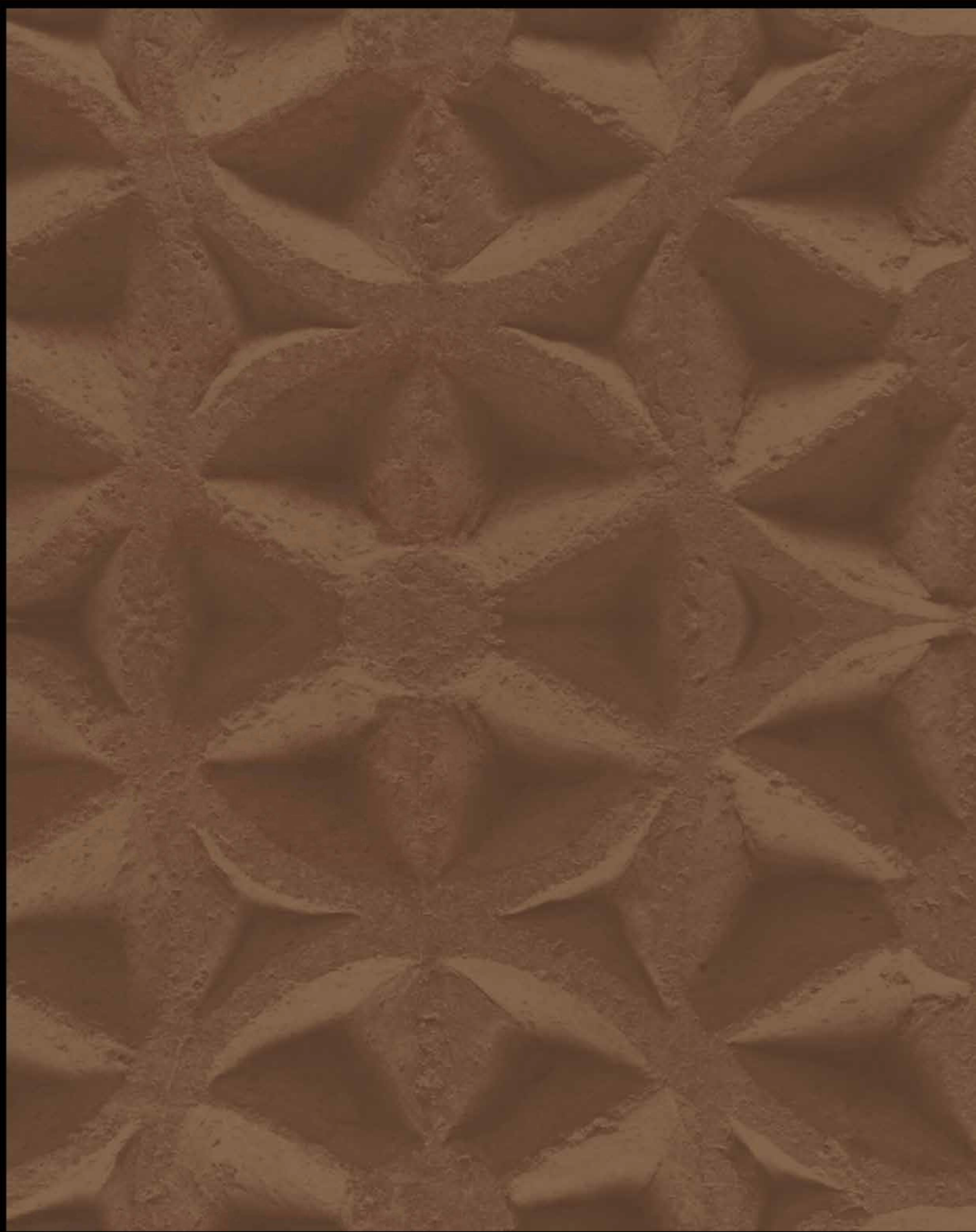
207



208



[도 128] 금속제품 208



논고

논고 1. 일제강점기 부여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
출토 기와 고찰

논고 2. 부소산 사지 출토품 채색안료 성분 분석

일제강점기 부여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 출토 기와 고찰

윤용희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부여 부소산 사지(충청남도기념물 제161호)는 부여읍 서쪽을 따라 흐르는 백마강 남안에 자리 잡은 부소산(해발 96.4m)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는 백제의 절터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산24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부소산 사지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요네다 미요지 米田美代治와 후지사와 가즈오 藤澤一夫 등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금당, 목탑, 중문, 회랑 등의 건물터가 확인되고, 각종 기와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음을 기록한 내용이 일기 형식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식으로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사지의 규모는 물론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막연히 부소산 서록에 있는 백제의 사찰 유적으로만 알려져 왔다. 부여 부소산 사지는 1980년에 이르러서야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백제문화권 중요유적 보존 정비 사업계획” 일환으로 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우리 손으로 처음 발굴 조사되었다. 재조사를 통해 우선 사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사지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당시 발굴조사 내용은 1942년 조사에서 출토된 일부 유물과 함께 『부소산성』 발굴보고서(1996)에 수록되었다.¹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여 부소산 사지는 2004년 4월 10일 부소산 사지 일대 3,531m²가 충청남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은 국립부여박물관이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본 보고서의 말미에 기와 부분을 정리하여 논고로 게재하기 위해 작성

¹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폐사지 발굴조사보고-(1980년)』, 『부소산성』(1996).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25일간 진행된 부여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1,000여 점의 기와² 중에서 선별하여 수막새 93점, 인장과 44점, 평기와 15점에서 확인되는 문양과 제작 기법상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1942년에 조사된 부소산 사지 출토 기와는 그동안 몇몇 논문과 보고서, 도록 등에 일부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그 수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³ 또한 1980년 재조사 이후 발간된 발굴보고서에도 많은 양의 기와가 소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어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부소산 사지 출토 기와에서 엄선한 152점을 정리하여 살펴보는 것은 미공개 자료를 소개한다는 의미는 물론 부소산 사지 출토 기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수막새 검토

1942년 부여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새 문양은 연화문 2종, 파문 1종으로 구분되며, 연화문은 7엽과 8엽으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대로 1942년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수량은 거의 1,000점에 달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잔편을 제외하고, 형태와 묵서명이 잘 남아 있는 개체 93점을 선별하여 소개하였으며, 본 논고도 이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검토한 수막새 93점의 문양별 수량은 연화문이 92점, 파문이 1점으로, 연화문 중 8엽은 24점이고, 7엽은 68점이다. 여기서는 8엽 연화문, 7엽 연화문, 파문의 순으로 자료를 검토해 나가려고 한다.⁴

1. 8엽 연화문수막새

8엽 연화문수막새^[도 1]는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 중문지에서 6점, 탑지에서 90점, 금당지에서 7점, 서회랑지에서 1점이 출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2년 발굴 당시 발굴자가 직접 작성한 이 일기는 수막새의 건물지별 출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당시 파악된 수막새 전체 수량 738점 가운데 8엽 연화문수막새는 104점(14.1%)을 차지한다. 건물지별로는 탑지에서 90점(86.5%)이 출토되어 다른 건물지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다. 뒤에서 살펴볼 7엽 연화문수막새의 건물지별 출토비율이 탑지 127점(20.1%), 금당지 448점(70.8%)인 것과 비교해

2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는 일자별로 7엽 연화문수막새 633점, 8엽 연화문수막새 104점, 파문 1점의 출토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된 수량은 7엽 863점, 8엽 129점, 파문 1점이다. 잔편이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형태와 묵서가 잘 남아 있는 수막새 93점이 선별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3 신광섭, 「부여부소산폐사지고」, 『백제연구』24(1994);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절터와 가마터 지표조사보고서』(2008); 동저, 『백제 가람에 담긴 불교문화』(2009); 동저, 『백제와전』(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백제 폐사지 학술조사보고서』(2008).

4 보고서 본문에서는 수막새 유형을 I형(8엽), II형(7엽), III형(파문)으로 구분하였다.



[도 1] 부소산 사지



[도 2] 관북리 유적



[도 3] 구아리 사지



[도 4] 정림사지



[도 5] 왕궁리 유적

보면 8엽 연화문수막새의 비율이 탑지에서 현격하게 높아지고 금당지는 7점(6.7%)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처음에 사찰이 조성될 때 7엽 연화문수막새가 각 건물에 고르게 사용되다가 나중에 탑을 중수(重修)할 때 8엽 연화문수막새가 보수와 補修瓦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표 1] 8엽 연화문수막새 건물지별 출토 현황

	중문지	탑지	금당지	서회랑지	계
수량(점)	6	90	7	1	104
비율(%)	5.8	86.5	6.7	1.0	100.0

막새 중앙의 작은 자방 위에 1+7+14과의 연자가 불규칙한 모습으로 서로 잇닿아 있는 모습으로 배치되었다. 8엽의 연판은 끝부분이 예리하게 반전되었다. 주연부는 1단의 턱을 두고 있으며, 연주문은 없다.

이와 같은 형식의 연화문수막새는 부여 관북리 유적, [도 2] 구아리 사지, [도 3] 정림사지 [도 4]에서 출토되었으며, 익산 왕궁리 유적 [도 5]에서도 확인된다.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와전』 도록(2010)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삼각반전형에 포함되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 사비기 기와연구VI』(2014)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면 단판소문삼각돌기형 9b식(111D-9b형)에 해당한다.

이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방의 연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점인데, 본래 사용되던 와범을 수선하면서 자방 부분을 개범(改範)한 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범하기 전의 와범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화문수막새는 부여 관북리 유적 [도 6]과 익산 미륵사지, [도 7] 왕궁리 유적 [도 8]에서 확인된다. 자방 부분을 제외하면 연판의 수와 형태가 동일하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 사비기 기와연구VI』(2014)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면 단판소문삼각돌기형 9a식(111D-9a형)에 해당한다.

부소산 사지 출토 8엽 연화문수막새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연꽃잎 끝부분이 안으로 말려 올라간 모습의 이른바 ‘반전수법(反轉手法)’이 표현된 삼각반전형에 속한다. 이와 같은 문양은 사비시기에 가장 유행하였으며, 백제 연화문수막새를 대표하는 문양 가운데 하나이다. 위의 개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와범 일부를 수선하여 같은 문양의 막새를 계속 생산하였다는 것은 그 문양이 가진 생명력이 길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 6] 관북리 유적



[도 7] 미륵사지



[도 8] 왕궁리 유적



[도 9] 쌍북리 북가마터

위의 111D-9b형 수막새는 아직 기와 가마터 출토 사례가 없지만 개범 전의 선행 형식인 111D-9a형 수막새는 부여 쌍북리 북가마터[도 9] 출토 연화문 수막새에서 확인된다. 이 가마터는 부소산 남쪽 사면에 있는 오늘날의 부여여고 정문과 부여도서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7엽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부여 현북리 가마터가 부여 동나성 외곽에 위치하는 것과 달리 이 가마터는 사비도성 안쪽의 도성 내에 자리 잡은 가마터이다.⁵ 위의 출토지 가운데 부여 관북리 유적에 공급되던 기와를 생산한 곳으로 추정된다. 만일 개범 이후에도 이 가마터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구아리 사지나 정림사지에도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익산 지역은 아직 사비시기 기와 가마터가 확인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에 사용된 기와의 공급처가 어디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제작기법 측면에서 보면, 외범에 문양을 찍고 둥근 형태로 성형하면서 주연 외측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고 내측을 와도로 깎기 조정한 것은 7엽 연화문 수막새와 같다. 막새 뒷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가장자리 부분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흔적도 관찰된다. 이 막새의 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면상으로 보았을 때 막새 하반부 하단이 곡면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였다는 점이다. 모든 개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 개체가 상당수 확인된다. 막새에 접합된 수키와는 외면에 태선문이 확인된다. 막새와 수키와의 접합 방식은 막새 상반부를 절개하고 가공하지 않은 수키와를 접합하는 방식과 막새 뒷면 상반부의 상단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사선으로 깎아 수키와 끝부분을 사선으로 가공하여 접합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 사비기 기와연구Ⅵ』(2014)에 제시된 접합 방식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면 앞의 것은 A식(본문 A식)이고, 뒤의 것은 E식(본문 B식)에 해당한다.[표 2]

[표 2] 8엽 연화문수막새 실측도 및 접합 방식

실측도	A식(본문 A식)	E식(본문 B식)

5 윤무병, 「부여 쌍북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백제연구』13(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2).

2. 7엽 연화문수막새

7엽 연화문수막새[도 10]는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 중문지에서 34점, 탑지에서 130점, 금당지에서 380점, 서회랑지를 포함한 회랑지에서 11점이 출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파악된 수막새 전체 수량 738점 가운데 7엽 연화문수막새는 633점(85.8%)을 차지하며, 탑지에서 130점(20.1%), 나머지 장소에서도 58점(9.2%)이 출토되어 8엽 연화문수막새에 비해 고른 분포를 보인다. 지붕의 크기, 폐기 후 재사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사찰이 처음 세워질 때 올린 창건瓦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표 3]

[표 3] 7엽 연화문수막새 건물지별 출토 현황

	중문지	탑지	금당지	회랑지	불명	계
수량(점)	34	127	448	11	13	633
비율(%)	5.4	20.1	70.8	1.7	2.0	100.0



[도 10] 부소산 사지



[도 11] 관북리 유적



[도 12] 부소산성

막새 중앙의 커다란 자방 위에 1+8과의 붉은 연자가 있으며, 자방 주위 꽃술대 위에 과립형 주문이 3줄로 배치되었다. 7엽의 연판은 붉은 테두리로 구획되며, 연판 끝부분이 하트형으로 반전되었고, 연판 내부에 꽃술이 장식되어 있다. 주연부는 1단의 돌출된 턱을 두고 있으며, 연주문은 없다. 이와 같은 형식의 연화문수막새는 부여 관북리 유적[도 11]과 부소산성[도 12]에서도 출토되었다. 부여 궁남지[도 13]에서 출토된 연화문전의 문양도 이와 동일하므로 같은 계통의 와범瓦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비시기 백제 연화문수막새는 1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지고 연판 내부에 장식이 없는 단판소판(單瓣素瓣)이 중심을 이룬다.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와전』 도록(2010)에서는 연판 끝부분의 변화에 따라 크게 용기형, 침형, 원형, 원형돌기형, 삼각반전형, 곡절형, 능각형, 능선형, 장식형, 복판형 등으로 구분하였다.⁶ 이 기준에 의하면 부소산 사지 출토 7엽 연화문수막새는 연판 내부에 꽃술이 장식된 장식형에 포함된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 사비기기와연구VI』(2014)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면 부소산 사지 출토 7엽 연화문수막새는 단판유문꽃술형 2식(113I-2형)에 해당한다.⁷

이처럼 연판 내부에 꽃술이나 인동자엽과 같은 장식이 시문되는 것은 부여 지역보다는 익산 미륵사지나 제석사지처럼 주로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또한 백제 연화문수막새에 점차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수막새 문양이 화려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7세기 백제 문화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6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와전』(2010), pp. 406~407 수막새 분류 기준.

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 사비기기와연구VI』(2014), p. 108.



[도 13] 공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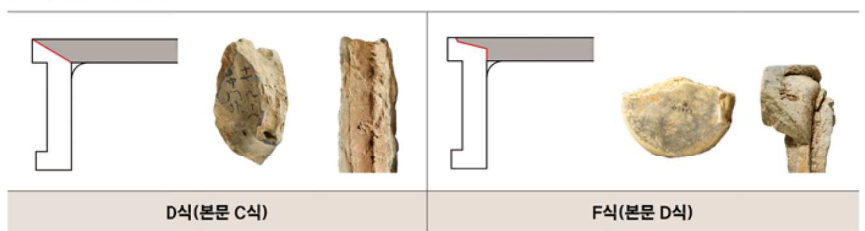
[도 14] 현북리 가마터

한편 출토지 측면에서 보면, 부소산 사지 출토 7엽 연화문수막새는 부여의 부소산을 중심으로 인근의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등에만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⁸ 백제 왕실의 정원으로 제30대 무왕(600~641)이 조성한 궁남지에서 출토된 연화문전을 포함하면 이러한 형식의 수막새는 사찰보다는 왕궁이나 왕실과 직접 관련된 공공시설 등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형식의 수막새는 어디에서 제작되어 공급되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부여 현북리 가마터[도 14]에서 같은 형식의 수막새가 확인된 것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현북리 가마터는 아직 정식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습된 유물을 통해 6~7세기에 운영되던 백제의 기와 가마터로 인식되고 있다. 유적의 입지는 부여 동나성 외곽의 금강 동쪽 강변과 인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수운을 통한 기와 조달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가마터 인근에는 7세기 대의 백제 사찰로 추정되는 부여 임강사지(충청남도 기념물 제34호)가 위치한다.

제작기법 측면에서 막새 성형과 정면, 수키와와의 접합 방식 등에서 특징이 관찰된다. 와법에 문양을 찍고 둥근 형태로 성형하면서 주연 외측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측은 와도로 깎기 조정하여 주연부와 연판 외측에 깊은 홈이 생겼다. 막새 뒷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가장자리 부분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보인다. 막새에 접합된 수키와는 외면에 태선문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막새와 수키와의 접합 방식은 큰 틀에서 보면 막새 뒷면 상단과 수키와 접합부를 가공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분류된다. 세부 속성으로 보면, 막새 주연 단부부터 사선으로 깎아 가공된 수키와와 접합하는 방식과 막새 뒷면 상단을 ‘L’자로 깎고 수키와 접합부를 ‘ㄱ’자로 가공하여 접합하는 2가지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 사비기 기와 연구VI』(2014)에 제시된 막새 접합 방식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면 앞의 것은 D식(본문 C식)이고, 뒤의 것은 F식(본문 D식)에 해당한다.^{[표 4] 9}

[표 4] 7엽 연화문수막새 접합 방식



8 이 막새 형식 중 일부는 종래 ‘정림사지’ 출토 수막새로 등록되어 있는 개체도 있으나, 막새 뒷면의 묵서명과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볼 때 부소산 사지 출토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 사비기 기와 연구VI』(2014)에서는 막새 접합기법을 크게 9가지(A~I) 방식으로 분류하고, 세부 속성에 따라 1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와공이라 하더라도 기와 제작의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계적 구분이 의미 없는 형식만을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막새 접합 기법은 기와 제작 기법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단순화시켜 통시적通時的이고도 공시적共時的인 관점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막새 뒷면 상반부에 가공하지 않은 수키와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 막새 뒷면 상반부를 사선 혹은 ‘L’자로 깎고 수키와를 가공하여 접합하는 방식, 막새 상반부를 절개하고 가공하지 않은 수키와를 접합하는 방식 정도로 유형을 나누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도 15] 부소산 사지



[도 16] 부소산성



[도 17] 구아리 사지



[도 18] 제석사지

3. 파문수막새

파문수막새[도 15]는 서희랑지 북단에서 1점 출토되었다. 파문^{巴文}은 막새 중앙의 둥근 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회전하는 형상이다. 파문은 무문과 더불어 7세기 무렵 새롭게 출현하는 막새 문양으로 기존에 유행하던 연화문과 계통을 달리하며, 삼국 가운데 백제에서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연화문이 불교를 상징한다면 파문은 무문^{無文}과 더불어 7세기 백제 문화에 나타나는 도교적 경향이 기와 문양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⁰

파문과 무문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었던 연화문이 이른바 ‘연화화생^{蓮華化生}’의 불교적 세계관을 피어나는 연꽃으로 형상화한 데 비해 도교적 세계관, 즉 ‘무^無’에서 시작된 우주에 움직임[巴]이 생성되고 만물[萬有]이 형성되는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¹¹

파문은 크게 드림새 면을 4개로 구획하는 돌대선 안쪽의 형태에 따라 평면적인 것(I), 양감이 있는 것(II), 능각이 있는 것(III), 파형동기처럼 축에 결합된 날처럼 표현된 것(IV)으로 구분하며, [표 5] 세부 요소에 따라 세분화하기도 한다.

[표 5] 파문수막새 형식 분류표

			
I 형식	II 형식	III 형식	IV 형식

부소산 사지 출토 파문수막새는 양감이 있는 형태로 II 형식에 해당한다. 부여 부소산성, [도 16] 구아리 사지[도 17]와 익산 제석사지, [도 18] 왕궁리 유적 [도 19]에서 같은 형식의 수막새가 출토되었으며, 공주 공산성에서도 확인된다.

파문 II 형식 수막새가 출토된 기와 가마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I 형식 파문수막새는 부여 정동리 가마터[도 20]와 쌍북리 북가마터[도 21]에서 확인된다. 정동리 가마터는 아직 정식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쌍북리 북가마터는 1982년에 충남대학교박물관이 발굴 조사하였다. 파문수막새가

10 백제의 도교 문화가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은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이다. 특히 향로의 뚜껑에 표현된 박산^{博山}은 중국 한대에 유행한 박산로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여 능산리 1호분의 벽화에 사신도^{四神圖}가 표현된 것도 백제 문화의 도교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백제 근구수왕과 무왕 관련 문헌 기록에서도 백제 사회에 뿌리 내린 도교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三國史記』卷第二十四「百濟本紀」第二 近仇首王一年; “三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丈仙山.” 『三國史記』卷第二十七「百濟本紀」第五 武王三十五年.

11 무문수막새는 형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서울 풍납토성에서도 출토되었으며, 중국 남경대학에 소장된 중국 남조^{南朝} 남제^{南齊} (479~502)의 수막새에서도 확인된다. 파문수막새는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BC771~BC403) 동주^{東周} (BC771~BC256) 우왕성^{禹王城}에서 출토되는데, 형태는 반원막새이며 유금외당박물관에도 1점이 소장되어 있다. 무문과 파문 도상에 내포된 의미는 본고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른 지면을 통해 소개하려고 한다.



[도 19] 왕궁리 유적



[도 20] 정동리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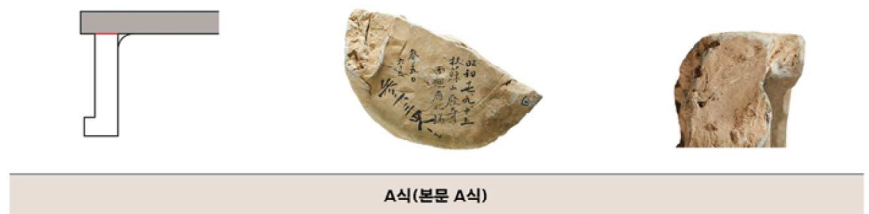


[도 21] 쌍북리 북가마터

제작되어 수요지로 공급되는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기법 측면에서 부소산 사지 출토 파문수막새는 와범에 문양을 찍고 둥근 형태로 성형하면서 주연 외측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측에서는 별다른 정면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막새 뒷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가장자리 부분에는 회전 흔적이 관찰된다. 수키와와의 접합은 막새 상반부의 주연 전체를 절개한 후 가공하지 않은 수키와를 접합하고, 막새 뒷면 접합부에 보토를 바르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 사비기 기와 연구VI』(2014)에 제시된 접합 방식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면 A식(본문 A식)에 해당한다.[표 6]

[표 6] 파문수막새 접합방식



A식(본문 A식)

이상 일제강점기인 1942년 부소산 사지 출토 수막새의 종류와 출토 현황, 문양과 제작기법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1942년 발굴조사 이후 확인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80년 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은 부소산 사지를 재조사하였는데, 조사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6년 발간한 『부소산성』 발굴조사보고서에 1942년 출토 유물 일부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이미 1942년에 확인된 바 있는 위의 연화문수막새 2종만 소개될 뿐 재조사에서 출토된 수막새가 마찬가지로 2종류인지, 수량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밖에 국립부여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유적명이 부소산 사지로 등록된 수막새가 여러 점 있다. 그 중에는 이미 알려진 2종의 수막새 외에 무문을 비롯하여 몇 종의 연화문수막새가 추가로 확인된다. 입수 경위는 구입품이거나 지표 수집품인 경우가 많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와전』(2010) 도록을 발간하면서 출토지가 부소산 사지로 등록된 수막새를 각 문양별로 1점 이상씩 수록하였다. 도록에는 『부소산성』(1996) 보고서에서 부소산 사지 북쪽의 향교발 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새 2점도 포함시켰다. 이 보고서에서는 부소산 사지 북쪽에 인접한 향교발 사지가 부소산 사지의 강당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도록에 수록된 수막새는 총 17점이며, 문양별로 보면 무문 1점, 파문 1점, 연화문 15점이다. 연화문은 위의 2가지 형식을 포함하여 12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꽃잎 끝부분의 변화에 따라 용기형, 원형돌기형, 삼각반전형, 곡절형,

장식형, 복판형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며, 제작 시기는 대체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

Ⅲ. 인장과 검토

인장와는 도장을 찍은 기와를 말하며 인각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장와는 문자 기와의 한 종류로 백제 기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인장와는 기와를 성형한 후 마르기 전에 글자를 파 놓은 도장을 찍어서 기와 표면에 문자나 부호를 새기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인장와는 도장이 찍힌 수에 따라 2개의 도장이 세트인 조합형과 1개의 도장인 단독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조합형 인장와의 명문 내용은 천간^{天干}과 명문이 결합된 것, 지지^{地支}와 명문이 결합된 것, 천간이나 지지 이외에 글자와 명문이 결합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형 인장와의 명문은 천간 한 글자만 찍은 것, 지지 한 글자만 찍은 것, 다른 글자와 조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뉜다. 단독형 문자 기와는 대개 명문의 직경이 비교적 크며, 암키와에서 많이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백제 인장와를 생산하였던 대표적인 유적은 청양 왕진리 가마터이다. 왕진리 가마터는 부여군과 청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금강 하류의 서북안에 위치하며, 강변을 따라 대규모 가마터군이 밀집 분포한다. 1971년 국립박물관이 가마터 6기를 발굴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이 2008년 『청양 왕진리 가마터』 발굴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²

1942년 부여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인장와는 본 보고서에 수록된 33점을 포함하여 총 44점으로,¹³ 그 가운데 수키와는 18점이고 암키와는 26점이다. 인장와는 금당지와 중문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탑지와 그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2개의 도장이 세트인 조합형은 28점이며, 1개의 도장만 확인되는 단독형은 16점이다. 조합형 인장와의 명문 내용은 ‘午-助(助), 午-斯, 午-○, 戊(戊)-○, ○-止, ○-助(助), 午-止, ○-毛(?), 巳-助(助)’ 등이며, 판독이 불가능한 ‘○-○’도 있다.¹⁴ 명문 구조는 앞에 ‘戊’, ‘巳, 午’ 등의 간지^{干支}명이 있고, 뒤에 ‘助 혹은 助, 斯, 止, 毛(?)’ 등의 글자가 있는 형태이다. 단독형 인장와의 명문은 ‘午, 雜(?), 辰, 止, 斯, 巳’ 등이며, 판독이 불가능한 ‘○’도 있다. 지지^{地支}명을 뜻하는 ‘辰, 巳, 午’와 ‘雜(?), 止, 斯’ 등의 글자가 있다. 단독형 인장와의 내용도 조합형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형 기와에 단독으로 글자가 들어간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본래 조합형 인장와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지명은 제작 시기 등을 뜻하는 시간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글자는 공급자를 표지^{標識}하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가 새겨진 기와도 일부 확인된다.^[표 7]

부소산 사지 출토 인장과와 동일한 글자 형태와 규격, 제작기법을 공유하는 인장과가 출토되는 유적은 부여 부소산성과 관북리 유적이며,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에서도 출토되었다. 앞의 수막새 출토지 분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장과가 주로 출토되는 유적은 왕궁 혹은 왕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다. 사찰인 경우 익산의 미륵사처럼 왕이나 왕비가 사찰의 창건이나 중창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¹⁵ 해당 시기에 정치적 혹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장과 명문에 대한 판독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장과 명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대개는 생산자 혹은 특정한 공인집단을 나타내는 표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양 왕진리의 가마에서 생산된 특정한 표지가 있는 인장과가 백마강을 타고 직선거리로 약 6km 밖에 위치하는 부여 부소산성이나 관북리 일대로 공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익산 지역에서 인장과가 출토된 가마터 발견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익산 지역에도 왕진리에서 생산된 기와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유통 경로는 금강 하구에서 만경강을 타고 익산 지역으로 공급하는 루트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백제의 인장과 수급需給 시스템은 중앙의 통제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았던 관영官營 생산체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백제 사비시기의 정림사지나 능산리 사지 같은 대규모 사찰 유적에는 기와 가마터가 동반되는데, 해당 사찰의 창건이나 보수를 위해 운영되던 사찰 전용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인장과는 특정 시기에 특정한 가마에서만 생산되어 왕궁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설에만 한정되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2 국립부여박물관, 『청양 왕진리 기와가마터』(2008).

13 본 보고서에 게재되지 않은 11점(부여1315)은 기존에 부여읍 군수리 출토로 관리되어 『扶餘 軍守里 寺址』(2012) 보고서에 수록되었으나, 인장과에 목서된 기록은 부소산 사지의 발굴 일자에 해당되어 1942년 부소산 사지 조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조사 시 출토된 부소산 사지 인장과는 현재 44점이 확인된다.

14 그밖에 부소산 사지 출토품으로 여겨지나 목서명이 표기되지 않은 인장과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했으나 이 가운데 ‘申-布’, ‘巳-刀’와 같은 예가 확인된다. 특히 ‘申-布’ 인장과는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1980년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도 출토품으로 언급되어 이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1996), p. 43 참조.

15 무왕은 미륵사 창건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2009년 미륵사지 서탑에서 나온 사리봉안기舍利奉安記를 통해 사택왕후砂宅王后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표 7] 부산산 사지 출토 인장과 현황

연번	등록번호	명문1	명문2	출토지	비고
본문 109~141					
109	자료341	斯	-	탐지	글자 잘림
110	부여1306	雜(?)	-	-	左書
111	부여1303	雜(?)	-	탐지	左書
112	부여1336	午-○	-	금당지	글자 지워짐
113	부여2012	午-止	-	-	
114	부여2012	午-止	-	금당지	
115	부여2012	午-止	-	탐지	
116	부여2012	午-止	-	-	글자 눌림
117	부여1321	午-○	-	중문지	판독 불능
118	부여1361	午-斯	-	-	글자 눌림
119	부여1306	午-助	午-助	-	
120	부여1361	午-助	午-助	-	글자 눌림
121	부여2012	午-助	午-助	-	글자 눌림
122	부여2012	午-助	午-助	-	글자 잘림
123	부여1303	午	-	탐지	
124	부여2012	午-○	-	-	글자 잘림
125	부여2012	雜(?)	-	탐지	글자 눌림
126	부여2012	○-○	-	금당지	글자 지워짐
127	자료333	午	-	탐지	
128	자료341	午	-	탐지	
129	부여2012	午-止(?)	-	-	글자 눌림
130	부여2012	巳-助	巳-助	-	
131	자료460	巳	-	-	
132	부여1336	止	-	금당지	
133	부여1336	○-止	-	금당지	
134	부여1361	○-止	-	-	글자 눌림
135	부여2012	止	-	금당지	
136	부여2012	止	-	-	
137	부여2012	○-助	○-助	탐지	
138	부여2012	○-毛(?)	-	탐지	글자 잘림
139	부여1336	○-○	-	금당지	판독 불능
140	자료333	○	-	탐지	글자 지워짐
141	자료333	○-止	-	-	글자 잘림
『扶餘 軍守里 寺址』(2012) 보고서 11점					
-	부여1315(임1)	○	-	탐지	판독 불능
-	부여1315(임2)	辰	-	탐지	
-	부여1315(임3)	午-斯	-	탐지	
-	부여1315(임4)	午-助	午-助	탐지	글자 눌림
-	부여1315(임5)	○	-	탐지	글자 지워짐
-	부여1315(임6)	午-○	-	탐지	글자 지워짐
-	부여1315(임7)	戊-○	戈-○	탐지	글자 눌림
-	부여1315(임8)	午-斯	-	탐지	글자 눌림
-	부여1315(임9)	午-○	-	탐지	글자 눌림
-	부여1315(임10)		-	탐지	부호
-	부여1315(임11)	○-止	-	탐지	글자 지워짐
계	44점				

IV. 평기와 검토

1942년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현재 15점이 확인되는데, 수키와 4점, 암키와 11점이다. 대부분 길이 10cm 내외의 잔편이지만 기와의 전체 길이가 37.6cm임을 알 수 있는 개체도 1점 확인된다. 기와 내면과 외면에 목서로 조사일과 출토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서 출토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수키와는 탑지와 금당지에서 각각 2점씩 출토되었다. 암키와는 금당지에서 6점 출토되었으며, 나머지 5점은 출토 위치를 알 수 없다. [표 8]

[표 8] 부소산 사지 출토 평기와 출토 현황

	탑지	금당지	기타	계
수키와	2	2	0	4
암키와	0	6	5	11

수키와는 단판^{短板} 타날판으로 두드려 성형하여 외면에 세로 방향으로 태선문^{太線文}이 시문되었으며, 물손질로 매끈하게 정면하였다. 내면은 세로 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한 흔적이 일부 보이지만 전면적인 물손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포목흔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색조는 회색 계통이고, 니질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도는 부드러운 연질이다. 두께는 1.5~1.7cm 내외로 암키와에 비해 얇은 편이다. 또한 방형 못 구멍이 있는 개체가 2점 확인되는데, 지붕에 기와를 고정시키기 위해 와정^{瓦釘}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와정을 사용하는 기와는 지붕의 가장자리인 처마 끝에 놓이게 되므로 못 구멍이 있는 기와 하단에 수막새가 부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키와 내면 끝부분에 수막새를 부착하였던 흔적이 관찰되는 개체도 1점 존재한다.

암키와도 외면에서 단판 타날판으로 두드린 태선문이 보이지만 물손질로 정면하여 문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내면은 일부 물손질 정면하였지만 포목흔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또한 내면에서는 통쪽와통으로 성형한 개체가 6점 확인된다. 색조는 회색 계통이고, 니질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도는 부드러운 연질이다. 두께는 1.7~2.3cm 내외로 수키와에 비해 다소 두꺼운 편이다.

제작기법 측면에서 보면, 부소산 사지 출토 암키와 9점 중 6점에서 통쪽흔이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통쪽와통을 사용하여 성형한 흔적인 통쪽흔은 대개 암키와 내면에 세로 방향의 요철 흔적을 남긴다. 고구려와 백제에서 많이 확인되는 이 지역 특유의 제작기법이며, 신라 기와 중에도 드물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¹⁶ 평기와 제작기술은 와통을 사용하지 않고 받침모루와 두들개 등

16 옛 신라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현재의 영남 지역에서도 통쪽와통으로 제작된 기와가 간혹 발견된다. 통쪽와통 기와가 확인된 유적은 거창 거열성, 함양 사근산성, 하동 고소성과 장성 등인데, 백제의 은화관식이 출토된 남해 남지리 유적을 포함하면 공교롭게도 현재의 경상남도 서부벨트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 백제와의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백제 기와 제작기술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 도구를 사용하는 이른바 ‘무와통기법’에서 와통을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¹⁷ 와통은 다시 길고 좁은 나무판을 연결한 형태인 통쪽와통과 둥근 나무통을 사용하는 원통형와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쪽와통을 선행 형식으로 본다. 통쪽와통을 사용하던 백제에서는 적어도 6세기 후반경 원통형와통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유적의 중심연대가 7세기로 추정되는 부소산 사지에서 통쪽와통으로 제작된 기와가 출토되는 것은 원통형 와통이 사용된 이후에도 백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쪽와통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⁸

V. 고찰

위에서 1942년 부여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를 수막새, 인장과, 평기와로 나누어 각각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차례로 정리하면서 부소산 사지 출토 기와의 특징과 성격, 나아가 부소산 사지가 가지는 역사적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막새

수막새는 연화문 2종과 파문 1종으로 구분되며, 연화문은 다시 7엽과 8엽 2종으로 나뉜다. 1942년에 조사된 부소산 사지 출토 수막새는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993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잔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져 있고 목서가 남아 있는 개체 93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본 논고도 선별된 수막새 93점을 실견하고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다만 1942년 조사에 참가하였던 후지사와 가즈오가 남긴 일기에 날짜별로 수막새 738점이 출토되는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 각 건물지별로 출토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1) 문양

8엽 연화문수막새는 백제 사비시기 전 기간에 걸쳐 크게 유행한 이른바 ‘삼각반전형’ 연화문으로 분류된다. 자방에는 연지가 매우 불규칙한 모습으로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와범瓦範을 재사용할 때 자방 부분을 고쳐서 사용한 흔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범改范 이전의 형식과 이후 형식 간에는 일정한 시간적

¹⁷ 동양에서 가장 일찍 기와를 사용한 중국 서주西周시대 초기(BC11C 중엽~BC10C 중엽)의 섬서성陝西省 봉추鳳雛 유적에서 ‘무와통기법’으로 제작된 기와가 확인된다. 와통으로 제작된 기와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그동안 전한前漢대의 역양궁機陽宮(BC205~BC200)에서 출토된 기와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섬서성 두부촌豆腐村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의 웅성甯城(BC677~BC383)에서도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연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¹⁸ 청양 왕진리 가마터는 부소산 사지에 인장와를 공급하는 등 7세기에 활발한 조업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통쪽와통으로 제작한 기와가 다수 확인된다. 그러므로 백제 특유의 통쪽와통을 사용한 기와 제작기술 전통은 늦은 시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막새의 편년에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범 이전의 선행 형식이 개범하여 사용할 정도로 문양으로서의 생명력이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엽 연화문수막새는 8엽과 마찬가지로 연판의 형태로만 보면 '삼각반전형'이지만 연판 내부에 꽃술이 장식되어 '장식형' 연화문수막새로 분류된다. 큰 틀에서 보면 '장식형'은 미륵사지 등 익산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7세기 백제 수막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단판소판單瓣素瓣'과 이른바 '반전수법反轉手法'으로 상징되는 사비시기 백제 연화문수막새의 문양이 점차 장식화裝飾化되어 가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익산 지역의 '장식형' 연화문수막새는 새로 인동문이 추가되는 등 부여 지역에 비해 한층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도입된 발전적인 형태이다. 그러므로 부여 지역의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부소산 사지 등 특수한 성격을 갖는 일부 유적에서 시작된 문양 변화가 7세기에 본격적으로 익산 지역의 미륵사지, 제석사지 등을 중심으로 연화문의 새로운 유형인 '장식형' 문양이 발달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파문은 기존의 연화문이 연꽃이라는 구상적具象的 실체를 섬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비해, 매우 단순하고 추상적抽象的인 도안으로 표현되었다. 파문의 도상은 중앙의 둥근 점을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적動的인 형상으로 구성된다. 파문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문無文이다. 둥근 주연부 안쪽 드림새 면에 아무런 문양이 없이 편평한 형태인 무문은 위의 파문과 대비하여 정적靜的인 상태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상학적圖像學的으로 무문과 파문은 별개의 문양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된다. 즉, 연화문이 이른바 '연화화생蓮華化生'의 불교적 세계관을 나타낸다면 무문과 파문은 고요함[靜]으로 가득한 '무無'에서 시작된 우주에 움직임[巴]이 생성되고 만물[萬有]이 형성된다는 도교적 세계관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무문과 더불어 파문은 7세기 백제 문화에 나타나는 도교적 요소가 막새의 문양으로 채택된 결과로 해석된다.

2) 출토 현황과 분포

8엽 연화문수막새는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에 보고된 104점 중 90점(86.5%)이 탑지에서 출토되었으며, 다른 건물지를 모두 합쳐도 14점뿐이다. 또한 부소산 사지 수막새의 다른 형식인 7엽 연화문수막새가 금당지와 탑지를 비롯한 건물지에서 고르게 출토되는 점을 감안하면 창건 이후에 탑을 중수重修하면서 올린 보수와補修瓦로 추정된다. 같은 형식의 8엽 연화문수막새는 부여 관북리 유적, 구아리 사지, 정림사지와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아직 이 형식의 수막새를 생산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개범 이전 형식으로 추정되는 수막새는 부여 현북리 가마터와 쌍북리 북가마터에서 확인된다. 사비도성 내부의 부소산 자락에 위치하는 이 가마터들은 부여 관북리 유적 등에 기와를 공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엽 연화문수막새는 후지사와의 일기에 보고된 633점 중 448점(70.8%)이 금당지에서 출토되고, 탑지에서도 127점(20.1%)가 출토되어 유적 내에 고르게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다. 탑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8엽 연화문수막새의 출토 현황을 고려할 때 먼저 7엽 연화문수막새가 사용되고 8엽 연화문수막새는 후대에 탑을 보수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7엽 연화문수막새는 사찰이 창건될 때 올린 창건와(創建瓦)로 추정된다. 같은 형식의 수막새는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이 유적들은 모두 왕궁이거나 왕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수막새가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매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덧붙여 부소산 사지 또한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 백제 왕실의 기복사찰(祈福寺刹)일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형식의 연화문수막새는 부여 현북리 가마터에서 확인된다. 이 가마터는 앞의 8엽 연화문수막새가 나온 가마터와 달리 부여 동나성 외곽의 금강 동쪽 강변에 입지하므로 수운을 통해 부소산 주변의 소비지에 기와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제작기법

제작기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8엽 연화문수막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막새 뒷면 하단부를 물손질을 통해 곡면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막새 뒷면 가장자리 부분을 회전물손질 정면한 것에 비해 다소 간소화된 제작기법으로 판단된다. 수키와와의 접합 방식도 막새 뒷면 상반부 상단을 일부 남기고 사선으로 깎아 사선으로 가공한 수키와와 서로 접합하는 방식(E식/본문 B식)과 막새 상반부를 절개하고 가공하지 않은 수키와를 접합하여 막새 상반부의 주연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A식/본문 A식)이 확인된다. 7엽 연화문수막새는 연판 외측에 주연부를 따라 깊은 홈을 냈기 때문에 문양이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 특징이 있다. 막새 뒷면은 기본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지만 가장자리 부분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여 다소 오목한 형태를 보인다. 수키와와의 접합기법은 큰 틀에서 막새와 수키와를 모두 가공하는 방식에 속한다. 막새 뒷면 상반부를 사선으로 깎거나(D식/본문 C식) ‘ㄱ’자 형태로 깎고(F식/본문 D식) 수키와 접합부도 그에 맞게 가공하는 2가지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막새 상반부를 아예 절개하고 가공하지 않은 수키와를 접합하여 주연부로 삼는 후행 접합기법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파문수막새는 8엽 연화문수막새 일부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새 상반부를 절개하고 가공하지 않은 수키와를 접합하여 막새 상반부의 주연을 이루도록 하는 접합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막새 뒷면 처리 방식이나 수키와와의 접합 방식에서 파문수막새나 8엽 연화문수막새와 7엽 연화문수막새 사이에 제작기법 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점차 기와 제작기법이 간소화되어 가는 경향으로 이해된다.

2. 인장과

인장와는 1942년 출토된 44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키와 18점, 암키와 26점이다. 금당지와 중문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탑지와 그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2개의 도장이 세트로 찍힌 조합형은 28점이며, 1개의 도장만 확인되는 단독형은 16점이다.

1) 명문 내용과 구조

조합형 인장와의 명문 내용은 ‘午-助(助), 午-斯, 午-○, 戊(戊)-○, ○-止, ○-助(助), 午-止, ○-毛(?), 巳-助(助)’ 등이며, 판독이 불가능한 ‘○-○’도 있다. 명문 구조는 앞에 ‘戊’, ‘巳, 午’ 등의 간지¹⁹명이 있고, 뒤에 ‘助 혹은 助, 斯, 止, 毛(?)’ 등의 글자가 있는 형태이다. 단독형 인장와의 명문은 ‘午, 雜(?), 辰, 止, 斯, 巳’ 등이며, 판독이 불가능한 ‘○’도 있다. 지지²⁰명을 뜻하는 ‘辰, 巳, 午’와 ‘雜(?), 止, 斯’ 등의 글자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에 따라 조합형과 단독형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확연히 1개의 글자만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내용상 2개의 도장이 함께 찍히는 조합형으로 볼 수 있는 개체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형을 기준으로 명문 구조를 살펴보면, 앞의 문자에는 ‘戊’, ‘巳, 午’가 있으며, 뒤의 문자는 ‘助(助), 斯, 止, 毛(?)’ 등이다. 내용상 앞의 문자는 간지²¹를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되며, 뒤의 글자는 공급자를 표시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사비시기(538~660)를 통틀어 간지명이 가리키는 시간적인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지지가 가지는 방위의 개념, 즉 동쪽은 ‘寅, 卯’, 서쪽은 ‘申, 酉’, 남쪽은 ‘巳, 午’, 북은 ‘亥, 子’, 중앙은 ‘辰, 戌, 丑, 未’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⁹ 단독형 가운데 지지명이 있는 것은 본래 조합형일 가능성이 있으며, ‘雜(?), 止’명은 단독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가 새겨진 기와도 일부 확인된다.

2) 인장와의 분포와 성격

부소산 사지 이외에 인장와가 출토되는 유적은 부여 부소산성과 관북리 유적,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이다. 인장와가 주로 출토되는 유적은 왕궁 혹은 왕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므로 공교롭게도 7엽 연화 문수막새와 거의 일치한다. 익산 미륵사지의 경우 사찰이긴 하지만 그 규모나 성격이 단지 왕실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왕실의 원찰²² 개념인 부소산 사지와는 다른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¹⁹ 지지가 나타내는 뜻에는 이 밖에도 색과 수를 들 수 있다. 동쪽을 나타내는 寅과 卯는 青色, 서를 나타내는 申과 酉는 白色, 남을 나타내는 巳와 午는 赤色, 북을 나타내는 亥와 子는 黑色, 중앙을 나타내는 辰, 戌, 丑, 未는 黃色이다. 역법²³에서 말하는 지지가 갖고 있는 선천수²⁴先天數와 후천수²⁵後天數 개념에 따르면, 子(9와 1), 丑(8과 10), 寅(7과 3), 卯(6과 8), 辰(5와 5), 巳(4와 2), 午(9와 7), 未(8과 10), 申(7과 9), 酉(6과 4), 戌(5와 5), 亥(4와 6)라고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장과 명문에 대한 판독은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대개는 생산자 혹은 특정한 공인집단을 나타내는 표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하나의 가마에서 다수의 수요처로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양 왕진리의 가마에서 생산된 특정한 표지가 있는 인장과가 백마강을 타고 직선거리로 약 6km 밖에 위치하는 부여 부소산성이나 관북리 일대로 공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익산 지역에서 인장과가 출토된 가마터 발견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익산 지역에도 왕진리에서 생산된 기와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유통 경로는 금강 하구에서 만경강을 타고 익산 지역으로 공급하는 루트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백제가 인장과 수급 시스템은 중앙의 통제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았던 관영생산체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백제 사비 시기의 정림사지나 능산리 사지 같은 대규모 사찰 유적에는 기와 가마터가 동반되는데, 해당 사찰의 창건이나 보수를 위해 운영되던 사찰 전용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인장과는 특정 시기에 특정한 가마에서만 생산되어 왕궁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설에만 한정되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평기와

평기와는 1942년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15점이 남아 있다. 평기와는 수키와 4점, 암키와 11점으로 구분된다. 기와의 규격은 대개 잔편이지만 전체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체를 통해 37.6cm임을 알 수 있다. 기와의 두께는 암키와가 1.7~2.3cm, 수키와가 1.5~1.7cm로 다소 차이가 있다. 수키와는 탑지와 금당지에서 각각 2점 출토되었고, 암키와는 금당지에서 6점 출토되었으며, 나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양은 암키와와 수키와 모두 태선문이 시문되었으나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내면에는 전면적으로 물손질 정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목흔이 뚜렷하다. 색조와 태토, 소성도는 여타 백제 기와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색 계통이고 고운 니질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부드러운 연질 소성되었다.

기와 제작에는 통쪽와통이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많이 확인되는 이 지역 특유의 제작기법이며, 거창, 함양, 하동 등 백제와의 접경 지역인 경남 서부 지역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평기와 제작기술은 중국에서의 기와 제작기술 발전단계로 볼 때 와통을 사용하지 않고 받침모루와 두들개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이른바 ‘무와통기법’에서 와통을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와통은 다시 길고 좁은 나무판을 연결한 형태인 통쪽와통과 둥근 나무통을 사용하는 원통형와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쪽와

통을 선행 형식으로 본다. 통쪽와통을 사용하던 백제에서는 적어도 6세기 후반 경 원통형와통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유적의 중심 연대가 7세기로 추정되는 부소산 사지에서 통쪽와통으로 제작된 기와가 출토되는 것은 원통형 와통이 사용된 이후에도 백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쪽와통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 수막새와 인장과 검토에서 확인하였듯이 부소산 사지 출토 기와의 성격은 백제의 중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비시기 백제 왕궁터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과 내성에 해당하는 부소산성, 인근의 구아리 사지와 정림사지, 백제 왕실의 궁원이었던 궁남지까지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기와가 확인되는 유적 모두가 백제의 왕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익산 지역으로 확대해도 익산 지역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왕궁리 유적, 왕실과 직접 연관된 창건 설화를 간직한 미륵사지나 제석사지 등 백제의 중앙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유적이 대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여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기와가 보여주는 부소산 사지의 성격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검토 내용을 기와 자체에만 국한시키더라도 부소산 사지 출토 기와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 백제 문화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손색이 없다. 예를 들어, 8엽 연화문수막새는 사비시기 막새 문양으로서 이른바 ‘삼각반전형’이 가지는 대표성과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7엽 연화문수막새는 익산 지역에 유행하던 ‘장식형’ 문양과 연결되며, 7세기 대에 이루어진 막새 문양의 변화를 상징한다. 파문수막새는 제30대 무왕으로 대표되는 도교적 경향이 막새 문양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장와는 공급처와 수요처가 극도로 제한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장과 생산과 공급이 ‘관영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려 준다. 평기와에서 보이는 통쪽와통의 흔적은 아마도 삼국시대 어느 시기 인가에 도입되었을 원통형와통 사용과 함께 백제의 전통적인 통쪽와통에 의한 기와 생산이 7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부여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 출토 기와 고찰

윤 용 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부여 부소산 사지는 부소산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는 백제시대 절터이다.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요네다 미요지와 후지사와 가즈오가 발굴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수막새, 인장과, 평기와 등 1,000여 점에 달하는 기와가 출토되었다. 보고서에는 목서명이 표시되었으면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수막새 93 점과 인장과 44점, 평기와 15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수막새 문양은 8엽과 7엽 연화문, 파문 3종류가 확인된다. 8엽 연화문수막새는 ‘삼각반전형’에 포함되며, 자방 부분을 개범하였다. 이 수막새는 대부분 탑지에서 출토되어 창건 이후 탑을 중수하면서 올린 보수와로 생각된다. 같은 형식의 수막새는 부여 관북리 유적, 구아리 사지, 정림사지와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확인된다. 7엽 연화문 수막새는 ‘장식형’에 속하며, 이후 익산 지역에서 ‘장식형’ 연화문수막새가 발달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막새는 금당지와 탑지는 물론 중문지, 회랑지 등에서 고루 출토되었으므로 이 절이 처음 세워 질 때 만들어진 창건와로 추정된다. 동형 수막새가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처럼 왕궁 혹은 왕실과 직접 연관된 공공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의 수막새는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매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파문은 ‘연화화생(蓮華化生)’의 불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는 연화문과 달리 무문과 더불어 도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무문과 파문수막새에는 ‘무(無)’에서 시작된 우주에 움 직임[巴]이 생성되고 만물[萬有]이 형성된다는 도교적 세계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제작기법 측면에서 7엽 연화문수막새는 막새 뒷면 하단을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막새 뒷면과 수키와 끝 부분을 사선 혹은 ‘ㄱ’자 형태로 가공하여 접합하는 기법이 사용하였다. 반면 파문수막새는 막새 상반부를 절개 하고 가공하지 않은 수키와를 바로 접합하는 비교적 후대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8엽 연화문수막새 일부에서도 이러한 접합 방식이 확인되며, 막새 뒷면 하단을 물손질하여 곡면을 이루도록 하는 다소 간소화된 방식이 사용 되어 7엽 연화문수막새와 차이를 보인다.

인장와는 2개의 글자가 있는 조합형과 1개의 글자가 있는 단독형으로 구분된다. 조합형의 명문 구조는 앞에 ‘戊’, ‘巳, 午’ 등의 간지명이 오고, 뒤에 ‘助 혹은 助, 斯, 止, 毛(?)’ 등의 글자가 오는 형태이다. 단독형 명문에는 ‘辰, 巳, 午’ 등 지지명과 ‘雜(?), 止, 斯’ 등의 글자가 있다. 간지명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유력하지만 방 위 등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뒤의 글자는 공급자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장와가 출토되는 유 적은 부여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과 익산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처럼 왕궁 혹은 왕실과 직접 연관되는 공공시설 로만 제한되므로 7엽 연화문수막새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평기와 규격은 암키와의 길이가 37.6cm이며, 너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기와의 두께는 수키와가 1.5~1.7cm, 암키와가 1.7~2.3cm이다. 외면에 태선문이 시문되었으며, 내면은 거의 물손질을 하지 않아서 포목흔이 뚜렷하 다. 고운 니질 태토를 사용하였고 회색을 띠며, 연질 소성되었다. 기와 내면에서는 통쪽흔이 확인되어 7세기 이후 에도 백제 지역에서는 통쪽와통에 의한 성형법이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여 부소산 사지는 기와의 문양과 제작기법, 출토 양상 및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백제의 중앙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왕실의 원찰(願刹)일 가능성이 있다.

Roof Tiles Unearthed from the Busosan Temple Site in Buye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Yoon Yong-hee

Curator, Gimhae National Museum

In 1942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Yoneda Miyozi and Fujisawa Kazuo conducted a field campaign on the Busosan Temple Site located at the southwestern foot of Mt. Buso in Buyeo. The fieldwork yielded about one thousand roof tiles, including roof-end tiles, tiles with stamped inscription and flat tiles, and this report contains 93 roof-end tiles, 44 tiles with stamped inscription, and 15 flat tiles.

Decorations on the roof-end tiles consist of three kinds of patterns: eight-petal lotus flower pattern, seven-petal lotus flower pattern and vortex pattern. In case of roof-end tiles with eight-petal lotus flower pattern, a kind of inverted triangle pattern tiles, the mold seems to have been modified. Most of them have been unearthed at the sites of pagoda, and they seem to have been used in repairing pagodas of Buddhist temples. The roof-end tiles of the same type have been reported at Gwanbuk-ri Site, Gwa-ri Temple Site, and Jeongnimsa Temple Site in Buyeo and Wanggung-ri site Iksan. Roof-end tiles with seven-petal lotus flower pattern, a kind of ornamental pattern tiles, is consider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ornamental roof-end tile with lotus pattern in Iksan region. They have been evenly unearthed at sites of middle gates and corridors as well as sites of main halls and pagodas, and are considered to have been used in establishing temples. The roof-end tiles of the same type have been reported at limited number of sites such as Gwanbuk-ri Site and Busosanseong (Buso Mountain Fortress) in Buyeo, sites of public facilities directly associated with royal palace or royal family. This roof-end tile pattern seems to have symbolized the royal family and to have been only used in limited special occasions. Unlike the lotus flower pattern symbolizing the Buddhist world view, the vortex pattern represents the Taoist world view along with plain pattern.

As for manufacturing process, the rear lower part of the roof-end tile with seven-petal lotus flower pattern was treated with water trimming. The rear part of a roof-end tile and the edge of convex roof tile were jointed in the form of an oblique line or 'ㄷ'-shape. As for that with vortex pattern, the incised upper part of a roof-end tile was jointed directly with the edge of a convex roof tile, a relatively lately appeared skill. This jointing method was occasionally adopted in the roof-end tiles with eight-petal lotus flower pattern, and a rather simplified method using water trimming was also used to make the rear lower part of the roof-end tile be curved.

Roof tiles with stamped inscrip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 composite type with two Chinese characters and a single type with one Chinese character. While the structure of inscription of the composite type consists of a name of the sexagenary cycle such as '戊', '巳, 午' plus a Chinese character such as '助[助], 斯, 止, 毛(?)', that of the single type consists of a name of 12 zodiac cycle, such as '辰, 巳, 午' plus a Chinese characters such as '雜(?), 止, 斯'. The first of the two Chinese characters most likely refers to a time, but it may also refer to a direction. The following character is thought to refer to the supplier of the tiles. Like the roof-end tiles with seven-petal lotus flower pattern, the roof tiles with stamped inscriptions have been found only at sites of public facility directly associated with a royal palace or family such as Busosanseong(Buso Mountain Fortress) and Gwanbuk-ri Site in Buyeo and Wanggung-ri Site Mireuksa Temple Site in Iksan.

As for the size of the flat roof tiles, the length of roof tiles is 37.6cm, but the width is unclear. While convex roof tiles are 1.5 - 1.7cm thick, flat roof tiles are 1.7 - 2.3cm thick. While the outer surface is decorated with thick linear pattern, the inner surface treated with little water trimming shows clear trace of hemp cloth. Finely refined clay was adopted in making soft-fired gray roof tiles. There is trace of mold for roof tile with wooden stripe style in the inner surface, and it suggests that shaping with a mold continued in Baekje in the seventh century and thereafter.

Considering decoration patterns and manufacturing methods of roof tiles and their distributions, the Busosan Temple Site seems to have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f Baekje, and the temple might be a tutelary temple for the royal family.

부소산 사지 출토품 채색안료 성분 분석

김연미, 이민희 | 국립부여박물관

I. 분석 개요

일제강점기 부소산 사지 출토 벽화 및 벽체 편 101점(부여281, 자료381, 자료319), 소조상 편 57점(자료324, 자료320, 부여282, 부여283), 기와 편 11점(부여1304, 부여1307, 부여1336, 자료324)을 대상으로, 현미경 관찰, X-선형광분석 등 비파괴분석법을 활용하여 채색안료의 성분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언급한 벽화 편(부여281 15점, 자료381 57점, 자료319 29점)과 소조상 편(자료324 50점, 자료320 1점, 부여282 5점, 부여283 1점)은 일괄번호로 관리되고 있어, 분석 조사 결과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임의로 세부번호를 부여하여 진행하였다.

II. 분석 방법

1. 현미경 관찰

현미경 관찰은 바탕(태토)과 비교하여 채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체현미경 Stereoscopic Microscope, Leica MZ-12, Germany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성분 분석

안료의 성분 분석은 이동형 X-선형광분석기Potable XRF, ArtTAX Basic, Bruker AXS,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No filter 상태에서 몰리브덴 Mo Target, 전압 50 kV, 전류 600 μ A, 시간 200s이고, 분석 면적은 직경 0.65 mm로 설정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벽화 및 벽체 편

부소산 사지 출토 벽화 및 벽체 편에 사용된 안료 분석을 위해 각 시료별 바탕(태토)을 기준으로 육안을 통해 백색, 적색, 흑색 구분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의 색상별 채색 안료 특성은 동일 조건에서 측정된 바탕(태토)의 검출 성분 및 측정 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측정 강도가 높은 성분을 기초로 기여원소를 결정하였다. 기여원소를 토대로 채색안료를 추정하고 대표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표 1, 표 2]

바탕(태토)에서는 칼륨K, 칼슘Ca, 티타늄Ti, 망간Mn, 철Fe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101점 중 75점의 경우에는 구리Cu, 납Pb, 수은Hg이 낮은 강도로 추가 검출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채색안료 및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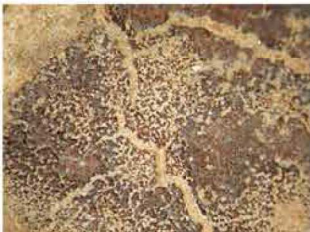



백색은 납Pb의 검출 강도가 높게 검출되어 연백Lead White, $2\text{PbCO}_3 \cdot \text{Pb(OH)}_2$ 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45점과 바탕(태토)과 유사하게 검출되어 채색안료를 추정하기 어려운 48점으로 구분된다. 48점 중 구리Cu, 납Pb이 추가 검출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바탕(태토)에서도 유사한 강도로 검출되어 육안으로 관찰되는 백색의 색상원소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적색은 수은Hg의 검출 강도가 높아 주/진사Cinnabar/vermilion, HgS 로 추정되는 3점(자료319-25, 28, 29)과 구리Cu의 강도가 높게 검출되는 2점(부여281-14, 16), 철Fe의 검출 강도가 높아 석간주로 추정되는 2점(자료318-3, 26), 납Pb의 검출 강도가 높아 연단으로 추정되는 1점(자료319-23)으로 구분된다. 구리Cu가 높게 검출되는 유형과 철Fe이 높게 검출되는 유형의 경우에는 납Pb이 함께 검출되는데, 이는 납Pb이 주성분인 안료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인접한 백색의 영향에 의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1] 부소산 사지 벽화 및 벽체 편 채색안료에 대한 조사 결과

색상계통	세부계통	기여원소	추정안료	비고
바탕	태토	K, Ca, Ti, Mn, Fe	-	
백색	-	Pb	연백	
적색	유형1	Hg	주/진사	
	유형2	Cu	-	
	유형3	Fe	석간주	
흑색	유형1	Mn	-	
	유형2	Cu	-	
	유형3	Pb	-	
	유형4	Mn, Cu, Pb	-	
	유형5	-	먹	

[표 2] 부소산 사지 벽화 및 벽체 편 색상 계통별 세부 사진

바탕	 No. 281-3		
백색	 No. 281-6 Pb	 No. 318-46 Pb	 No. 319-2 Pb
적색	 No. 319-25 Hg	 No. 281-14 Cu	 No. 281-1 Fe
흑색	 No. 318-37 Mn	 No. 281-3 Cu	 No. 281-4 Pb
	 No. 281-15 Mn,Cu,Pb	 No. 281-8 -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구리가 주성분인 안료는 석록 $\text{CuCO}_3 \cdot \text{Cu(OH)}_2$, 녹염동광 $\text{Cu}_2\text{Cl(OH)}_3$, 석청 $2\text{CuCO}_3 \cdot \text{Cu(OH)}_2$ 등으로 석록과 녹염동광은 녹색, 석청은 청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¹ 따라서 본 시료와 유사하게 적색을 띠는 사례는 보고된 예가 드물다. 본고에서는 검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안료 자체를 적동석 Cu_2O 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두 번째는 화재에 따라 안료가 변색되었을 경우이다.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록은 열을 받으면 산화동으로 변화하고 산화동은 환원분위기에서 적갈색의 산화제일동 Cu_2O 으로, 산화분위기에서는 산화제이동 CuO 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적갈색, 흑갈색을 띠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흑색은 망간Mn이 높은 강도를 보이는 7점(자료318-7, 19, 25, 29, 37, 319-2, 32), 구리Cu가 높은 강도를 보이는 20점(부여281-1, 2, 3, 5, 6, 7, 8, 9, 11, 12, 13, 17, 18, 자료318-30, 34, 39, 자료319-17, 19, 22, 25), 납Pb이 높은 강도를 보이는 3점(부여281-4, 10, 자료318-44), 망간Mn, 구리Cu, 납Pb이 함께 높은 강도를 보이는 4점(부여281-15, 자료319-11, 26, 28), 바탕(태토)과 유사하게 검출되는 시료로 유기 안료인 먹Chinese Ink, C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3점(부여281-8, 자료318-14, 24, 26, 27, 28, 31, 48, 49, 50, 51, 57, 자료319-20)으로 구분된다. 구리Cu가 높은 강도를 보이는 20점 중 4점(부여281-5, 11, 자료318-39, 자료319-25)은 납Pb이 함께 검출되는데, 이는 인접색상인 백색 영향에 의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흑색은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먹Chinese Ink, C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하지만 본 시료와 같이 망간Mn과 구리Cu가 기여원소로 검출되는 경우도 드물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망간Mn의 경우, 우리나라의 망간 광산의 수가 적어 교역 등을 통하여 외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여 능산리고분군 동하총, 정림사지 소조상 편에서 확인된 바 있어 흑색 안료로 망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

분석 시료 중 벽체 편으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정확한 용도를 추정할 수 없는 4점이 확인된다. 그중 1점(자료318-30)은 가마 안에 연료의 재가 떨어져 소지의 성분과 화합하여 생성되는 자연유 추정 부위가 확인되어 다른 용도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도 1] 나머지 3점(자료319-24, 25, 26)은 다른 시료와는 상이하게 금이 관찰된다.^[도 2] 특히 자료319-24 시료에서는 '금박-주/진사-흑색'의 층 구조가 뚜렷이 관찰되며, 상하 층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 특징을 보인다. 선행 연구된 능산리 출토 금박채색칠기 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³ 따라서 본 채색 기법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318-30

[도 1] 부소산 사지 벽체 편 자연유 추정 부위 세부 사진



자료319-24



자료319-25



자료319-26

[도 2] 부소산 사지 벽체 편 금Au 검출 부위 세부 사진

1 국립부여박물관, 『고대안료』(2015), pp. 9~10.

2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2015), p. 19.

3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색』(2015), pp. 30~31.

2. 소조상 편

부소산 사지 출토 소조상 편에 사용된 안료 분석을 위해 각 시료별 바탕(태토)을 기준으로 육안상 백색, 적색, 흑색, 옅은 흑색 구분 후 각 3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의 색상별 채색 안료 특성은 동일 조건에서 측정된 바탕(태토)의 검출 성분 및 측정 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측정 강도가 높은 성분을 기초로 기여원소를 결정하고 채색안료를 추정하여 대표적 특성을 정리하였다.[표 3, 표 4]

[표 3] 부소산 사지 소조상 편 채색안료에 대한 조사 결과

색상계통	세부계통	기여원소	추정안료	비고
바탕	태토	K,Ca,Ti,Mn,Fe	-	
	-	Cu,Pb	-	
백색	유형1	Pb	연백	
	유형2	Pb,Mn	-	
	유형3	Mn	-	
	유형4	-	-	
적색	유형1	Fe	석간주	
	유형2	Fe,Pb	-	
	유형3	Cu	-	
	유형4	Pb	연단	
흑색	유형1	Mn	-	
	유형2	Mn,Cu	-	
	유형3	Cu	-	
	유형4	Pb	-	백색 영향으로 검출 추정
	유형5	-	먹	
옅은 흑색	유형1	Mn	-	
	유형2	Mn,Cu	-	
	유형3	Cu	-	
	유형4	Mn,Pb	-	
	유형5	Pb	-	변색 가능성 있음
	유형6	-	-	변색 가능성 있음

바탕(태토)에서는 칼륨K, 칼슘Ca, 티타늄Ti, 망간Mn, 철Fe이 공통적으로 검출된다. 구리Cu와 납Pb이 추가로 검출되는 부위가 있으나 이는 잔존하는 채색안료의 영향에 의한 검출 또는 토양 특성 및 외부 요인에 의한 측정결과로 사료되며, 채색 부위와 비교 시 현저하게 낮은 강도 값을 보인다.

백색은 총 35점으로 기여원소에 따라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납Pb의 검출 강도가 높은 16점(자료324-1, 2, 3, 7, 13, 18, 19, 20, 29, 30, 31, 40, 44, 49, 부여282-3, 부여283-2)이며 두 번째는 납Pb, 망간Mn의 검출 강도가 높은 1점(자료324-33), 세 번째는 망간Mn의 검출 강도가 높은 1점(자료324-43), 네 번째는 바탕(태토)의 검출 원소 및 강도와 유사한 값을 보이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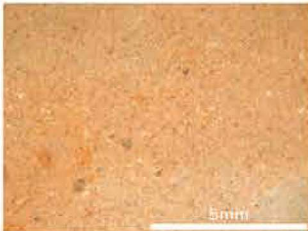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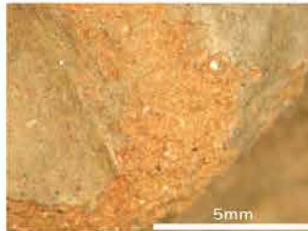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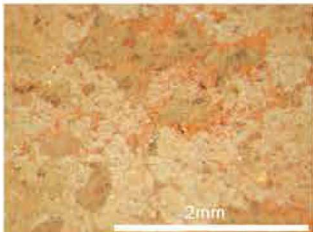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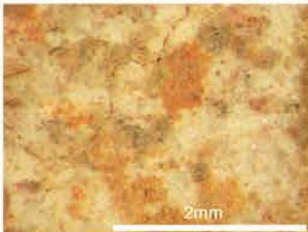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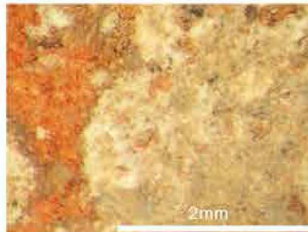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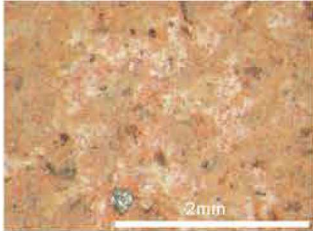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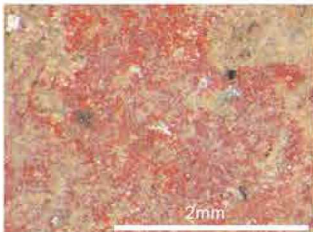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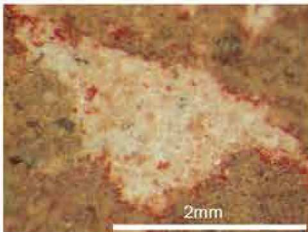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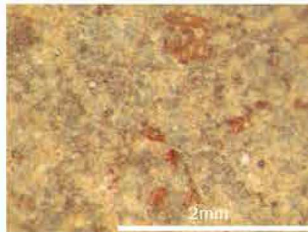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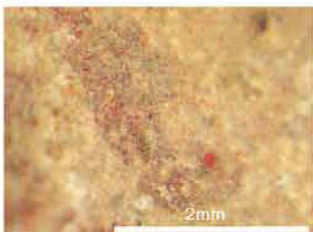
점(자료324-5, 6, 9, 11, 14, 17, 25, 27, 28, 36, 37, 38, 41, 47, 자료320-1, 부여 282-2,4)으로 구분된다. 단, 자료324-6은 납Pb과 구리Cu의 강도가 함께 검출되지만 같이 측정한 적색 부위에 비해 낮은 강도 값을 보이고 3회 측정 시 유사한 값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접 색상인 적색의 영향에 의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네 번째 유형에 포함하였다. 자료324-5, 부여282-4의 경우에도 구리Cu와 망간Mn의 강도가 높게 확인되나 자료324-5는 3회 측정 시 동일 결과를 보이지 않고, 부여282-4는 강도 값 비교 시 인접 색상인 흑색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네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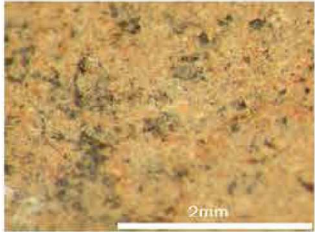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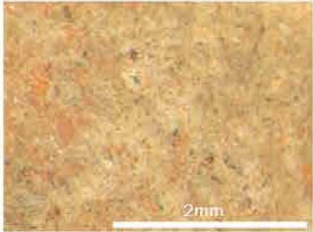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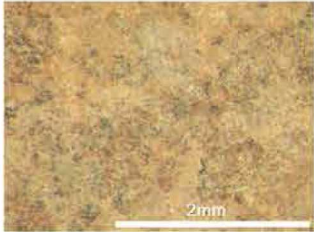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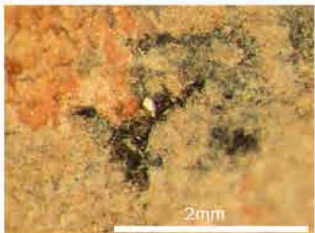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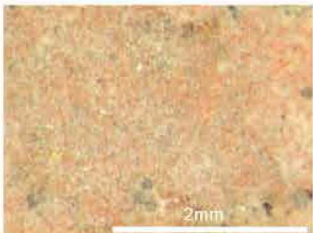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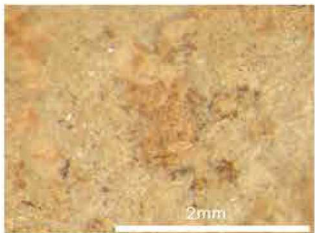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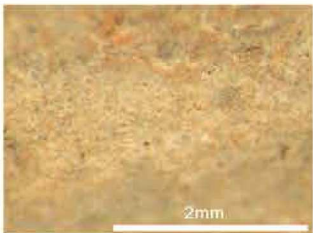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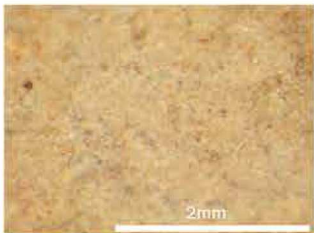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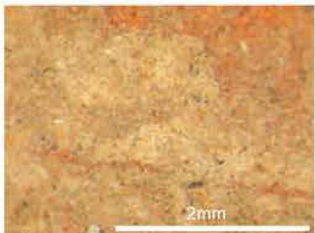


첫 번째 유형은 납Pb의 검출 강도가 높으며 이는 기존 백색 안료 분석에서 주로 관찰되는 결과로 인공 안료인 연백Lead White, $2\text{PbCO}_3 \cdot \text{Pb(OH)}_2$ 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유형은 납Pb과 망간Mn이 높게 검출되는 결과를 보이며 구리Cu도 다소 높게 검출되지만 같이 관찰되는 흑색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납Pb과 망간Mn이 본 색상의 주된 성분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 유형은 망간Mn이 높은 강도로 검출되었으나 망간Mn이 검출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네 번째 유형은 바탕(태토)과 유사하게 검출되는 시료로 정확한 채색안료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본 분석 장비로 판단이 용이하지 못한 백토kaolinite, $\text{Al}_2\text{O}_3 \cdot 2\text{SiO}_2 \cdot 2\text{H}_2\text{O}$ 와 같은 안료로 채색되었을 가능성 있다.

적색은 총 10점으로 첫 번째는 철Fe이 높은 강도를 보이는 3점(자료324-1, 46, 29), 두 번째는 철Fe과 납Pb이 높은 강도를 보이는 1점(자료324-45), 세 번째는 구리Cu가 높은 강도를 보이는 3점(자료324-6, 48, 부여283-2), 네 번째는 납Pb이 높은 강도를 보이는 3점(자료324-10, 13, 39)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철Fe이 높은 강도로 검출되어 철Fe을 주 성분으로 하는 석간주Hematite, Fe_2O_3 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미경 관찰을 통해 백색 위에 채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료 324-49의 경우, 납Pb도 검출되지만 인접 색상의 강도와 비교 시 철Fe이 주 색상원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유형은 철Fe과 납Pb이 높은 강도를 보여 철Fe과 납Pb이 주 색상원소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용 안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세 번째 유형은 구리Cu가 주 색상원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유형은 납Pb을 주 원소로 하는 연단Red lead, Pb_3O_4 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흑색은 총 18점으로 첫 번째는 망간Mn이 높은 강도를 보이는 2점(자료 324-18, 23), 두 번째는 망간Mn과 구리Cu가 높은 강도를 보이는 1점(부여 282-4), 세 번째는 구리Cu가 높은 강도를 보이는 13점(자료324-13, 17, 26, 33, 34, 35, 40, 41, 43, 47, 49, 부여281-1,3), 네 번째는 납Pb이 높은 강도를 보이는 1점(부여324-30), 다섯 번째는 바탕(태토)과 유사한 검출 원소 및 강도를 보이는 1점(자료324-9)으로 구분된다.

[표 4] 부소산 사지 소조상 편 색상 계통별 현미경 사진

바탕	 <p>No. 324-21-1: $\times 0.63$</p>	 <p>No. 324-32-1: $\times 0.63$</p>	 <p>No. 282-3-2: $\times 0.63$</p>
백색	 <p>No. 324-29-4: $\times 0.63$ Pb</p>	 <p>No. 324-33-6: $\times 2.0$ Pb Mn</p>	 <p>No. 324-43-4: $\times 2.0$ Mn</p>
	 <p>No. 324-11-4: $\times 2.0$ -</p>		
적색	 <p>No. 324-46-4: $\times 2.0$ Fe</p>	 <p>No. 324-49-4: $\times 2.0$ Fe Pb</p>	 <p>No. 324-48-4: $\times 2.0$ Cu</p>
	 <p>No. 324-13-7: $\times 2.0$ P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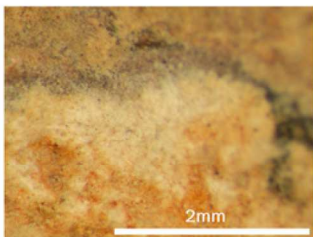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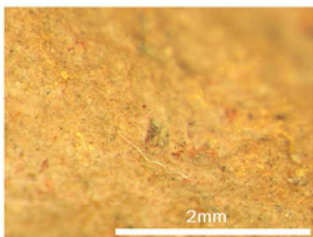
흑색			
	No. 324-18-7: x2.0 Mn	No. 282-4-4: x2.0 Mn Cu	No. 324-43-8: x2.0 Cu
붉은 흑색			
	No. 324-30-7: x2.0 Pb	No. 324-9-7: x2.0 -	
붉은 흑색			
	No. 320-1-7: x2.0 Mn	No. 324-4-4: x2.0 Mn Cu	No. 324-32-4: x2.0 Cu
붉은 흑색			
	No. 282-2-4: x2.0 Mn Pb	No. 324-8-6: x2.0 Pb	No. 324-42-4: x2.0 -

첫 번째 유형은 동일 출토지 벽화 편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망간Mn이 주 색상원소로 추정된다. 두 번째 유형은 망간Mn과 구리Cu가 높게 검출되었으나 3회 측정 시 동일 결과를 보이지 않아 정확한 주 색상원소를 판단하기 어렵다. 세 번째 유형은 구리Cu가 높게 검출되어 주 색상원소로 추정되며, 9점(자료324-13, 17, 34, 35, 40, 41, 49, 부여282-1, 3)의 경우에는 구리Cu와 함께 납Pb도 높게 검출되는 경향이 확인되나, 인접색상과 강도 값 비교 시 구리Cu가 주 색상원소일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의 유형은 납Pb이 높게 검출되나 인접 색상인 백색에 영향을 받은 결과 값으로 추정된다. 다섯 번째의 경우는 바탕(태토)과 비교 시 다른 성분 및 높은 강도를 보이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먹Chinese Ink, C에 의해 착색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열은 흑색은 총 16점으로 흑색과 색상 차를 보이는 부위에 대해 측정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망간Mn이 높은 2점(자료320-1, 부여283-2), 두 번째는 망간Mn과 구리Cu가 높게 검출되는 1점(자료324-4), 세 번째는 구리Cu가 높게 검출되는 1점(자료324-32), 네 번째는 망간Mn과 납Pb이 높게 검출되는 1점(부여282-2), 다섯 번째는 납Pb이 높게 검출되는 6점(자료324-8, 12, 15, 34, 부여282-1, 5), 여섯 번째는 바탕(태토)과 유사한 검출 원소 및 강도를 보이는 5점(자료324-22, 24, 35, 42, 50)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흑색1, 2, 3 유형과 유사하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유형은 백색이 흑화되어 열은 흑색으로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유형은 망간Mn과 납Pb이 높게 검출되나 인접 색상인 흑색에서 검출되는 강도보다 현저하게 낮게 검출되어 흑색의 영향을 받아 바탕보다 높은 강도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본 측정 결과, 주 색상원소를 한 가지로 확인 가능한 시료 이외의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높은 강도를 보이는 시료는 안료가 혼합되어 사용했을 가능성, 또는 바탕칠을 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시료 중 2점(자료324-30, 부여283-2)에서 추가로 금Au이 검출되어 금Au으로 장식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점(자료324-30)은 백색과 흑색으로 관찰되는 부위에서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1점(부여283-2)은 백색으로 추정되는 부위 1곳에서 확인된다.^[도 3] 따라서 본 시료는 채색을 진행하고 금을 이용해 장식성을 높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 3] 부산산 사지 소조상 편금Au 검출 부위 현미경 사진

3. 기와 편

부소산 사지 출토 기와 편에 사용된 안료 분석을 위해 각 시료별 태토(바탕)를 기준으로 육안상 백색, 적색을 구분 후 각 3회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의 색상별 채색 안료 특성은 동일 조건에서 측정된 바탕(태토)의 검출 성분 및 측정 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측정 강도가 높은 성분을 기초로 기여원소를 결정하고 채색안료를 추정하여 대표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표 5,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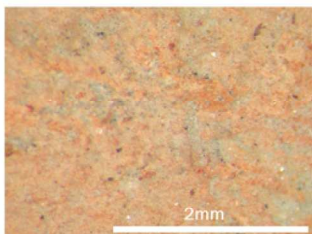
[표 5] 부소산 사지 소조상 편 채색안료에 대한 조사 결과

색상계통	세부계통	기여원소	추정안료	비고
바탕	태토	K, Ca, Ti, Mn, Fe	-	채색안료에 의한 검출 추정
	-	Pb	-	
백색	-	-	-	
적색	-	Fe	석간주	

바탕(태토)은 칼륨K, 칼슘Ca, 티타늄Ti, 망간Mn, 철Fe이 공통적으로 검출된다. 2점[부여1307(3-2), 부여1336(15-7)]에서 납Pb이 추가로 검출되나, 이는 잔존하는 채색안료의 영향에 의한 검출 또는 토양 특성 및 외부 요인에 의한 측정 결과로 사료되며, 채색 부위와 비교 시 현저하게 낮은 강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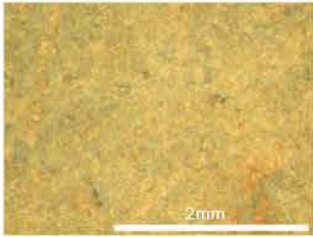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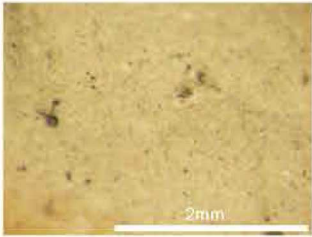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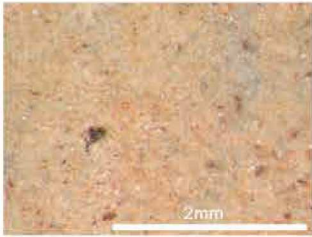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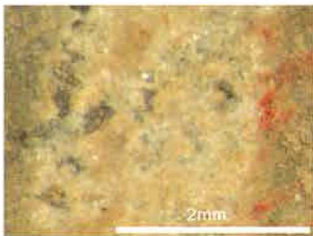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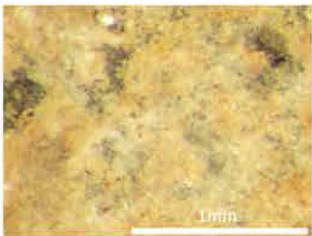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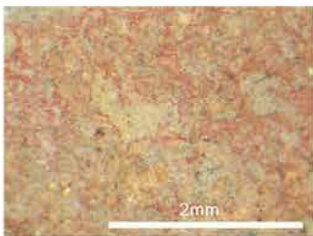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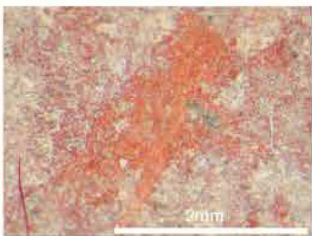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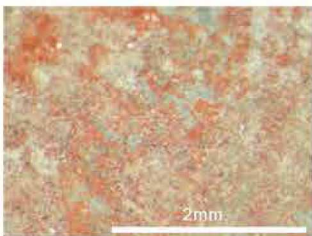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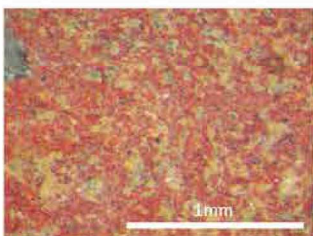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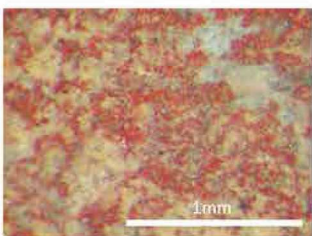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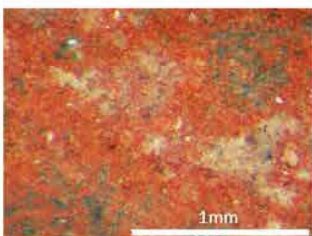
백색은 총 1점(부여1304)으로 바탕(태토)의 검출원소 및 강도와 유사한 정성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정확한 채색안료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본 분석 장비로 판단이 용이하지 못한 백토kaolinite,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와 같은 안료로 채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적색은 총 10점으로 1점[부여1336(15-5)]을 제외하고 본 분석 시료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부여1336(15-5)의 경우에도 육안상으로 적색을 띄는 부위가 확인되나 분석 결과 이물질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 4] 적색이 관찰되는 모든 시료는 철Fe이 높은 강도를 보여 철Fe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간주Hematite, Fe_2O_3 를 이용하여 기와를 채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도 4] 부소산 사지 기와 편 부여1336(15-5) 적색 부위

[표 6] 부소산 사지 기와 편 색상 계통별 현미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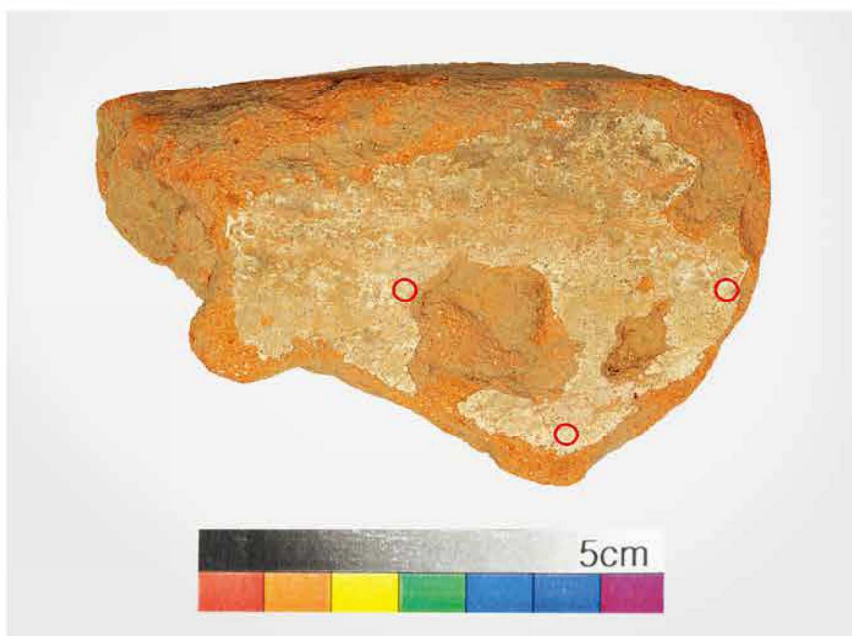
바탕	 <p>No. 1304-1: ×2.0</p>	 <p>No. 1336(15-6)-3: ×2.0</p>	 <p>No. 324(4-1)-1: ×2.0</p>
백색	 <p>No. 1304-8: ×2.0 -</p>	 <p>No. 1304-8: ×4.0 -</p>	
적색	 <p>No. 324(4-2)-4: ×2.0 Fe</p>	 <p>No. 1304(3-2)-4 ×2.0 Fe</p>	 <p>No. 1304-5: ×2.0 Fe</p>
	 <p>No. 324(4-3)-5: ×4.0 Fe</p>	 <p>No. 1304(3-3)-4: ×4.0 Fe</p>	 <p>No. 1336(15-7): ×4.0 Fe</p>

IV. 참고자료

1. 백색안료



부소산 사지 벽화 편 백색안료 확인 위치(부여2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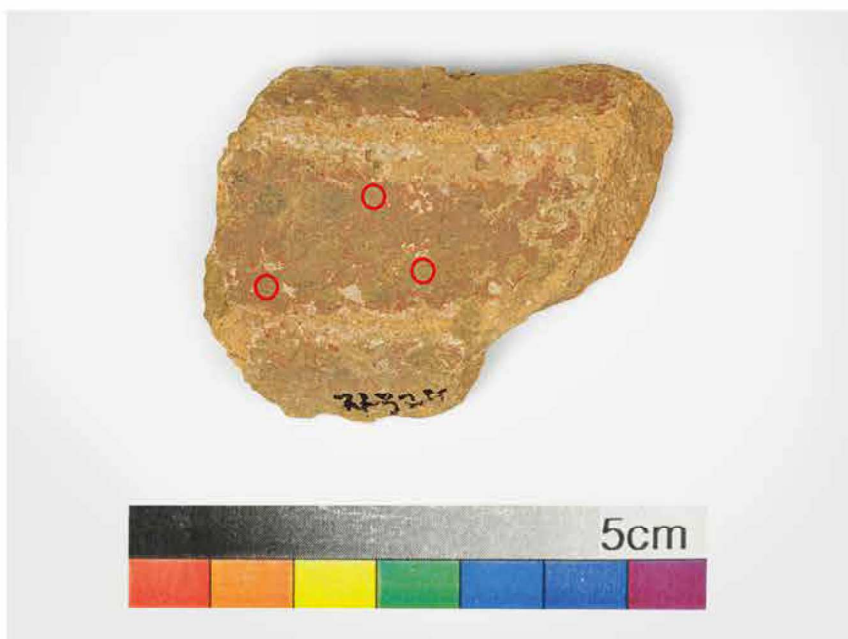


부소산 사지 소조상 편 백색안료 확인 위치(자료32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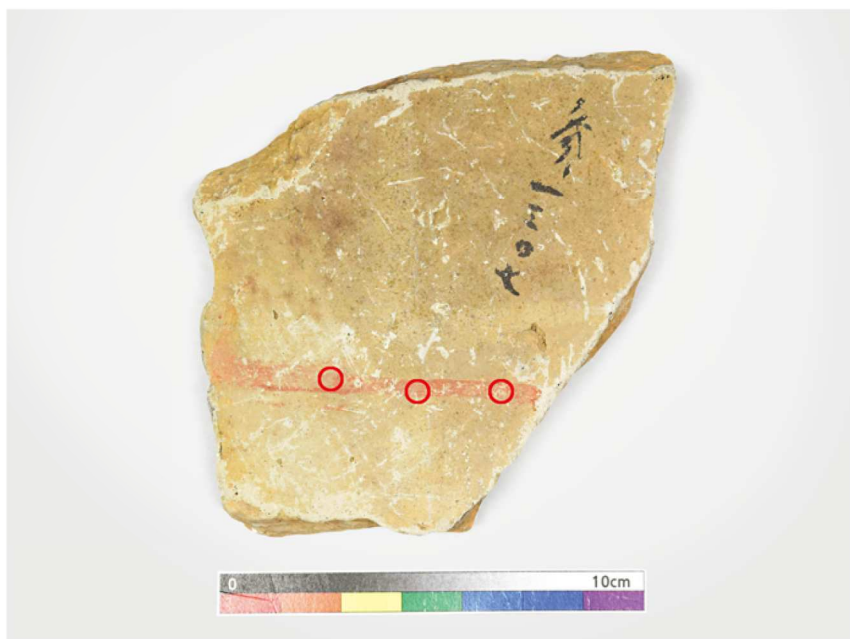
2. 적색안료



부소산 사지 벽화 편 적색안료 확인 위치(부여281-16)



부소산 사지 소조상 편 적색안료 확인 위치(자료3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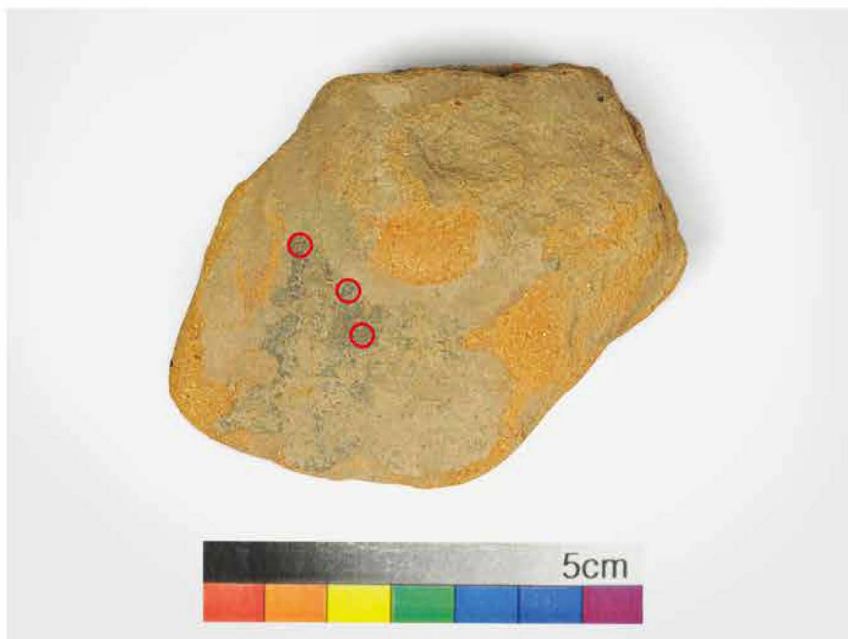


부소산 사지 기와 편 적색안료 확인 위치(부여1307(3-1))

3. 흑색안료



부소산 사지 벽화 편 흑색안료 확인 위치(부여28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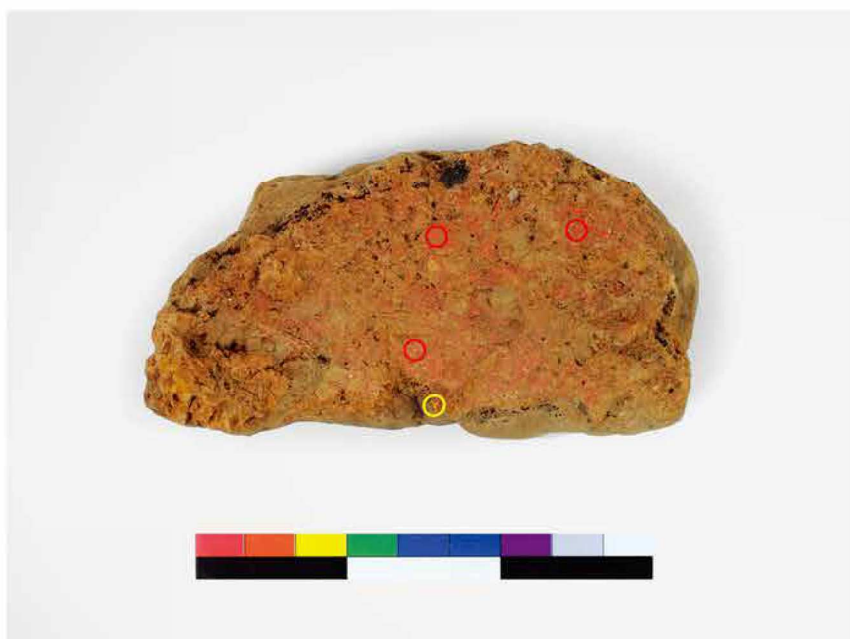


부소산 사지 소조상 편 흑색안료 확인 위치(자료324-34)

4.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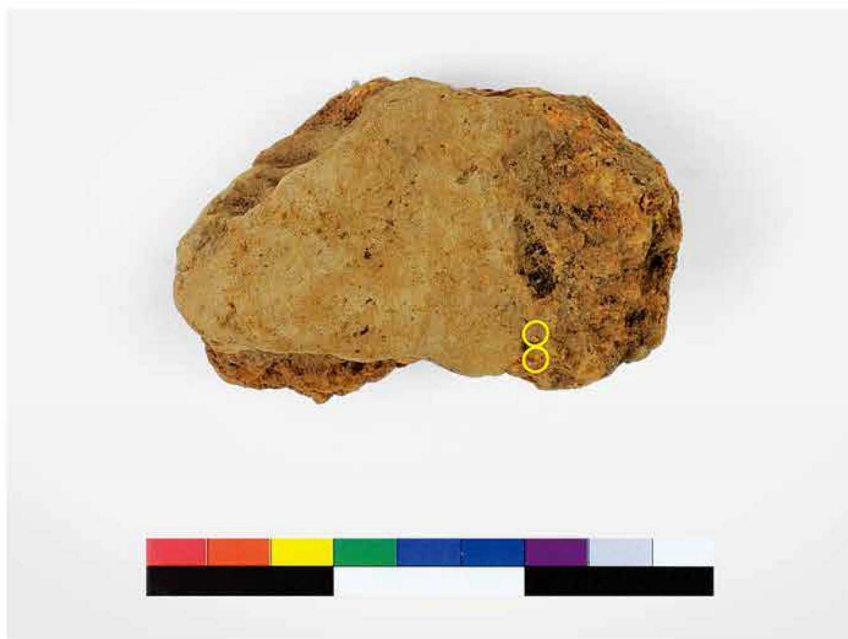
부소산 사지 벽화 편 금 확인 위치(자료3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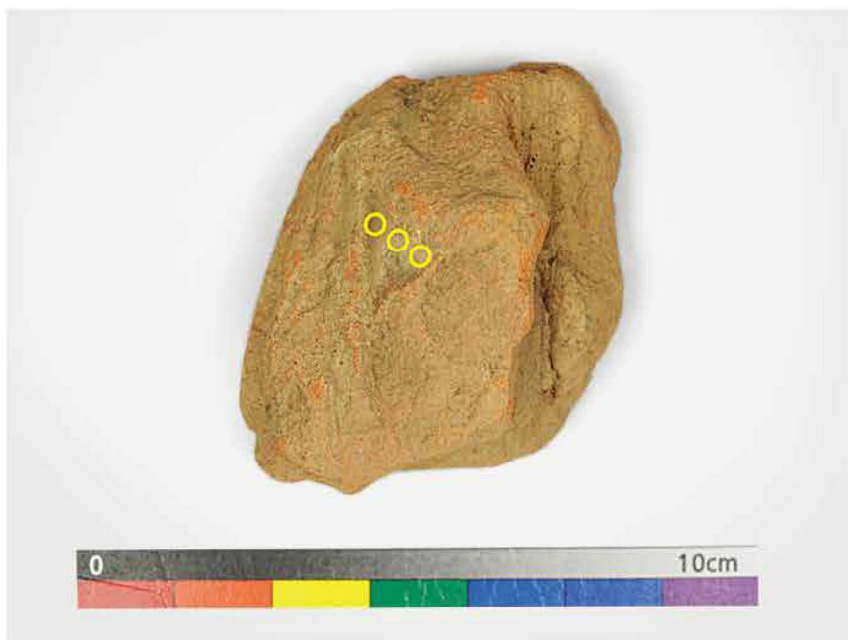
부소산 사지 벽화 편 금 확인 위치(자료319-25)

* Red circle: Analysis points of red.

** Yellow circle: Analysis points of gold.



부소산 사지 벽화 편 금 확인 위치(자료319-26)



부소산 사지 소조상 편 금 확인 위치(부여283)



부소산 사지 소조상 편 금 확인 위치(자료324-30)

부소산 사지 출토품 채색안료 성분 분석

김연미, 이민희
국립부여박물관

일제강점기 부여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벽화 및 벽체 편 101점, 소조상 편 57점, 기와 편 11점에 대한 성분 분석과 현미경 관찰을 통해 채색안료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부소산 사지 출토품에서 관찰되는 색상은 백색, 적색, 흑색, 옅은 흑색이며, 추정된 안료는 색상에 따라 유사성이 확인된다.

백색은 벽화 및 벽체 편, 소조상 편, 기와 편에서 모두 관찰되며,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나 납을 색상기여원소로 하는 연백과 성분 및 강도가 백색 바탕의 표면과 유사하여 백토일 가능성이 있는 시료가 주류를 이룬다. 적색은 철의 강도가 높게 확인되어 석간주로 추정되는 결과가 시료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확인되며, 구리를 색상기여원소로 하는 시료는 벽화 편과 소조상 편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흑색은 벽화 편과 소조상 편에서만 확인되는 색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중 망간, 구리, 납을 각각 색상기여원소로 하는 시료와 먹으로 추정되는 시료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옅은 흑색은 소조상 편에서 흑색과 구분하여 옅은 색감이 확인되는 부위를 별도로 보았으나, 흑색과 유사하게 검출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색상 이외에, 색상기여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추정되는 시료가 일부 존재한다. 이는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했을 가능성, 또는 바탕 칠을 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Ingredient Analysis of Pigments on Objects Unearthed from the Busosan Temple Site

Kim Yeon-mi

Curator, Buyeo National Museum

Lee Min-hee

Curatorial Assistant, Buyeo National Museum

Along with microscopic observation, ingredient analysis on objects unearthed from the Busosan Temple Site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consisting of 101 mural and wall pieces, 57 statue pieces and 11 roof tile pieces is conducted for characterization of pigments.

The colors observed on the objects excavated from the Busosan Temple Site are white, red, black and pale black, and the similarity of the estimated pigments was identified for each color. White color was observed on murals and wall pieces, clay statue pieces and roof tile pieces. Various types are identified, but it is similar to white lead and the composition and strength are similar to the surface of white background, so that the samples that may be white clay are the norm. The intensity of iron is identified to be high in red, the color of ruddle is identified across all samples, and samples with copper as a color element are commonly observed in murals and clay statue pieces. Black was identified only in murals and wall pieces and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Among them, samples with manganese, copper and lead as color elements and samples presumed to be Chinese ink are commonly identified. The pale black color separated from the black color in statue pieces and the areas identified to be the pale black color are observed separately, but tendency to be detected similarly to black color is identified.

In addition to the commonly identified colors, some samples seem to have more than one color element. Since there are several variabl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mixing pigments and the possibility of background painting, it is difficult to judge accurately.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24집

부여 부소산 사지

扶餘 扶蘇山 寺址

THE BUSOSAN BUDDHIST TEMPLE SITE IN BUYEO

총괄

구일회
윤형원

기획

김종오
이정인

진행

이정인
김소현
유가람

편집

이정인
김소현

원고

이정인
정 현 II 장 4. 토기

논고

윤용희 국립김해박물관
김연미
이민희

실측제도

김소현
유가람

일문번역

요시이 히데오 吉井秀夫
(京都大學 교수, 藤澤一夫 日記 번역)
히라고리 타츠야 平郡達哉
(鳥根大學 교수, 梅原末治 考古資料 번역)

영문번역

PanTransNet

사진촬영

한정엽 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복디자인

(주)디자인나눔

발행

국립부여박물관
3315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Tel. 041-833-8563
<http://buyeo.museum.go.kr>

제작

(주)디자인나눔
040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길 9-24 동우빌딩 5F
Tel. 02-325-3264
<http://designnannoom.com>

인쇄

모아프린팅

초판 발행

2017년 12월

© 2017 국립부여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ISBN

979-11-86567-13-5 비매품